동아시아문화도시 2019 인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

EAST ASIA culture exchange

동아시아문화도시 2019 인천 심포지엄

2019. 4. 27.(토) 14:00~17:30 하버파크 호텔

SECTION Ⅰ **동아시아 생활문화 심포지엄** 14:00-17:00 2F 그랜드볼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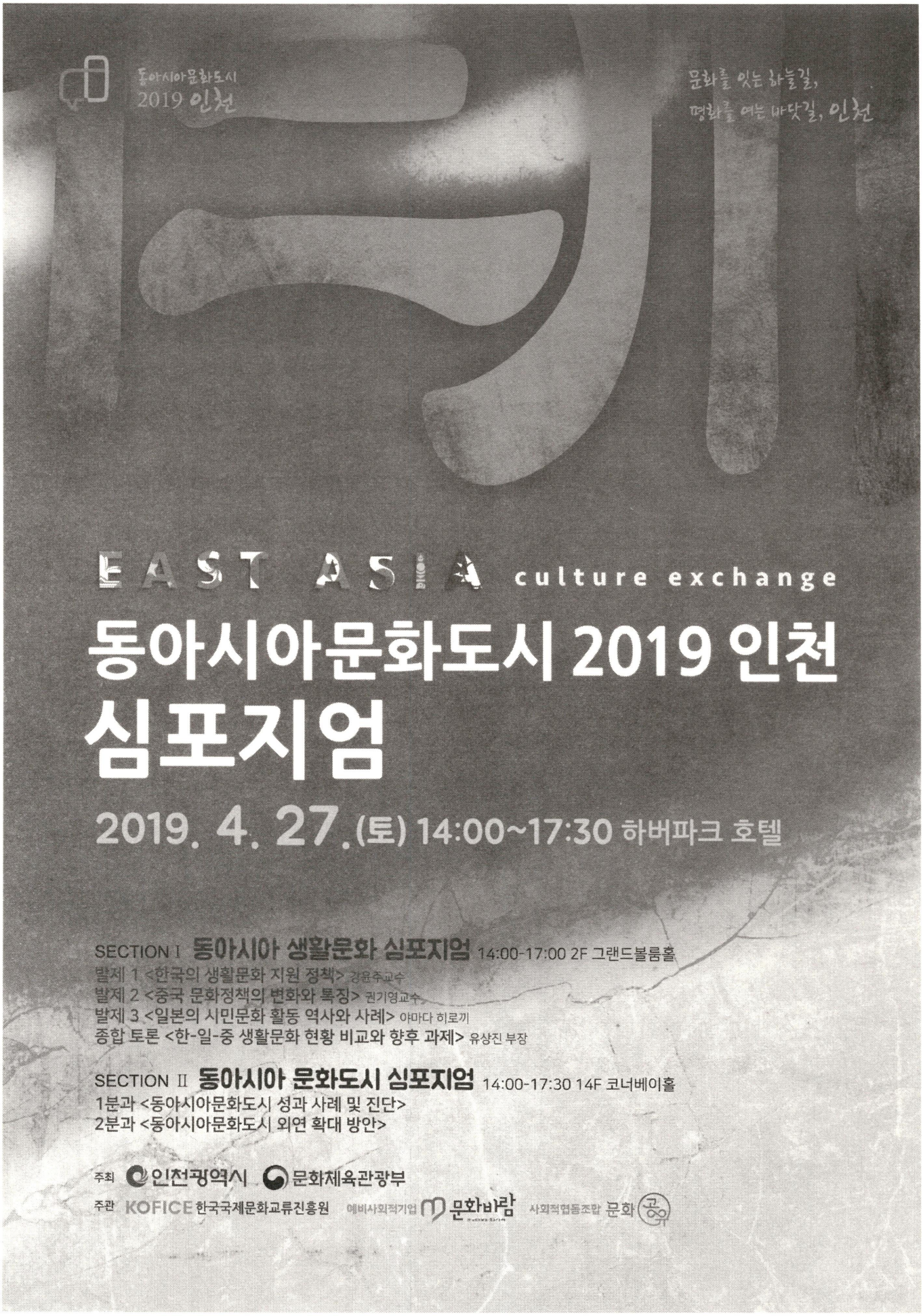
발제 1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강윤주교수
발제 2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 권기영교수
발제 3 <일본의 시민문화 활동 역사와 사례> 야마다 히로끼
종합 토론 <한-일-중 생활문화 현황 비교와 향후 과제> 유상진 부장

SECTION Ⅱ **동아시아 문화도시 심포지엄** 14:00-17:30 14F 코너베이홀

1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과 사례 및 진단>
2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

주최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문화바람 munhwa-baram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유


동아시아문화도시
2019 인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
EAST ASIA culture exchange
동아시아문화도시 2019 인천
심포지엄
2019. 4. 27.(토) 14:00~17:30 하버파크 호텔
SECTION I 동아시아 생활문화 심포지엄 14:00-17:00 2F 그랜드볼룸홀
발제 1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강윤주교수
발제 2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 권기영교수
발제 3 <일본의 시민문화 활동 역사와 사례> 야마다 히로끼
종합 토론 <한-일-중 생활문화 현황 비교와 향후 과제> 유상진 부장
SECTION II 동아시아 문화도시 심포지엄 14:00-17:30 14F 코너베이홀
1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과 사례 및 진단>
2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
주최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문화바람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유

2019年 东亚文化生活 研讨会

section 1：东亚文化生活 研讨会
section 2：东亚文化城市 研讨会

时　　间：2019. 4. 27. 星期六. 14:00~17:00
地　　点：仁川广域市 HARBORPARK酒店

主　　办：仁川广域市,文化体育旅游部
主办单位：文化风株式会社（社会企业）
　　韩国国际文化交流机构
　　社会合作社 '文化共享'

2019東アジア生活・文化シンポジウム

section 1 : 東アジア生活文化フォーラム
section 2 : 東アジア文化都市フォーラム

日 時 : 2019. 4. 27.土. 14:00～17:00
場 所 : インチョングァンヨクシ ハーバーパーク ホテル

主 催 : 仁川広域市、文化体育観光部
主 幹 : 株式会社ムンファバラム(予備社会的企業)
韓国国際文化交流振興院
社会的協同組合'文化共有'

목 차

section 1 : 동아시아 생활문화 포럼

I 행사소개 13

1. 행사개요
2. 행사추진배경 및 목적
3. 행사계획

II 발표자료

1. 한국사례 25
   –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주임 교수)

2. 중국사례 53
   –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
   권기영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3. 일본사례 67
   – 일본의 시민문화활동 사례 『우타고에 합창운동을 중심으로』
   야마다히로끼 (일본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국제교류위원)

III 토론자료

– 한·일·중 생활문화 현황 비교와 향후 과제 93
유상진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section 2 : 동아시아 문화도시 포럼

I 행사소개 103

1. 행사개요
2. 행사추진배경 및 목적
3. 행사계획

II 발표자료

1. 한국사례
– 부산광역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성과사례 115
김태경 (부산광역시 주무관)

– 동아시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131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2. 일본사례 145
–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문화에 의한 거리만들기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9 도시마
오자와 코이치 (도시마구 국제문화 담당부장)

– 일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특징 159
오시타 요시유키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이사)

目 录

section 1：东亚文化生活 研讨会

Ⅰ 活动介绍

1. 活动概要
2. 活动背景和目的
3. 活动计划

Ⅱ 发表资料

1. 韩国例如
- 韩国文化生活政策
GANG YUN JU (庆熙网络大学 文化创意研究生院 文化艺术经营管理 主任教授)

2. 中国例如
- 中国文化政策的变化与特点
GWONG GI YEONG (仁川大学 文化研究生院教授)

3. 日本例如
- 日本 市民文化活动 例如- 在UTAGOE是以合唱活动
YAMADA HILOKI(日本'UTAGOE' 全国委员会 国际交流专员)

section 2：东亚文化城市 研讨会

Ⅰ 活动介绍

1. 活动概要
2. 活动背景和目的
3. 活动计划

Ⅱ 发表资料

1. 韩国例如
   - 釜山东亚文化城市成就例子
   - 为了东亚市民的幸福

2. 日本例如
   - 通过市民形成文化街道 2019年TOSHIMA 东亚文化城市
   - 在日本东亚文化城市的特征

目次

section 1 : 東アジア生活文化フォーラム

I 行事紹介

1. 行事概要
2. 行事推進背景および目的
3. 行事計画

II 発表資料

1. 韓国事例
- 韓国の生活文化支援政策
カン・ユンジュ(慶熙サイバー大学校文化創造大学院文化芸術経営専攻主任教授)

2. 中国事例
- 中国文化政策の変化と特徴
クォン・キヨン(仁川大学校文化大学院教授)

3. 日本事例
- 日本の市民文化活動事例-うたごえ合唱運動を中心に
山田博樹(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国際交流委員)

section 2 : 東アジア文化都市フォーラム

I 行事紹介

1. 行事概要
2. 行事推進背景および目的
3. 行事計画

II 発表資料

1. 韓国事例
   - 釜山広域市東アジア文化都市の成果事例
   - 東アジアの市民の幸せのために
     CHUNG JEONGSOOK (全州文化財団 代表)

2. 日本事例
   - 豊島区 市民とともに進める文化によるまちづくり
     東アジア文化都市2019豊島
     小澤 弘一 (豊島区国際文化プロジェクト推進担当部長)
   -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文化都市の特徴
     太下義之 (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理事)

section 1

동아시아 생활문화 포럼

section 1 : 동아시아 생활문화 포럼

I 행사소개

1. 행사개요

2019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인천과 중국(시안), 일본(도시마구)가 4월 27일 생활문화 활동사례와 정책을 교류하는 동아시아 생활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행 사 명 : 2019 동아시아 생활문화 심포지엄
- 일　　시 : 2019. 4. 27. 토. 14:00~17:00
- 장　　소 : 인천광역시 하버파크 호텔 2F 그랜드 볼룸홀
- 목　　적 : 동아시아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향후 교류 및 발전 방안 모색
- 주　　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주식회사 문화바람(예비사회적기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유'

2. 추진배경 및 목적

배경

○ 최근 한국 문화정책은 일상 속 시민 문화활동 증진 강조
〈문화기본법〉 : 문화권을 국민 기본 권리로 보장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 생활문화 증진을 통한 지역문화발전 추구
인천시는 국내 생활문화 발전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
민간 생활문화공간 발굴과 공동체 활동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지원

2019년 9월 지속할 수 있는 동아시아생활문화축제 추진

○ 일본의 경우 〈국민문화제〉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국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옴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쇠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 창생' 전략을 추진 중

○ 중국의 경우 인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투자 활발.

2021년까지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

*** 소강사회 : 중국 인민의 80%가 유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영역 지원 확대 추세

목적

○ 한·중·일 3국의 주요 지역 문화정책 동향 및 시민들의 생활문화 현황 공유

○ 한·일·중 3국의 민간 중심 시민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호혜적 이해와 유대, 연대 계기 마련

○ 향후 지속할 수 있는 한중일 생활문화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

동아시아 민간 생활문화 교류 중심지로서의 인천시 도약
미래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인천광역시의 위상 제고

3.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심포지엄 (3시간 10분)	10:00 ~ 13:00 (180')	준비	사전준비, 참가자 등록
	13:50 ~ 14:00	시작안내	영상으로 보는 생활문화활동
	14:00 ~ 14:15 (15')	개회	– 개회 및 심포지엄 진행 소개 – 한·중·일 정부의 축하 메시지 전달 리 펑 / 李 鵬 / 시안시 문화관광국 부처장(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추진) 이케다 다케시 / 池田 高志 도시마구 문화시책담당계장(동아시아 문화도시 제휴추진)
	14:15 ~ 14:30 (15')	포럼 안내	좌장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대표 임승관
	14:30 ~ 15:00 (30')	발제	■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주임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5:00 ~ 15:30 (30')		■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 권기영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15:30 ~ 16:00 (30')		■ **일본의 시민문화활동 사례(우타고에 합창운동을 중심으로)** 야마다 히로끼 (일본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국제교류위원/ 일본 우타고에 운동 일어서라!합창단 사무처장)
	16:00 ~ 16:20 (20')	토론	**한·중·일 생활문화 현황 비교와 향후 과제** 진행 : 유상진(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16:20 ~ 16:50 (30')		종합 토론
	16:50 ~ 17:00 (10')	폐회	기념촬영 및 폐회선언
17:00 ~ 17:20		– 휴식 및 이동 준비	
교류및 만찬 (3시간)	17:20 ~ 17:30 (10')	탐방	탐방 장소 이동 인천 아트플랫폼
	17:30 ~ 18:20 (50')		생활문화센터 및 인천 아트플랫폼 일대 탐방
	18:20 ~ 20:20 (120')	교류 및 만찬	– 장소 : 교류회 장소 – 내용 : 심포지엄 참가자 및 국내 주요 생활문화 관계자 교류 간담회
	20:20 ~ 20:40	종료	

section 1：东亚文化生活 研讨会

I 活动介绍

1. 活动该要

2019年被选为文化城市的仁川,中国(西安)日本(Toshimaru) 将于在4月27日举办东亚文化交流研讨会 ,交流关于文化活动事例和政府政策。

· 活 动 名：2019 东亚文化生活 研讨会
· 时　　间：2019.4.27 星期六 14:00~17:00
· 地　　点：仁川广域市 HARBORPARK酒店 2F 宴会厅
· 目　　的：探索与发展东亚文化生活和未来计划
· 主　　办：仁川广域市,文化体育旅游部
· 主办单位：文化风株式会社 (社会企业), 韩国国际文化交流机构, 社会合作社'文化共享'

2. 背景和目的

背景

○ 最近,韩国文化政策强调在日常生活中推广国民文化活动
<文化基本法>：保障国民基本文化权利
<地区文化振兴法>：通过文化生活促进地区文化发展
仁川市在国内文化生活发展中起主导和模范作用
支持发掘民间文化生活空间, 支持社区活动和网络建设
为了在2019年9月看展的"东亚生活文化节"而促进推动

○ 日本在过去的几十年通过国家文化节
一直在努力推广民众文化和发展地区文化
为了克服老龄化,人口减少和地区发展衰退的问题 在多方面促进发展地区文化

○ 在中国,国家及地方政府为了提高人民生活质量投入不断提高
直到2021年 建立小康社会,成为一项重大的国家任务

*** 小康社会表示中国 80%人民能够生活得好的社会**
'一带一路'文化交流政策 有利于提高人民生活水平 扩大与支持对文化领域趋势

目的

○ 通过韩国,中国和日本 三个国家分享文化政策趋势和市民文化的生活
○ 通过韩国,日本和中国之间的民间文化交流,建立相互理解,友好团结关系
○ 计划建立一个可持续发展的韩 中 日文化与合作的网络平台

⬇

仁川市发展成为东亚民间文化交流中心
仁川市政府将在仁川广域市推广和发展东亚
文化交流基地(包括和平的朝鲜)

3. 活动计划

时 刻		内 容	
研讨会 (三个小时十分钟)	10:00 - 13:00 (180′)	准备工作	准备 参加者注册
	13:50 - 14:00	开始介绍	通过视频了解文化生活活动
	14:00 - 14:15 (15′)	开幕式	- 开幕式和研讨会进展介绍 - 韩,中,日 政府传递祝词 李 鹏 / 西安市 文化旅游局处长(负责初进东亚文化交流产业) 池田高志 Ddsimi区文化政策系长(负责促进东亚文化城市合作)
	14:15 - 14:30 (15′)	研讨会介绍	**主席:仁川市民文化艺术中心 代表理事 Im Seung Gwan**
	14:30 - 15:00 (30′)	发表	**■ 韩国的生活文化支持政策** GANG YUN JU (庆熙网络大学 文化创意研究生院 文化艺术管理 主任教授)
	15:00 - 15:30 (30′)		**■ 中国文化政策的变化与特点** GWONG GI YEONG (仁川大学 文化研究生院教授)
	15:30 - 16:00 (30′)		**■ 日本市民文化活动 例如- (在'UTAGOE'是以合唱活动)** YAMADAHILOKI(日本'UTAGOE'全国委员会国际交流专员)
	16:00 - 16:20 (20′)	讨论	**韩,中,日 文化生活现状比较和未来的课题** 主持者 - Yoo Sang Jin (地区文化振兴局 文化事业部 部长)
	16:20 - 16:50 (30′)		全面讨论
	16:50 - 17:00 (10′)	闭幕式	纪念合影和闭幕宣言
17:00 - 17:20		休息与准备移动	
交流 时间 以及 晚餐 (三个小时)	17:20 - 17:30 (10′)	探访	探访场所 仁川 艺术平台
	17:30 - 18:20 (50′)		探访文化生活中心和仁川 艺术平台
	18:20 - 20:20 (120′)	交流与晚餐	- 场所:交流会场所 - 内容: 参加方与国内文化生活相关者流与研讨
	20:20 - 20:40	结束	

section 1 : 東アジア生活文化フォーラム

Ⅰ 行事紹介

1. 行事概要

2019年文化都市に選定された仁川と中国(西安)および日本(豊島区)が4月27日生活文化活動事例と政策について話し合い交流する東アジア生活文化シンポジウムを開催いたします。

・行 事 名 : 2019東アジア生活文化シンポジウム
・日　　時 : 2019.4.27.土. 14:00～17:00
・場　　所 : インチョングァンヨクシ ハーバーパーク ホテル グランド ボールルーム
・目　　的 : 東アジア生活文化発展のための今後の交流および発展方案の摸索
・主　　催 : 仁川広域市、文化体育観光部
・主　　幹 : 株式会社ムンファバラム (予備社会的企業),韓国国際文化交流振興院、
　　社会的協同組合'文化共有'

2. 推進背景および目的

背景

○ 最近の韓国文化政策は日常的な市民文化活動の増進を強化
　<文化基本法> : 文化権を国民基本権利として保障
　<地域文化振興法> : 地域生活文化増進を通じた地域文化発展の追求
　仁川市は国内生活文化発展において先導的役割を模範的に遂行
　民間生活文化空間の発掘と共同体活動支援とネットワーク形成支援
　2019年9月持続的な東アジア生活文化祭りの推進
○ 日本の場合<国民文化祭>等、過去数十年間、日本国民の文化享受権の増進および地域文化発展のための努力を持続高齢化、人口減少、地方衰退などを克服するための文化領域を含む多様な地方蘇生'戦略を推進中
○ 中国の場合、人民人生の質向上のための政府および地方自治体投資活発.

2021年まで「小康社会」建設を主な国政課題に設定

* 小康社会：中国人民の80%が安定し余裕をもって暮らせる社会

'一帯一路'に対応する'政策と共に人民の生活水準を高めるための文化領域支援拡大傾向

目的

○ 韓・中・日3国の主な地域文化政策動向および市民の生活文化現況共有

○ 韓・日・中3国の民間中心市民文化交流を通じた相互互恵的理解ときずな、
連帯のきっかけ作り

○ 今後持続できる韓中日生活文化交流協力ネットワーク構築のための方案作成

**東アジア民間生活文化交流の中心地として仁川市を跳躍させ
将来的には北朝鮮を含む東アジア文化交流拠点都市として
仁川広域市の地位向上を目指す**

3. 行事計画

時間		内容	
シンポジウム（3時間 10分）	10:00 – 13:00（180'）	準備	事前準備および参加者登録
	13:50 – 14:00	開始案内	映像で見る生活文化活動
	14:00 – 14:15（15'）	開会式	**- 開会およびシンポジウムプログラム紹介** - 韓·中·日政府の祝賀メッセージの紹介 李鵬/西安市文化観光国部署長(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推進) 池田高志/豊島区文化施策担当係長(東アジア文化都市提携推進)
	14:15 – 14:30（15'）	フォーラム案内	**座長：仁川市民文化芸術センター 代表イム·スングァン**
	14:30 – 15:00（30'）	提案	**■ 韓国の生活文化支援政策** カン·ユンジュ (慶熙サイバー大学校文化創造大学院文化芸術経営専攻主任教授/韓国文化芸術委員会委員)
	15:00 – 15:30（30'）		**■ 中国文化政策の変化と特徴** クォン·キヨン(仁川大学校文化大学院教授)
	15:30 – 16:00（30'）		**■ 日本の市民文化活動事例(うたごえ合唱運動を中心に)** 山田ひろき (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国際交流委員/日本のうたごえ運動イロソラ!合唱団事務局長)
	16:00 – 16:20（20'）	討論	**韓·中·日の生活文化現況比較及び今後の課題** 進行-ユ·サンジン（財）地域文化振興院文化事業部長)
	16:20 – 16:50（30'）		総合討論
	16:50 – 17:00（10'）	閉会	記念撮影および閉会宣言
17:00 – 17:20		休憩および移動の準備	
交流および晩餐（3時間）	17:20 – 17:30（10'）	探訪	**探訪探訪場所移動** 仁川アートプラットホーム
	17:30 – 18:20（50'）		**生活文化センターおよび** 仁川アートプラットホーム一帯探訪
	18:20 – 20:20（120'）	交流および晩餐	- 場所：交流会場所 - 内容：シンポジウム参加者および国内の主要な生活文化関係者との交流懇談会
	20:20 – 20:40	終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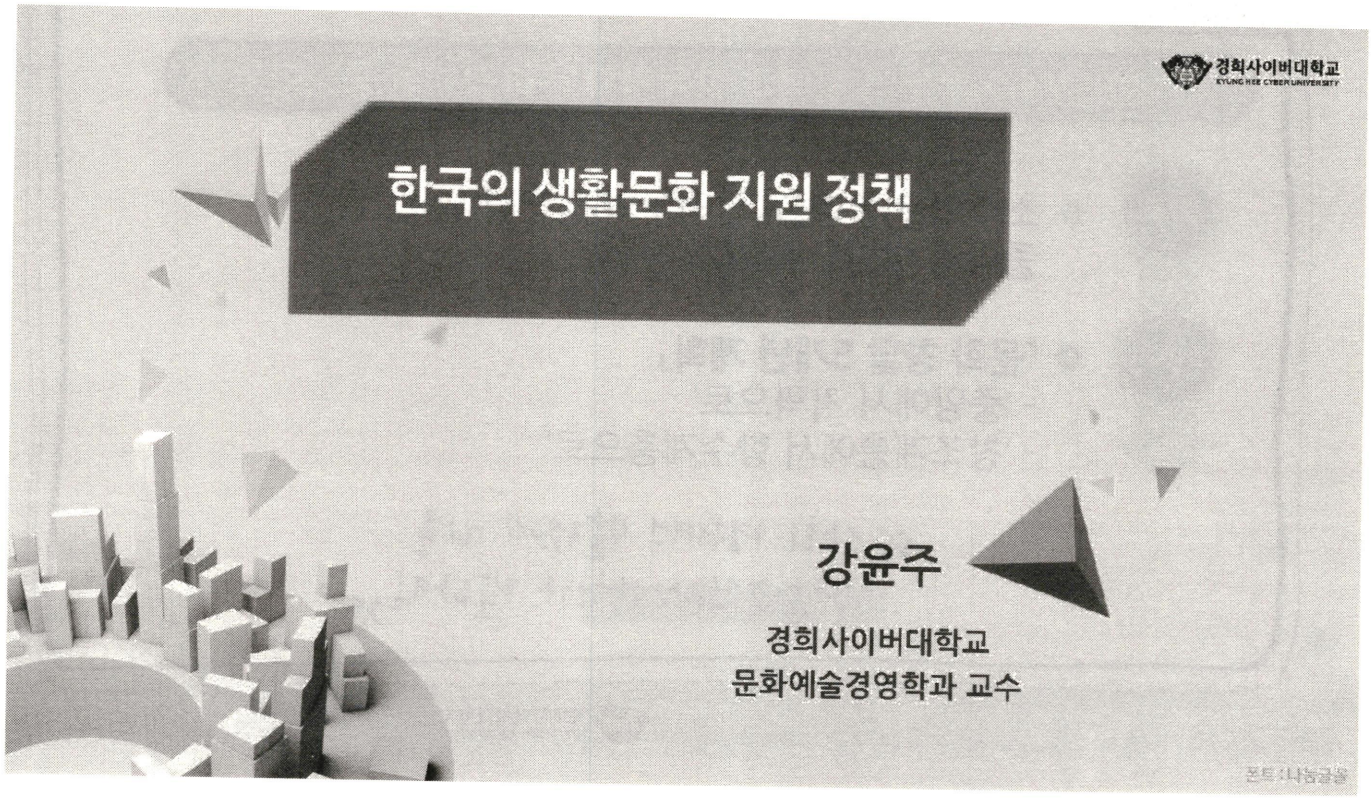
II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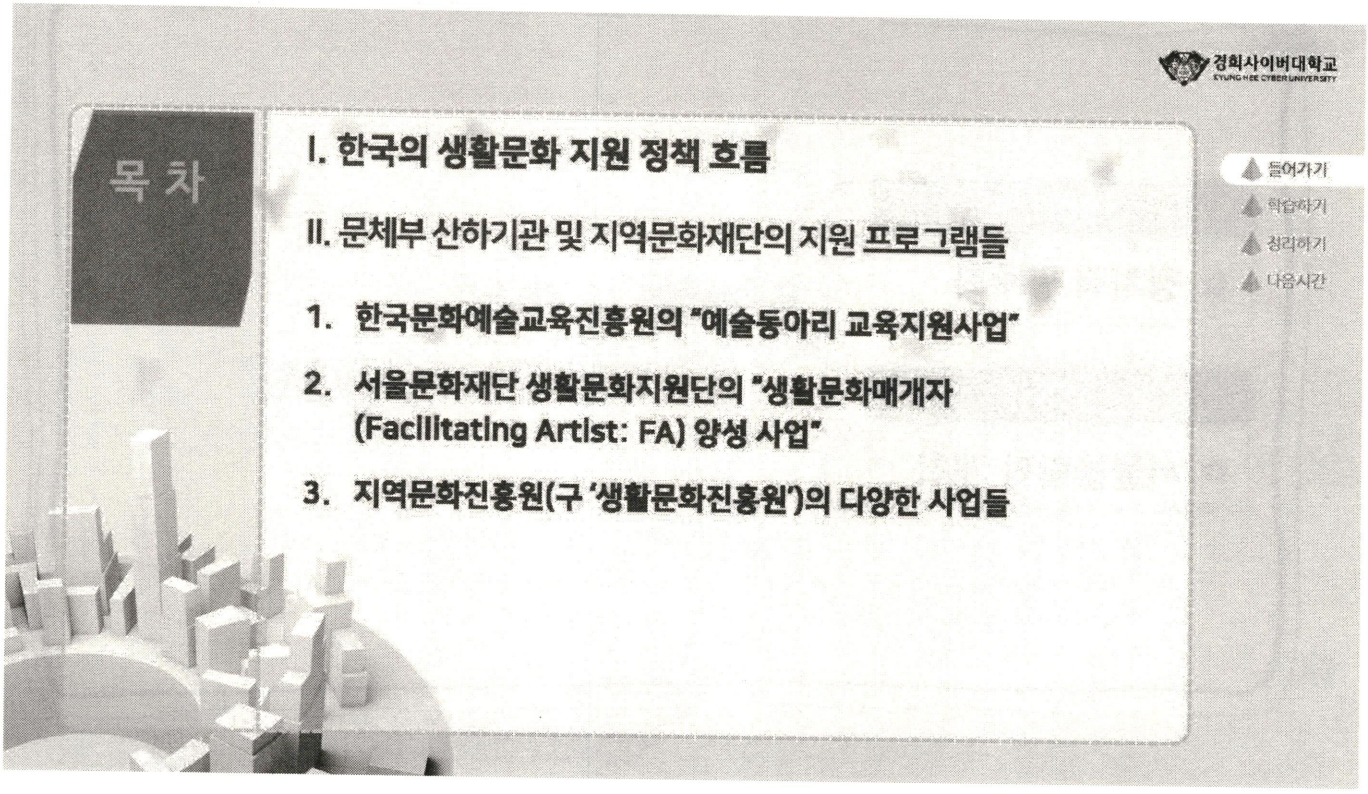
발제 1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강윤주 교수

- 현.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주임 교수
-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목 차
I.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흐름
II. 문체부 산하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프로그램들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생활문화매개자 (Facilitating Artist: FA) 양성 사업"
3. 지역문화진흥원(구 '생활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1 I.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흐름

1990년대 이후부터 지역과 향유자가 문화정책의 중심화두

기존
- 소수의 전문예술가, 정부의 정당성 확보, 중앙의 일방향적 가치 전달

1993
- **「문화 창달 5개년 계획」**
  - '중앙에서 지역으로'
  -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생활양식과 가치가 달라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1987년
- 정치적 민주화

1988년
- 서울올림픽 개최

"중산층"이라는 시민계급의 생활양식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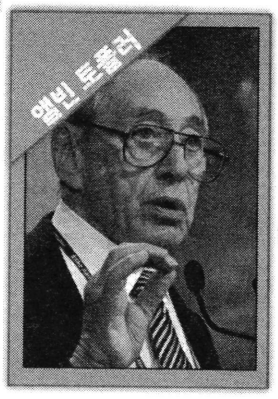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정치적 민주화 → 시민계급의 사회적 자신감 상승 → 경제적 풍요 → 소비사회

정치 사회적 → 유권자 중심 → 경제적 → 소비자 중심

문화정책 → 지역과 향유자 중심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프로슈머(Prosumer)"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창작과 생산-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소비자층

문화예술분야

- 향유자에 대한 관심이 커짐
- 2000년대 「새예술정책」 등 '참여'하는 향유자를 강조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생활 속의 예술

2004년,
『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새예술정책」의 4대 기본 방향

1.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2. 창조성 증진
3. 자생력 신장
4. 열린 예술행정 체계 구축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새예술정책」의 4대 기본 방향

1.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 생활 속의 예술 참여 활성화
   - 예술의 공공성 제고

일반 향수자층, 아마추어, 동호인

But!!
실제로는 소외계층이 주를 이룸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선택과 집중 | 간접지원

2008년 9월

사후지원 |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

시민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 방향 제안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 정책의 세부 실천과제

① 일터와 가정,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②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활동 여건 마련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1 생활예술 정책 개괄

생활예술관련 문화정책의 확대

사업명		추진부처 (담당부서)	지원형태	시작 년도	주요지원내용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2004년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문화원 육성지원사업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4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6년	이주여성과 지역문화, 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기여
	새터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5년	새터민과 지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 제공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운영	문화부 (문화정책국,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5년	노인을 지역문화리더로 육성,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프로그램의 거점센터로 특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부 (문화정책국)	시설확충	2004년	폐교, 마을회관, 유휴공간 리노베이션,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 속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문화부 (문화정책국)	정보제공	2006년	생활권 내 시설·인력·프로그램간 횡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화부 (문화정책국)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8년	전통시장에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9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 지원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부 (문화정책국)	시설확충 및 컨설팅 지원	2006년	지자체의 다양한 생활공간 개선사업의 발굴·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	시설확충	2004년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지향
지역문화 인력양성	지역문화활동가 해외연수	문화부 (문화정책국)	인력양성	2006년	지역문화 기획·창작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문화현장 사례연구 등 교육 기회를 제공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문화부 (문화정책국)	컨설팅 지원	2005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
소외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문화부 (공공미술위원회)	시설확충	2006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공간예술 창조로서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사업명		추진부처 (담당부서)	지원형태	시작 년도	주요지원내용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문화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2004년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문화원 육성지원사업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4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6년	이주여성과 지역문화, 사회와의 관계 형성에 기여
	새터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문화부 (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5년	새터민과 지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 제공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운영	문화부 (문화정책국,지역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2005년	노인을 지역문화리더로 육성, 은퇴자와 노인을 위한 실버문화프로그램의 거점센터로 특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부 (문화정책국)	시설확충	2004년	폐교, 마을회관, 유휴공간 리노베이션,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 속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지역문화 서비스센터 설치 · 운영	문화부 (문화정책국)	정보제공	2006년	생활권 내 시설 · 인력 · 프로그램간 횡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통합 문화서비스를 제공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화부 (문화정책국)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8년	전통시장에 문화적 매력을 가미하여 지역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9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 지원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부 (문화정책국)	시설확충 및 컨설팅 지원	2006년	지자체의 다양한 생활공간 개선사업의 발굴 ·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문화부 (국립중앙도서관)	시설확충	2004년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도서관 지향
지역문화 인력양성	지역문화활동가 해외연수	문화부 (문화정책국)	인력양성	2006년	지역문화 기획 · 창작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문화현장 사례연구 등 교육 기회를 제공
지방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문화부 (문화정책국)	컨설팅 지원	2005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
소외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문화부 (공공미술위원회)	시설확충	2006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활공간예술 창조로서 공원이나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부여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 참여정부에서부터 본격적 제기
- 2002년 10월 문화관광부 예술국
  - 「순수예술진흥 종합계획」

예술창조의 주체

예술에 대한 소비자
창조자에 대한 지원 중점

창조자 (예술인) → 매개자 (기반시설) → 향수자 (국민)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2004년 12월, 「2005년 주요 업무 계획」

- 시민을 지칭하는 '향수자'를 '향유자'로 변경
-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를 설정

"시민에게 더 많은 적극성 부여"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 국민 모두를 위한 중장기 예술향유정책 수립·추진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특수계층 대상 문화교육 기회 확대

범위(연령과 계층 등) 확대

자발적 참여 지원

한계

자발적 ·적극적 문화 '소비'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2005년 12월, 「2006년 3대 정책목표」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 개인·기업·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 창출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한계

시민들의 예술생산

한계

시민 주체 예술향유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2006년 10월, 「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

- '예술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이 제시
- 시민을 '생비자(프로슈머)'라고 언급

1. 지역사회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2.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3. 예술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4.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
5.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1. 지역사회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 생활예술에 근접

- 작은 단위의 생활예술 활동이 부재함으로 인해 삶과 예술의 괴리가 있음
- 예술 생태계 순환구조를 활성화
-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예술 동아리와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보 추진

생활예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역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생활예술 분야 지원의 확대 검토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실용'을 지향하는 정부의 출범

중앙-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역으로 사업 이관

지역 공동추진

"예술지원의 4대 원칙"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예술지원의 4대원칙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2. 사후 지원 체계 마련
3. 간접 지원 사업 확대
4. 생활 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④ 생활 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의 개선방향 중 하나인 '생활 속의 예술'로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결합

- 예술강사 파견
- 공간지원 연계
-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
-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

예술가와 시민들의 공동작업이 단지 교육의 차원으로만 간주됨 — 한계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정책의 변화 → 정부의 예술정책 기조 변화

창조적 실용주의

- 실현가능
- 구체적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예술정책 기조 변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정부 주도형	→	시장 지향형
창작자 중심	→	국민 문화생활 중심
문화의 사회적 가치	→	문화의 정신적 가치 글로벌 가치
중앙정부 중심	→	지방이양 및 상호 협력
시장실패 보전 균형 지원	→	선택과 집중 전략적 지원과 파급효과
일반 관객 확대 정책	→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2009년 6월, 「2010년 예술지원 정책 개선방향」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의 원칙으로서 생활예술 지원정책이 추진

-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 예술 향유기회 확대
-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활동 참여 여건 마련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시기	구분	내용
2005년	정책방향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세부이행과제	- 국민 모두를 위한 중장기 예술향유정책 수립 및 추진 : 관객개발, 관객 지원 시스템 개발, 접근성 장애요인의 극복 지원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 -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특수계층 대상 문화교육 기회 확대
	특징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적극적 문화소비에 머무름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시기	구분	내용
2006년	정책방향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지속
	정책사업명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세부이행과제	-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 - 개인·기업·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 창출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특징	창작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고려 없음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시기	구분	내용
2007년	정책방향	예술 향수권 확대
	정책사업명	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세부이행과제	- 지역사회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 - 예술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 -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
	특징	지역성과 시민성에 대한 강조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시기	구분	내용
2009년	정책방향	생활 속의 예술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 확대
	세부이행과제	-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 : 예술강사 파견 및 공간지원과 연계한 동호회 활동 활성화 -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
	특징	예술가에 우선을 둔 지역성과 시민성 강조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시기	구분	내용
2010년	정책방향	생활 속의 예술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세부이행과제	- 지역재단 중심 지원 - 생활권에서 시민들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 시민들이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 마련
	특징	지역성과 시민성에 대한 강조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 생활문화사업의 이해

국내 생활문화예술 정책의 흐름

「출처 :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 2017.12」

87-93년 생활문화정책 태동기

- 시민사회적 배경 : 중산층의 성장과 87년 민주화
- 문화부의 독립신설 및 위상 격상
- 문화창달 5개년 계획 : 지역과 향수계층 중심 성명서

93-03년 지역문화정책 발흥기

- 지방문예진흥기금 확대 : 지역문화의 재정적 기반 형성
- 경기문화재단 설립 : 최초의 광역지역문화재단
- 부천문화재단 설립 : 최초의 기초지역문화재단
- 중앙정부부처 문화정책의 변화 수용 :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예술을 생산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

03-08년 문화의 권리화

-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발표 :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에서 '창의적인 사회국가' 및 '지역사회 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 원칙 명시
- 문화헌장 제정 및 선포 : 문화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생활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성남문화재단 설립과 "문화예술 창조도시" 사업

08-13년 실용주의 기반 문화복지 확대기

-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 취약계층 문화향유권 확대를 중심으로하는 문화복지 강화 정책
- 시장과 관객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제도 수립, 예술지원정책의 흐름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 지역 기반 통합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생활문화 지원정책

13-현재 생활문화정책 법·제도 확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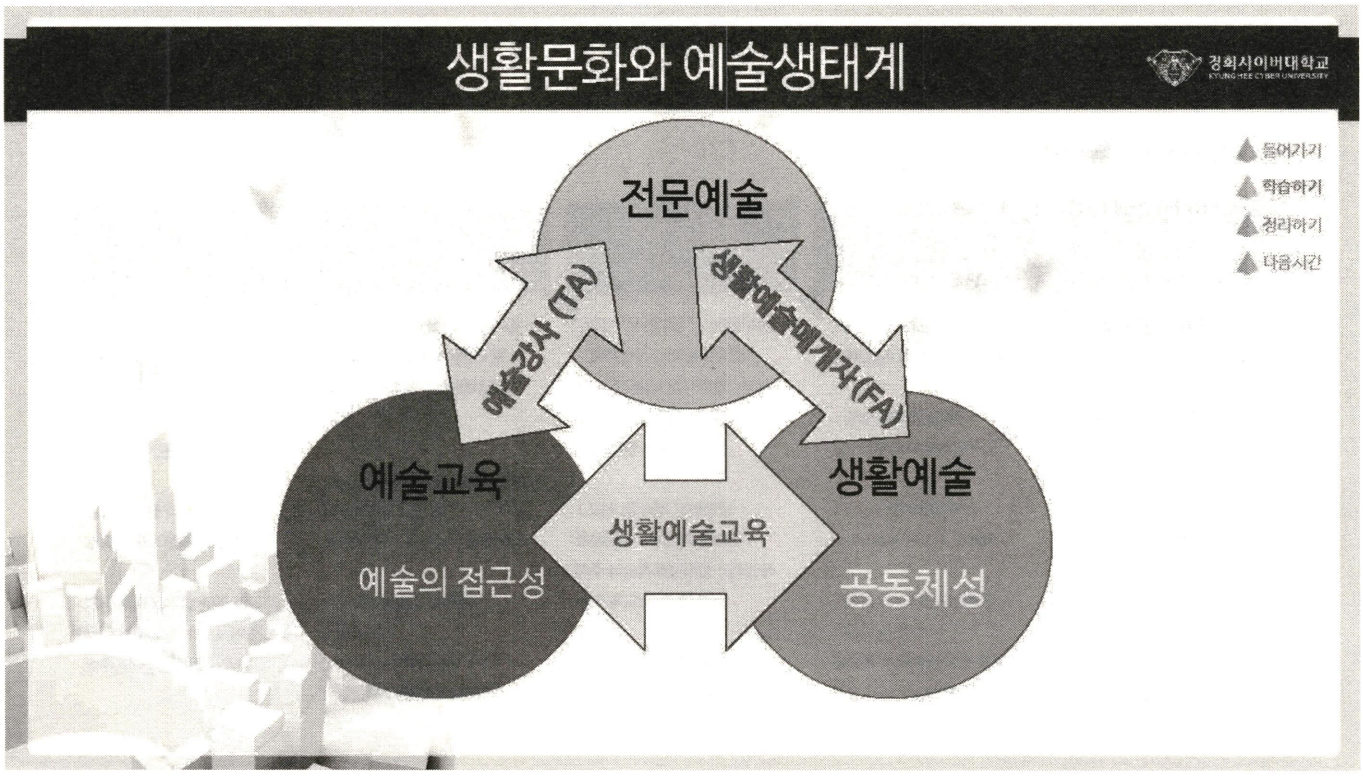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위의 생활문화 조례 제정
- 생활문화센터 설립과 공간 중심의 생활문화 정책 발달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국정과제로 추진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생활문화 관련 조례 조항

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대전	대구광역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	2013.12.31	
경기	경기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1.04	
인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조례	2014.05.26	
경기 부천시	부천시 생활문화진흥조례	2014.10.13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5.05.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06	
전남 해남군	해남군 문내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5.10.08	
전북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12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전북김제시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19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2015.11.04	제3장 생활문화진흥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진흥 조례	2015.11.06	
전북 정읍시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1.13	
광주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2.28	
경기 광명시	광명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2016.01.01	제5조(생활문화 진흥)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충북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4.01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2016.02.19	제7조 (생활문화지원)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4.04	
경북 성주군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04	
충북 괴산군	괴산문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13	
강원 동해시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13	
충남 보령시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6.10	
전북 완주군	완주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6.03.17	제5조(생활문화 지원)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전남 화순군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05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6.07.18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http://www1.elis.go.kr/)



II. 문체부 산하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프로그램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생활문화매개자 (Facilitating Artist: FA) 양성 사업"
3. 지역문화진흥원(구 '생활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1.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1) 사업 소개

가. 추진배경

ㅇ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시민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변화 필요

ㅇ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동아리 교육지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맞춰 사업 추진 필요

ㅇ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 확보

1.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1) 사업 소개

나. 추진방향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동아리의 역량강화로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지원

ㅇ 시민을 단순한 문화소비자(consumer)가 아니라 생산자(producer)를 겸하는 문화예술의 참여형 소비자(prosumer)로 양성하기 위하여 초급부터 고급까지 동아리 수준별 맞춤형 교육지원 추진

ㅇ 지역별 문화자원과 환경에 맞게 특색 있고 다양한 방식의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기획

ㅇ 중앙 차원의 사업컨설팅 지원 및 지역 간 운영현황 공유 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적 개선

1.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1) 사업 소개

다. 교육지원 관련 고려사항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ㅇ 동아리활동의 자발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문가(강사, 코디 등) 지원 외의 비용은 동아리가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지원

ㅇ 지원 프로그램 편성 예시 : 지역별 환경에 따라 조정

- 교육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지역예술인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저명인사 마스터클래스, 동아리와 예술가·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 기획 활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1.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1) 사업 소개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다. 교육지원 관련 고려사항

· (운영방향) ①초급~고급까지 동아리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②예술인·예술강사와 동아리 간의 운영방향 협의를 통한 동아리 교육 수요 반영, ③교육담당 예술인·예술강사와 코디네이터 간 상시 정보공유

- 코디네이터 운영 : 동아리 활동현장을 방문하여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매개자 및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운영

· (운영방향)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또는 종료 이후, 지역사회 문화 자원봉사, 대회·축제 참여 등 대외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1. 2018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 현황 소개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순번	운영 기관	동아리 (개)	강사 (명)	코디네이터 (명)	회원 (명)
1	강릉문화원	87	40	20	450
2	광주문화재단	34	34	5	340
3	대구문화재단	76	74	12	430
4	부산문화재단	80	-	-	400
5	세종시문화재단	50	49	10	250
6	인천문화재단	32	20	8	100
7	충북문화재단	270	240	25	1,900
8	전북문화관광재단	56	50	14	280
총 계		685	507	94	4,150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생활문화매개자 (Facilitating Artist: FA) 양성 사업"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 생활문화사업의 이해

서울시 생활예술 액션플랜2031 전략 및 과제

「출처 :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 2017.12」

4대 전략	1. 시민 참여 극대화	2.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맞춤형-다각화 지원강화	4. 네트워크 미래생태계 조성
15대 과제	**시민기획위원 제도 도입** 선정된 시민대표가 직접 서울 생활예술 사업의 프로그램에서 예산까지 기획 및 실행 참여 **생활예술매개자 역량 강화** 거버넌스와 장르FA를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위 생활예술 동아리에 밀착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생활예술 미디어 콘텐츠 기획** 거버넌스와 장르 FA를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위 생활예술 동아리에 밀착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자립적 생활예술 경제 형성** 거버넌스와 장르 FA를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위 생활예술 동아리에 밀착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생활예술 관련 법,제도 정비** 생활예술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비 혹은 필요시 지원법을 신설 **서울 생활예술 지원협의체 도입** 전국 서울시 자치구 등 각 단위에서 생활예술 지원을 위한 기구들간 서로 중복된 지원 및 불필요한 경쟁을 지원협의기구를 통해 역할 조직 **생활예술 인식개선 캠페인** 생활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부한 인식론을 관련 정도를 통해 제공 - 공직자, 활동가, 시민맞춤형 캠페인	**참여단계별 지원트랙** 생활예술에 대해 서로 다른 참여수준을 보이는 시민들을 위해서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 **자치구별 생활예술 지도 작성** 자치구별로 생활예술 지원이나 동아리활동의 성격이 크게 차이나므로 이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 **장르별 맞춤형 지원체계** 각 예술장르별로 시민들의 생활예술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차이를 인지하여 지원 **공간지원 패러다임 전환**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소수의 종합형 공간 형성을 유심에서 소규모 생활공간 밀착형 공간 다수 지원까지 포함	**종합정보 포털 형성** 서울 내 생활예술활동 및 공연전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형 지원공유체계 확립** 1회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나 공간 또는 재정지원 등의 공유체계 마련 **Arts & Tech 지원기구 설립** 예술과 기술 사이를 연결하는 초연결사회의 미래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예술장르로 나아가게끔 함 **기업,종교 동아리와 네트워킹** 현재 공공거버넌스가 포착하고 있는 것은 지역동아리뿐으므로 기업 및 종교동아리발굴 및 연결시켜야 함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생활문화매개자 (Facilitating Artist: FA) 양성 사업"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 생활문화사업의 이해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의 이해

「출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비전	중점 목표		주요 사업
생활문화 가치 공유 그리고 확산	People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지역모델 -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장르모델 - 생활예술댄스(위댄스)
	Place	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권역 / 장르형 거점 지원 생활권형 거점 지원
	Platform	생활문화 기반 조성 지원	생활문화 캠페인 생활문화주간 ▶ 생활예술매개자(FA)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생활문화매개자 (Facilitating Artist: FA) 양성 사업"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 생활문화매개자(FA)사업의 이해

생활문화매개자 역할 및 운영체계

「출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	↔	생활문화매개자	↔	생활예술동아리
운영체계	매개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생활예술네트워크 활성화 및 생활예술 관심자를 참여자로 견인		생활문화 참여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역할	• 액션러닝을 통한 매개자 활동공유 및 점검 • 운영관리 및 활동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매개자 전문 역량 강화 • 생활문화매개자 활동 인증		• 동아리 발굴 또는 인큐베이팅 • 생활예술동아리 단계별 성장지원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매개 활동 수행 • 동아리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		• 동아리간 네트워크 통해 생활문화 참여 •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 기여 • 생활예술 관심자에서 생활예술 전문가로 발전 기대

2.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의 "생활문화매개자 (Facilitating Artist: FA) 양성 사업"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 생활문화매개자(FA)사업의 이해

2018년 세부 사업별 활동내용

「출처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구분		지역 매개자		장르 매개자		
		생활문화거버넌스25	생활문화지원센터	동아리 네트워크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생활예술댄스(위댄스)
사업 소개		•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유도 • 동아리·자치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및 민간주도 유도	• 서울시 전역에 생활문화지원 센터 조성 • 생활예술 활동(네트워크) 구축 및 동아리 결성 유도	• 다양한 장르의 신규 생활예술 동아리 발굴 • 동아리간 교류의 장 및 역량 강화 기회 마련 • 생활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시스템 형성	• 제5회 서울국제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 개최 • 축제참여 촉진 및 발전 도모	• 생활 속 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시도 • 위댄스_서울춤자랑 세계거리춤축제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축제 및 오프라인 동아리 기반의 경연대회개최
주요 활동		•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생활문화동아리와 자치구 간 매개업무	•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 가능한 공공, 민간 소유의 후보공간 발굴 • 시민동아리들에 공간 정보 제공	• 신규 생활문화동아리 조사, 발굴 소네트워크 구성 • 동아리 활성화, 온오프라인 홍보 업무 수행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발굴 및 인터뷰, 활동현황 조사분석 •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와의 네트워크 및 매개업무	• 자치구별 춤 공동체 활동현황 조사, 분석 • 발굴된 춤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위댄스_서울춤자랑 홍보
수행 과업	인력 매개	• 민관 협력 및 자치구 기반 네트워크 구축, 공간기반 지역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 공간이용 동아리들과 오랜수배간 네트워킹	• 신규장르 및 기존 생활예술 동아리 조사 및 발굴	•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체 실태조사	• 춤 공동체 간 교류 유도
	공간 매개	• 생활문화 공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 신규 후보공간 발굴 및 선순환적 시스템과 촉진	• 동아리 모임장소, 발굴 및 연계, DB 구축	• 오케스트라 활동공간 및 연습실 조사, 활용방안 연구	• 자치구 내 춤 장르 역할 공간지원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홍보 지원	• 자치구 축제/프로그램 홍보활동, 지역언론사 발굴 생활문화활동 홍보	• 생활문화지원센터 홍보	• 생활문화매개인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기반 매개 역할	• 축제 참여 오케스트라간 연결 및 홍보, 국제교류를 위한 현장업무 지원	• 네트워킹 파티 기획 및 위댄스 홍보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 지역문화 인력지원 사업
- 문화이모작 사업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일상의 생활문화 활동 확산과 문화적 격차 해소를 통해 행복한 문화공동체 삶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정된 지역(마을)에는 공동체 형성지원(최대 3년), 현장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생활문화탐색형 지원
일반지원	지역협력네트워크 지원	
생활문화 활동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지원	공동체 확산 및 이웃 마을과 지역 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공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동호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일상적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를 지원하여,
참여자 스스로가 자발적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발표 및 교류, 확장의 단계별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전국적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원내용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형성 단계	발표·교류 단계		확장 단계	정책연구	
생활문화 소모임 발굴 & 형성 지원	읍면동 단위 동호회 발표 및 교류 지원	시군구 단위 동호회 발표 및 교류 지원	지역 사회 연계 생활문화 활동 지원	생활문화 주제 연구 지원	생활문화인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축제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 2천여 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흥이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사업 운영과
문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

기획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
지역의 문화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만드는 지역의 특별한
콘텐츠 프로그램



청춘마이크
*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예술가들이 전국을 무대로 펼치는
버스킹 공연 프로그램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원하는 문화 활동을 직접 펼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공간이며 개인 혹은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 및 학습공간,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발표 공간, 이용자의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일상이 곧 문화'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지역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	효과적 공간 조성 및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센터 공간 이용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생활문화센터 대상 공모사업)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생활문화센터 운영자를 위한 역량교육 및 운영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한 권역 간 네트워킹 지원
공간 아카이빙 및 조사연구	생활문화센터 현황 파악,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다양한 연구 추진 및 개관센터 정보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 제작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다음시간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지역문화인력 지원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 관련 전공자 등 문화인력이
지역문화시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며 문화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문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문화인력은 지역문화시설에서 지역문화 자원조사, 지역문화 자원 개발, 주민 주도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주민공간 운영 등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시설은 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인력 및 문화시설에게는 인건비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교육지원, 문화인력 주도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 지역 간 인적자원 고류를 위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문화인력	지역문화시설
인력-시설 매칭 인건비 지원 (월 200만원, 최대 2년간)	안정적 활동여건 마련	안정적 고용여건 마련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 운영비 지원	인력 주도 프로그램 기획, 실행	시설 활성화 도모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획역량 강화	시설운영역량 강화

3. 지역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사업들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문화이모작 사업

문화이모작 사업은
마을 주민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에 필요한
문화활동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문화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농산어촌, 도농지역의 마을 단위 예비문화리더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 마을의 문화자원을 통해 그 마을만의 고유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참여한 교육생에게는 예비문화리더 교육 및 현장실습 등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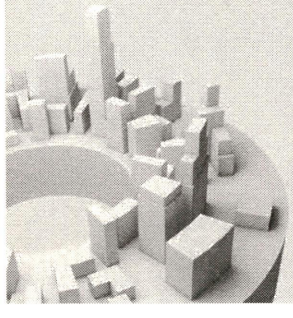
- 들어가기
- 학습하기
- 정리하기
- 다음시간

지원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 실습비 지원,
지역 간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합니다.

STEP 1 예비문화리더 교육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STEP 2 현장실습 및 컨설팅
교육과정을 통해 기획한 사업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 보는 현장실습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STEP 3 네트워크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교육생과 참여 주민들 간 네트워크 모임 및 현장실습 내용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운영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이상으로

"한국의 생활문화 지원 정책"

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I 발표자료

발제 2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

권기영 교수 • 현.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

인천대학교 권 기 영

중국 국가 발전 전략의 변화

1949년 ~ 1978년	1978년 ~ 2009년	2009년 ~ 현재
정치 우위	경제 우위	문화 우위
마오쩌둥 시기 사회주의 정치체제 구축	덩샤오핑, 장쩌민 시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 사회주의 문화강국

중국 문화정책 이념의 변화

마오쩌둥 시대
- 정치 · 경제 · 문화의 삼위일체
- 민족적 · 과학적 · 대중적 문화 건설

개혁개방 이후
- 二为 방향의 조정
-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1990년대
- 문화는 종합 국력의 중요한 표지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건설

2000년대
- 문화체제개혁 심화
- 문화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 화해문화 건설

문화사업 정책 → 문화사업 + 문화산업 정책

- 1940년 〈신민주주의론〉
- 문화대혁명 (1966~1976)
- 1989년, 문화부에 문화시장관리국 설치
- 1998년, 문화부에 문화산업사 설치
- 2000년, 문화산업 개념과 문화산업정책 등장 (중공15기5중전회)

마오쩌둥 시대 (1949~1976)

※ 이 모든 투쟁의 목적은 중화민족의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국가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경제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있어야 한다. - 마오쩌둥 〈신민주주의론〉(1940)

민족적 문화

-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주장하는 것
- 혁명적 민족문화
- 전반서화 비판
- 민족형식 → 중국문화는 자신의 형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 문화

- 봉건사상과 미신을 반대하고 실사구시 주장
- 중국 고대문화 계승

고대문화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그 봉건적인 찌꺼기를 털어내고 그 민주적인 진수를 흡수하는 것은 민족 신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필요조건이다.

대중적 문화

- 대중적 → 민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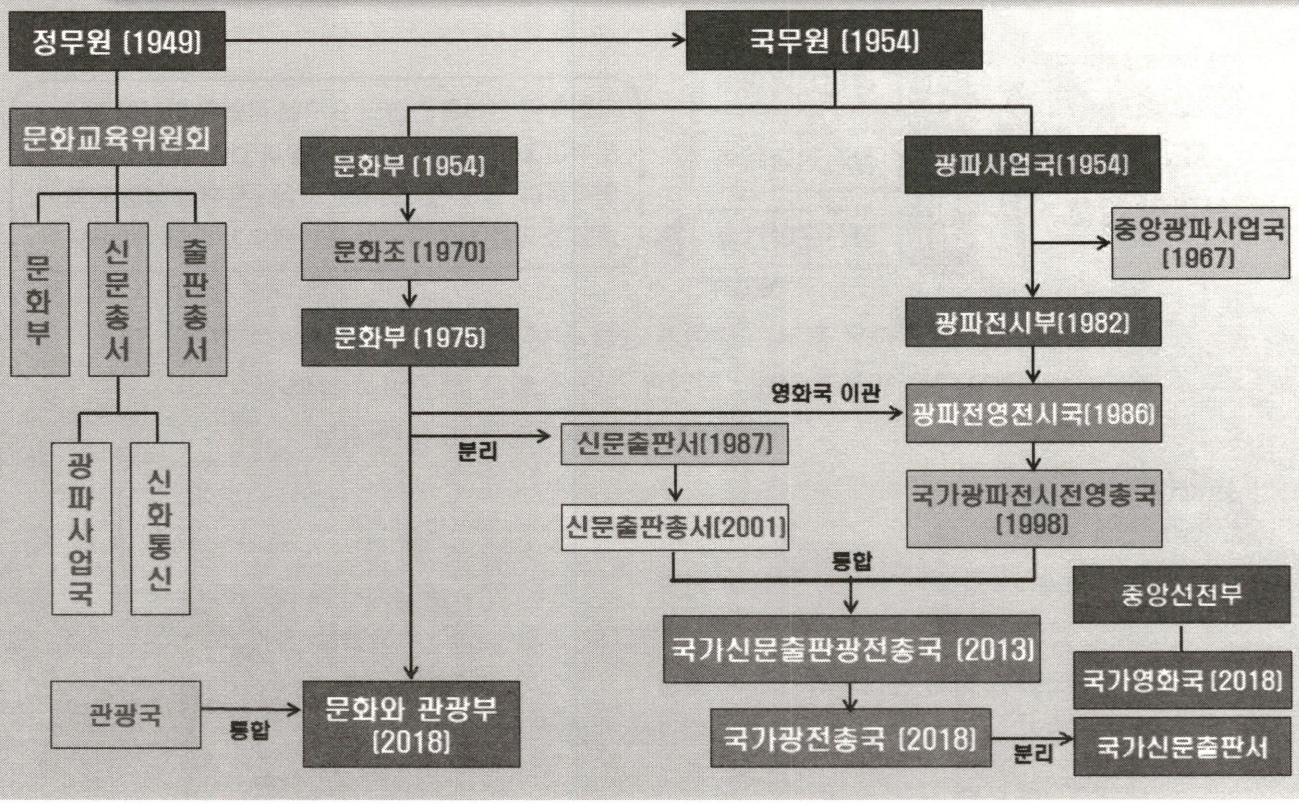
전민족 가운데 90% 이상인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을 위해 복무해야만 하며 점차로 그들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 향상과 보급

상호간 차별성을 두는 동시에 상호 연관시켜야 한다

- 문화운동과 실천운동 → 대중적

중국 문화 관련 정부조직 변천사



마오쩌둥 시대 (1949~1976)

문화대혁명 = 인민 영혼의 대혁명

당면문제 ▶ 자산계급은 이미 타도되었으나, 4구(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를 이용하여 군중을 오염시키고, 민심을 정복하여 복벽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무산계급의 신사상, 신문화, 신풍속, 신습관을 이용하여 전체 사회의 정신면모를 변화시켜야 함



1966年8月18日，林彪在“庆祝文化革命大会”上发表讲话，号召红卫兵“大破一切剥削阶级的旧思想、旧文化、旧风俗、旧习惯”，即所谓“破四旧”

덩샤오핑 시대 (1978~1992)

국정목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핵심정책과제
- 경제체제개혁
- 정치체제개혁
- 정신문명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적합한 이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공민을 양성하며, 전체 중화민족의 사상 · 도덕 소양과 과학 · 문화 소양을 제고하는데 근본 임무가 있다. (1986)

- 중국 정부는 문화를 경제 건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
- 문화의 역할 : 정권의 정통성 확립 및 사회적 통합,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동원 기능

새로운 변화

- 문화 영역에서 자발적인 상업 활동이 시작
- 1988년 문화부와 공상행정관리국은 공식적으로 문화시장의 합법성을 승인
- 1989년 문화부 내에 문화시장관리국 설치
- 1991년 중국 정부는 문화경제정책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

장쩌민 시대 (1993~2002)

국정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문화정책 (1993)
문화체제개혁 심화
문화경제정책 개선
문화시장관리 강화

중공 15차 전국대표대회(1997)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강령으로 경제 · 정치 · 문화를 나란히 거론하고 이 세 영역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

문화발전관의 변화

문화를 종합국력의 지표로 인식
- 종합국력이란 한 국가의 능력 발휘에 필요한 제반 수단이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문화안보론
- 문화위기 의식 : 전지구화에 따른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위기 의식
- 문화정체성 형성 주체 문제

장쩌민 시대 (1993~2002)

문화체제개혁이란?

1978년 이후 덩샤오핑 체제가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일환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국가 발전 목표의 실현에 장애 요소로 부각된 구 시대의 체제, 즉 마오쩌둥 시대에 확립된 문화체제를 개혁하려는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

- 경제체제개혁이나 정치체제개혁이 개혁개방 초기부터 핵심적 정책 과제로 강력히 요구되고, 개혁을 위한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 문화체제개혁은 2002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됨

중국의 문화체제개혁이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정부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국가 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지위와 역할 문제

- 중국 정부의 문화관에는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으며, 그것은 문화체제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역대 정권의 국가발전 전략과 문화체제개혁의 관계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역대 정권은 어떤 국가 발전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는 문화체제개혁과 어떤 관계가 있나?

문화발전과 문화체제개혁의 관계

- 문화발전을 위한 개혁의 대상, 개혁방향, 개혁방법, 개혁수단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문화발전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함

장쩌민 시대 (1993~2002)

기존 문화체제의 문제점

- 기존의 문화체제가 ①국민들의 문화수요, ②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③대외개방의 새로운 추세, ④하이테크 기술의 발전과 운용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함
- 특히 문화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 문화단위가 시장에서의 활력과 경쟁력을 결핍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체제는 문화의 생산력과 창조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됨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정책적 분리

구 분	문화사업	문화산업
발전 주도	정부	시장
발전 주체	문화단위	문화기업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책 중점	공익성, 기본성, 균등성, 편리성	문화자원 배치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
운영 자금	국가 재정 투입	국가와 민간 자본 투자
경영 원칙	국가 관리	자주경영, 자아관리
개혁 방향	문화사업단위 내부 개혁	단위제를 기업으로 전환

장쩌민 시대 (1993~2002)

구 분	문화사업	문화산업	문화제도
개혁대상	문화사업단위 개혁	문화기업 개혁	정부기능 전환
개혁방향	① 단위에 대한 국가 지원 ② 국가 재정투입 증대 ③ 국가 지원방식의 개선 ④ 단위의 내부 개혁 (인사, 분배, 사회 보장 등) ⑤ 우수 전통문화 계승 ⑥ 도농 문화 일체화 ⑦ 현대 전송시스템 발전	① 문화단위의 기업제 전환 ② 문화시장주체 건설 ③ 수출형 문화기업 육성 ④ 문화산업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수준 제고 ⑤ 문화 영역 소유제 조정 ⑥ 문화과학기술 혁신 ⑦ 문화소비 확대	① 현대 문화시장 시스템 (문화 시장, 유통, 감독) ② 문화관리체제 혁신 ③ 문화 법률 · 법규 개선 ④ 정책보장제도 개선 ⑤ 중국문화 해외진출 시스템 ⑥ 우수 해외문화 흡수 시스템 ⑦ 문화인재 육성

후진타오 시대 (2003~2012)

21세기 중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와 문화산업의 전략적 가치

성장방식의 전환

- 중진국의 함정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조정이 가능한가?
- 투자 확대에서 내수 확대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 중국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 성장방식 전환 → 포용적 성장
- 내수확대 정책 추진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 연평균 성장 23%
- 문화와 과학기술의 결합

지역균형발전

-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에 입각한 발전전략 추진
-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 · 약한 집단 · 약한 영역에 대한 착취
-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

- 서부대개발 · 동북3성개발 등 지역발전전략 추진
- 도시화 전략

- 지역발전과 문화산업 관계
- 지역별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

소프트파워 강화

- WTO 가입과 문화안보 문제
- G2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은 국가 이미지
- 소프트파워를 통한 종합국력의 강화 필요성 증대

- 2004년 문화안보를 국가 4대 안보전략으로 격상
- 공자학원 구축 및 운영

- 중국문화 해외진출 전략 수립
-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후진타오 시대 (2003~2012)

문화안보

※ 중공16기4중전회(2004)

문화안보를 정치안보, 경제안보, 정보안보와 함께 국가 4대 안보전략으로 확정

- **중국 문화안보 정책의 배경**
  - (1) 서구 자본주의 국가는 인권을 무기로 중국의 정치문화와 주류 가치 체계에 간섭하기 시작 → 중국의 문화주권 안전을 위협
  - (2) 전지구화 생산의 문화동질화 추세 : 국가 문화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 (3) 중국 WTO 가입 이후, 문화산업 안전은 선진국가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
  - (4) 인터넷의 영향 → 정보문화안전 문제 발생. 특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터넷기술 및 표준과 정보전파의 장악은 새로운 패권, 즉 정보패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5) 세계 뉴스전송 영역에서 서구미디어의 패권은 여전히 존재함.
    → 이는 중국 문화전파와 국가 이미지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침

후진타오 시대 (2003~2012)

소프트파워 : 중국의 국가 이미지

1. 2009년 봉황망(鳳凰網)의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이미지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며, 중국의 국제 이미지가 민감하고 취약하며 쉽게 개별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중이 전체 63.7%
2. 2009년 2월 영국 BBC가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9%의 응답자들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반면(전년 대비 6% 하강) 40%의 응답자들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전년 대비 7% 증가)
3. 2008년 51개 국가 405명의 지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이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중국 이미지의 요소로 문화(77.8%)가 1위를 차지
4. 2000~2003년 간 「뉴욕 타임스」의 중국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정치, 인권, 외교, 사회 법률, 환경, 의료 위생, 재난 등의 보도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된 반면, 경제, 문화와 과학 기술 보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보도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타오 시대 (2003~2012)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2011.10.15~18)



- 중국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단일한 의제(문화)로 진행된 중앙위원회 회의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장춘이 준비팀장을 맡아 6개월간 조사와 연구를 진행
- 준비기간 중 후진타오 주석이 3차례 직접 준비회의 주재 및 점검

21세기 새로운 국가 비전 : 사회주의 문화강국

핵심추진전략 :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

시진핑 시대 (2013~현재) : 일대일로 문화정책

-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문화정책이 왜 중요한가?
  - 2013년 :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 제안
  - 2015년 : <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 발표

긍정적 여론 / 부정적 여론

民心相通

- 오통 가운데 '민심상통' 부문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짐
  - 中國國家信息中心' 一帶一路 '大數据中心



- 문화정책은 민심상통을 위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중국 대외문화정책의 문제점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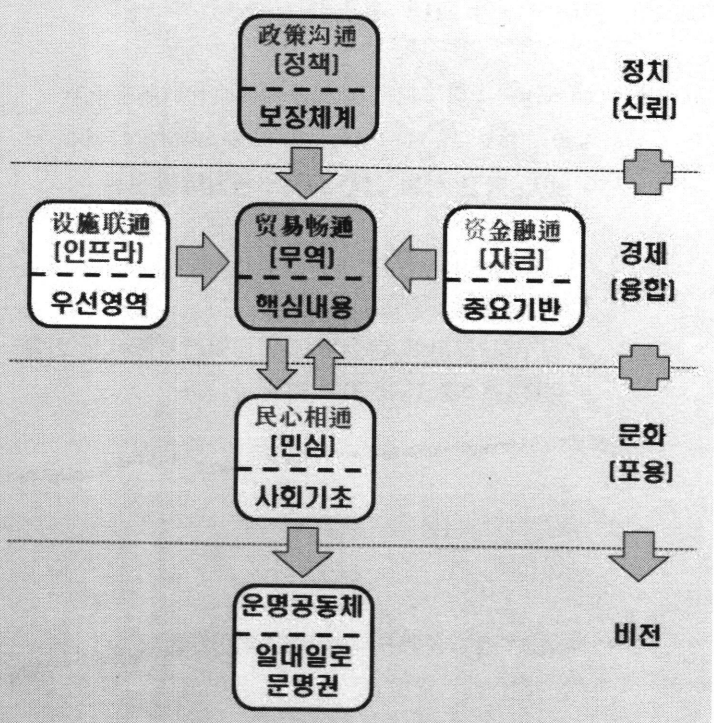
중점협력분야 (五通)

- 政策沟通
- 貿易暢通
- 设施联通
- 资金融通
- 民心相通

시진핑 시대 (2013~현재) : 일대일로 문화정책

일대일로 구상에서 문화의 의미와 위상

- 비전 :
  정치신뢰 · 경제융합 · 문화포용의
  이익공동체 · 운명공동체 · 책임공동체
  건설



시진핑 시대 (2013~현재) : 일대일로 문화정책

(1) 메커니즘 구축

- 정부간 협의기구, 포럼 등 활용
  - 중-러 인문합작위원회,
  - 중-몽골 인문교류공동위원회
  - 중-아랍 문화부장 포럼
  -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문화부장 회담
  - 중국-중동 · 유럽 문화합작부장포럼
  - 对外文化工作部际联席会议 (국내)
  - 2013~2018 문화,관광 관련 협약 문서 76개
- 국제적 연맹 설립
  - 실크로드 국제극원연맹
  - 실크로드 국제박물관연맹
  - 실크로드 국제예술제연맹
  - 실크로드 국제도서관연맹
  - 국제미술관연맹
  - 실크로드 국제예술아카데미연맹 (준비)

(2) 플랫폼 건설

- 중국문화센터(China Cultural Center)
  - 2016년말 현재 30개 → 50개 이상 계획
  - 일대일로 국가에 16개 센터 구축
  - 2013년 이후 일대일로 국가에서 1600회 이상의 문화활동 전개
-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
  - 실크로드 국제예술제 (시안)
  -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 (촨저우)
  - 중국신강국제민족무용제
  - 사먼국제해양주간
  - 중국해양문화제
- 丝绸之路(敦煌)国际文化博览会
  - 중국 유일 일대일로 국가급 박람회 행사
  - 2016년 1회 대회에 85개 국가, 5개 국제기구, 19개 도시의 95개 대표단 참석
  - 이 외에 중국-유라시아 박람회, 중국-아랍국가 박람회, 중국-아세안 박람회 등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3) 브랜드 형성

- 실크로드 문화여정
  丝绸之路文化之旅,
  Silk Road Cultural Journey
  - 중국알기(意会中国; Thought of China) 수집 · 창작 활동
- 실크로드 문화사절
  丝绸之路文化使者,
  Silk Road Cultural envoy
  - 청년 한학자, 번역가 등 800명 초청 연수
  - 일대일로 중국문화 번역 인재 발전 계획
- 일대일로 예술창작 지원계획
- 일대일로 문화유산장랑 건설 계획
  一带一路文化遗产长廊
  - 실크로드 : 장안-천산회랑 루트 네트워크
    丝绸之路 : 长安—天山廊道的路网
- 환러춘제 (欢乐春节)
  Happy chinese new year
  - 2017년 140개 국가 500여 개 도시에서 총 2000여 개의 문화 활동 전개

시진핑 시대 (2013~현재) : 일대일로 문화정책

문화무역의 확대

- 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國家對外文化貿易基地,) National Base for International Cultural Trade
  - **현재 북경, 상해, 심천 자유무역지대에 구축**
- 국가문화수출기지 (國家文化出口基地) National Cultural Export Base
  - **상무부, 선전부, 문화부, 국가광파전시총국 등 선정**
  - **2018년 6월 13개 기지 발표**
- 중앙선전부 〈대외문화무역 실무지침〉 편찬
- 수도대외문화무역연구기지 (首都对外文化贸易研究基地): 일대일로 주요 국가의 문화시장 연구 총서 발간 추진
- 중국문화부 〈동만게임산업 일대일로 국제합작 행동계획〉, 〈2018년 일대일로 문화무역 중점프로젝트 목록〉 발표

2015년 일대일로 국가에 수출액

136억 달러

(전체 수출의 8.1%)

2015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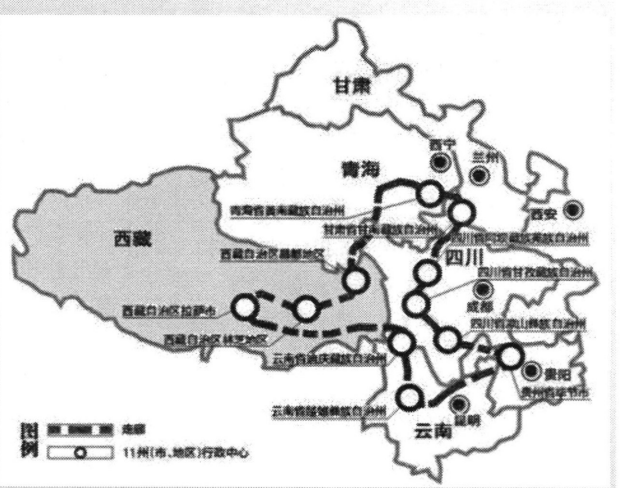
10.52억 달러

(전체 수입의 7.12%)

시진핑 시대 (2013~현재) : 일대일로 문화정책

실크로드 문화산업벨트 건설

- 목적
  - **문화교류의 촉진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의 경제발전을 추동**
  - **문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소비 욕구를 만족**
  - **문화적 공감을 통해 민심기초를 충실히 함**
  - **더욱 확대된 국제적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
  - **섬서(陕西), 영하(宁夏), 감숙(甘肃), 청해(青海), 신강(新疆) 등 중국 서부지역의 문화적 이점을 경제적 이점으로 전환**
- 장강이 문화산업회랑 (藏羌彝文化产业走廊) Tibetan, Qiang and Yi culture industry corridor
  - **〈장강이문화산업회랑 총체계획〉 (2014년)**
  -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등 7개 성이 교차하는 11개 도시와 지역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760만 명의 소수민족 거주**
  - **이 지역을 문화 · 생태 · 관광이 융합된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건설하고, 지역의 민족문화자원을 산업 및 시장과 결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를 수립**



시진핑 시대 (2013~현재) : 일대일로 문화정책

21세기 중국 대외문화정책 기조 → **일대일로 문화정책 기조**

① 문화안보 ➡ 강력한 규제정책

- 위기의식 :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침략
- 중국 국내 문화시장 잠식 우려
- 문화주권, 문화선택권, 문화다양성 강조
- WTO, FTA에서 문화 제외

- 일대일로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 중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취했던 규제정책을 일대일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

② 소프트파워 ➡ 중국문화 走出去

- 문화를 종합국력의 핵심 지표로 인식
- 세계에서 중국문화의 영향력 증대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 강화 및 이미지 개선

- 중국은 문화산품 주요 수출국
- 2015년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수출은 136억 달러, 수입은 10.5억 달러
- 중국 수출품의 81%가 설계 분야

③ 정부주도 ➡ 文化自信

- 문화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주도권 강조
-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대한 신념 강조

- 몽골이 달라이라마 초청 (2016년)
  → 중-몽-러 경제회랑 전면 취소 결정
- 한국 사드배치 → 한한령 발동

II 발표자료

발제 3

일본의 시민문화활동 사례
(우타고에 합창운동을 중심으로)

야마다히로끼

- 일본 우타고에 전국협의회 국제교류위원
- 일본 우타고에 운동 일어서라!합창단 사무처장

일본의 시민문화활동 사례

(우타고에 합창운동을 중심으로)

야마다히로끼

1. 들어가며

오늘, 우리들의 생활은, 다종다양한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생활 기반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문화라고 해도, 그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음악을 통하여 시민이 모이는 자발적인 문화활동인 「일본의 우타고에운동」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본의 음악 서클활동을 해온 경험을, 이 심포지엄에서 보고하겠습니다.

2. 일본에 있어서의 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활동의 실태

오늘날 일본에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어떤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을까요? 문화활동이라고 해도 문화자체를 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상업주의적 문화활동은, 제가 보고하는 범주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거나, 미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업주의적 문화를 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상업주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구분 짓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요구인 문화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형태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주거지역에 있는 공공회관이나 커뮤니티센터 등 행정기관이 활동장소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주적으로 운영을 맡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코러스이거나, 시나 단가의 써클이거나, 사진이나 낭독, 간단한 체육 운동 등, 활동 테마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서 희망자를 모으는 형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평일 낮시간에 모일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문화를 통한 교류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 있는 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등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동호회적인 운영이 행하여지고 있는 서클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에 멈추지않고, 최근에는 SNS등을 통하여 정보교환을 하는 등 주거지역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고, 학교의 서클활동에서부터 발전 계승되어 독자적인 운영에 이행되고 있는 등, 그 운영의 계기는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발적인 운영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써클이 있거니와, 활동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아마추어 단체나 프로 단체의 공연을 공동주최나 협연의 형태로, 일정한 재정지원이나 홀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운영에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조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고,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발적인 아마추어 단체가 연습 등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공연을 하는 회장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예전에는 무료였던 것이 지금은 대부분 유료화되어, 공연회장으로서 빌리는 공공홀이라고 할지라도 이용요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운영이나 공연을 할 경우, 필연적으로 일정한 입장료를 설정해서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입장료를 설정하는 것이 영리목적이라고 판단되어, 더욱 더 사용료가 덧붙여지는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즉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문화서클활동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그 운영 등에 대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시민의 요청이나 희망을 각각 가지고 모여서 활동하는 「우타고에활동」 소개

저는 일본의 철도회사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 또는 휴일의 시간을 사용해서 음악문화활동으로써 합창단사무국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이래 한국의 음악가나 시민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도 마음의 교류가 행해지고 있는 시민이 주인공인 교류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류를 통하여 한국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노래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합창단에서는, 일본에서는 이 노래를 일본의 여러분들에게 소개

하고, 한국분들에게는 일본의 서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소개하는 활동을 중심적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도쿄에서 한일음악교류 20년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을 하였는데, 한국의 인천이나 광주에서 100명을 넘는 분들이 일본에 와주셔서 같이 무대를 만들고, 900명에 달하는 일본인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합창단활동이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읊고 싶은 요구와 함께, 우리들의 노래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민 여러분들을 격려하여 서로 연대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원들은, 여러 직장과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각각의 일이 끝난 뒤에 모여서 같이 연습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연습을 계속하면서 음악성도 향상시키고, 시민이나 직장에서의 모임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때때로 독자적인 콘서트를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연습장소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연습 시설이나 학생들이 하교한 뒤 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월 공공 시설의 실시하는 추첨회에 참가해서 희망하는 일정을 확보합니다만, 추첨이므로 반드시 희망대로 예약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금전적인 기반이 약한 아마추어 문화단체는, 부담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바램입니다. 나라나 지방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참으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보장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프로집단의 공연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시민의 문화활동에 대해 연습장소의 정비·증설 등,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합창단은, 일본 전국에서 합창 등을 하고 있는 음악써클이나 음악가가 모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오늘날의 시민들의 음악활동인 「우타고에 운동」을 짊어지는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에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타고에」는 한국어로 「노랫소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우타고에 전국협의회」는, 각현단계에 지방협의회를 만들고, 일상적인 음악문화운동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1년에 1회 전국의 우타고에 써클이 모이는 「일본의 우타고에 축전」을 개최하여 교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협의회에 정식 가맹하고 있는 써클은 현재 전국에서 약400단체를 꼽고, 「일본의 우타고에 축전」에는 전국에서 1000개 단체가 넘는 써클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타고에운동」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군국주의가, 한반도나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각국에 대해 악랄한

침략을 하였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일본 국내도 전쟁의 참화에 의해 전국각지가 초토화된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빈곤과 식량부족 속에서 헐떡이고,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달아 결성되었고, 쌀을 내놔라!라고 노동항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 즉 지금부터 70년전인 1948년에 「일본의 우타고에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필사적이었던 시기에, 자기의 목소리로 자유롭게 노래 할 수 있다는 기쁨을 알게 된 시민들에게, 노래는 내일을 사는 기쁨이고 희망이 되어서 널리 퍼져 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한국이나 중국의 여러분들을 심한 탄압과 억압으로 꽉 누른 것과 같이, 일본 국내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심한 탄압과 억압을 했습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는, 색깔로 비유하자면 회색으로 칠해진 것과 같은 사회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군국주의를 북돋우고, 체제에 고분고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당했습니다. 문화는 평화의 토대 위에 서야만 꽃피고, 사람들이 자유로운 마음을 열려 발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본 제국 주의의 패배에 의해 정신적 자유를 얻은 일본 국민은, 그 문화의 힘을 시민의 마음 해방과 자기의 요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기인 "목소리"의 하모니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타고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해 직장이나 길목에 펼쳐져 갔습니다.

「우타고에」는, 스스로가 노래 부르고 싶은 요구의 실현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공통인 요구를 실현하는 바램을 담은 운동으로서 발전해 오늘날까지 노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하고 「무엇을 어디에 확대시킬 것인가」를 결합시킨 목적의식을 가진 음악운동으로서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타고에」는 우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를 매일 논의를 거듭해왔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 왔습니다.

① 일본 시민의 요구와 생활을 읊은 노래.
② 외국의 시민생활과 역사로부터 생긴 노래.
③ 일본의 민족적인 전통에서 생긴 노래.

이러한 기둥 세가지를 정하여 운동을 진척시키고, 「우타고에는 평화의 힘」을 공통주제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운동이 퍼져 발전해 가는 중에서,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테마에 대해서도 자주 논의해 왔습니다. 음악기술만을 비교한다면 전문가에게는 필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성이라고는 흉내가 아닌,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 시민생활과 그

요구의 실현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들만의 노래를 하는 것, 이 점은 다른 전문가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점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습을 거듭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할 수 있게 되다 보면, 어쩌면 「한 사람으로 부터 한 사람에게」라는 목적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즉 공연을 하는 것, 큰 행사에 나가는 것, 그것이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한 사람으로 부터 한 사람에게 … 노랫소리를 널리 퍼지게 해 간다고 하는 대단히 착실한 활동을 피하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거리에는 다양한 문화가 넘치고, 간단히 손에 넣기도 쉬운, 겉보기에 화려한 문화가 넘치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전하는 활동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망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고「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확실한 힘이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거듭해 음악회를 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등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회라든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운동을 행하여온 결과, 그 운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연주회를 열면 와 주시는 분들과 공감 및 공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을 쓴다면, 작은 일상활동의 연결점이 연주회나 행사의 참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행해지면,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서, 정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라는 식으로, 음악쪽으로 부터 생활과 현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생활과 현실이 있어서 처음으로 음악이 있다. 거기에서 어떠한 음악을 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문제를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 음악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본인도 모르게 안이한 연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합창단 활동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은 20년전에 한일음악교류를 시작했다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본의 우타고에」가 매년 전국각지를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 「우타고에 축전」이 전국에서 활동하는 우타고에 써클이 한 곳에 모이는 대축전이 5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국제교류를 표현하는 행사로서 한국의 음악인 여러분을 맞이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때, 한국 생활에 뿌리 내려 시민의 바램을 노래 부른 노래에, 우리들과 공통되는 것을 깊이 느끼고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서로 방문하여,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깊이 이해를 하고, 마음을 주고

받는, 깊은 우정을 거듭해 온 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끼리의 교류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문제도 똑바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서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해옴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교류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 다양한 우타고에 써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일음악교류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교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5년전에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 합창단을 새로 만들어 「일어서라! 합창단」이라고 한국어의 명칭 그대로 사용하여 저희들의 합창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들은 요사이의 교류를 어떻게 누구에게 알려 갈 것인가 … 이것이 바로 교류를 깊이 있게 만들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일본 시민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아름다운 울림과 말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국어로 부르면서, 그 노래의 의미도 일본어로 소개하는 활동과, 한국의 여러분에게 일본의 노래를 소개하는 두 바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들 시민은 여러가지 곤란한 일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회에서는 전쟁 관련 법률을 억지로 제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평화의 초석으로서 해온 헌법을 개악해야 한다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에서의 원흉이 된 일제…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화 아래에서야 말로 꽃이 피어날 수 있는 문화활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시아 각국과의 국가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내에 있어서 한국·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적인 보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자료 일본 시민 사이에 적지 않게 이유도 없는 혐오감이 만들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서 진실에 접촉할 수 없는 불안감이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힘으로서 특필할 수 있는 것은, K-POP에 뜨거운 마음을 품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쿄의 신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신오쿠보가에서는,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식재료 슈퍼마켓, K-POP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고, 주말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움직일 틈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본 한국은, 어떤 부정적인 캠페인마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끈끈한 유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일어서라! 합창단」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1월, 20년간의 교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한일음악교류 20년 기념 음악회~우리들 하나가 되어」를 기획하고 개최했습니다. 이 20년간으로 교류를 깊게 해 온 인천·광주·서울 등으로부터 105명이나 되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호소에 응하여, 일본에 와주셔서 일본에서는 60명의 합창단을 조직하여 모두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화의 힘은, 국경이나 말의 차이를 간단히 뛰어넘어, 직접 서로의 마음에 울립니다. 우리들의 교류 근간은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교류」이며, 국가간의 다양한 문제와 과제도,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시민끼리의 관계가 확대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음악회에는 900명을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래로 참가한 사람들 그리고 연주를 듣는 입장에서 참가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가 된 감동적인 공연이었다고 많은 분들의 후기가 몰려온 것을 보아도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의 행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 문의가 많이 온 것을 보면, 전술한 불안을 불식하고, 참된 우호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각지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정세를 환영하여 연대하는 일본인들도 많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행사를 실시할 때, 시민단체와 문화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불러서 소개하는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효율적이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활동입니다만, 여기에서도 「얼굴이 보이는 활동」이 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우리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를 견고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아시아 국제교류를 향해

우리들이 요사이의 교류로 얻은 최대의 교훈은, 「얼굴이 보이는 교류」의 실천인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것을 잇는 문화의 힘이란,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 바로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길러진,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도 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들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

는 만큼, 우리들이 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에 고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대지 아래서 인간이 아름답고 상냥한 마음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서로가 보이는 거리에 모인다는 것은, 거기에 싸움이 억지로 들어가는 여지는 없어진다는 것과 같지요. 나아가서, 그 거리를 단숨에 줄여 주는 문화의 힘 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거리를 단축시키는 노력이 더 끈끈한 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특히 일본 시민들이 맡을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의 진실을 우리들이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서로 손과 손을 맞잡아 미래에의 결의를 다짐하여, 두 번 다시 불행한 시대를 만들지 않고,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회색의 문화는 필요 없다는,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더불어 문화활동을 진척시키는 강고한 기반이 되어 가는 것이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자의 원고이므로 문구나 문맥의 수정없이 가급적 원문을 살려 번역한 글을 실었습니다.

日本人の生活に根ざし、平和への願い
市民の願いを自ら表現する音楽活動を
~日本のうたごえ運動に見る
継続的な生活文化活動について~

報告者
元・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国際交流委員
日本のうたごえ運動「立ち上がれ！合唱団」事務局長
山田 博樹





多様な文化的要求と
その関わり方には様々な
形態があります。






練習場所には行政の所有する
公共施設を主に利用


-역사의 진실을 배우고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시민교류-
음악으로 소통하는 만남을 함께 열어요
仕事などの市民生活をしながら、市民との連帯の心を繋げ、国際交流活動を広げ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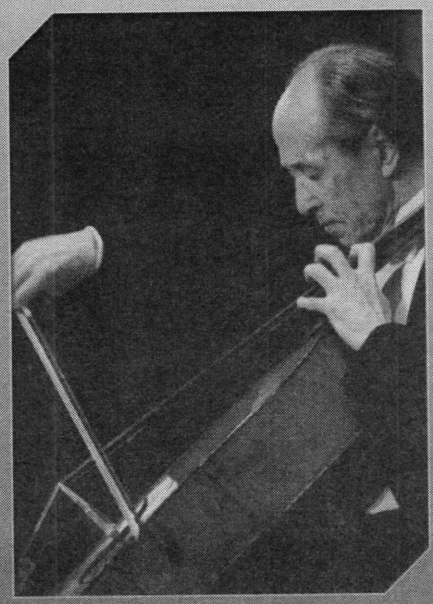
うたごえとは韓国語で“歌声”のこと







自らの声で歌う喜び！
歌う自由を得た市民達



井上頼豊
1912年11月19日 ~ 1996年11月1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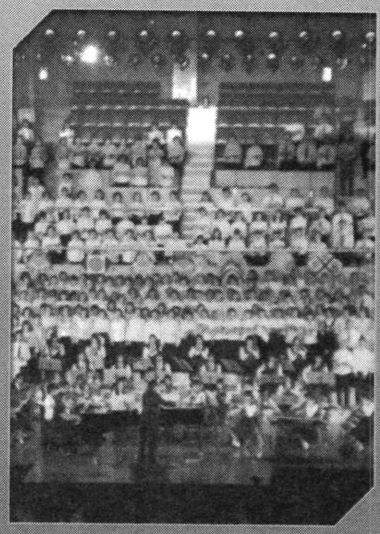
チェロ奏者、音楽教育者。日本チェロ界の代表的先駆者のひとり。戦後はうたごえ運動の理論、音楽面の指導者としても活動した。パブロ・カザルスを敬愛し、『鳥の歌』を愛奏した。

우리들은 운동이 퍼져 발전해 가는 중에서 「좋은 음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테마에 대해서도 자주 논의해 왔습니다. 음악기술만을 비교한다면 전문가에게는 필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성이라고는 흉내가 아닌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 시민생활과 그 요구의 실현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들만의 노래를 하는 것. 이 점은 다른 전문가들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점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① 일본 시민의 요구와 생활을 부르는 노래.
② 외국 시민생활과 역사로부터 생긴 노래.
③ 일본 민족적인 전통에서 생긴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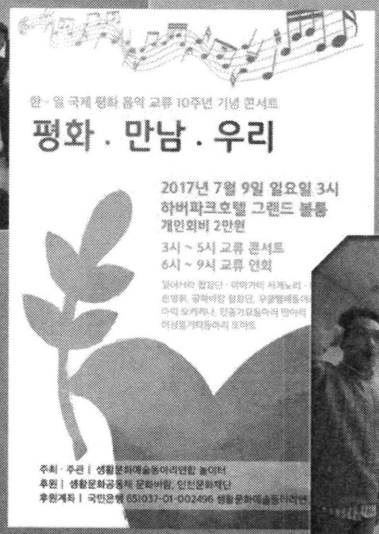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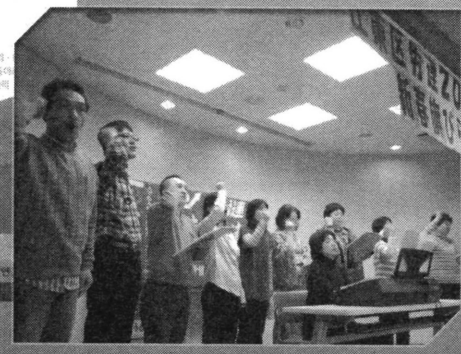


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規約

1. 国民の生活と闘いを創造の源泉とし、演奏・教育・創作活動を発展させる。
2. 日本の民族的な音楽のすぐれた伝統をうけつぎ、発展させる。
3. 諸国民の優れた音楽の成果に学び、日本国民のものにする。







일어서라!합창단



인간의 노래





한일음악교류 20년기념음악회
~우리 하나되어~



인천·서울·전주·광주에서 105명이 와 주셔서
일본 우타고에회원 60명과 함께 무대에서
깊은 노래교류를 했습니다.





日本人の生活に根ざし、平和への願い
市民の願いを自ら表現する音楽活動を
~日本のうたごえ運動に見る
継続的な生活文化活動について~

報告者
元・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国際交流委員
日本のうたごえ運動「立ち上がれ！合唱団」事務局長

山田 博樹





日本の市民文化活動事例 -うたごえ合唱運動を中心に

山田博樹

1, はじめに

今日、私たちの生活は、多種多様な条件の中で営まれていますが、私たちの生活の拠り所としての、文化の役割はさらに高まっています。しかし、一口に文化と言っても、その形態や内容はまた千差万別であります。
私は音楽を通じて市民が集う、自発的な文化活動である「日本のうたごえ運動」の一員として、市民の立場から日本に於ける音楽サークル活動を通じた経験を、このシンポジウムに報告いたします。

2, 日本に於ける生活に根ざした文化活動の実態

今日日本に於いて、市民の文化活動はどのような形態で行わ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文化活動と言っても文化そのものを、商業活動の一環として行う文化活動もあります。例えばピアノを習いたい、美術を習いたいと言った要求を実現するためには、これらの商業主義的文化に触れると云う事もありますし、厳密に商業主義的であるかどうかを、区分けすることは難しいと言えます。経済活動と共に行われるプロ集団による文化もまた市民文化を継続していく役割を果たしているからです。
ただ、私はこれらの市民が聴衆などの受け手となりがちな文化活動では無く、市民が自発的で自らの文化的要求を実現するための担い手となる形態を特に重視して報告したいと思います。

市民の自発的な文化活動の要求を実現する一つの形式として、住居地域に存在する公民館や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など行政が活動の場を提供しながらも、多くの場合行政が運営を行うのでは無く市民が自主的に運営を担う文化活動があります。これらは例えば市民コーラスであったり、詩や短歌のサークルであったり、写真や朗読、簡単な体育運動など、活動テーマを地域住民に知らせて一定の期間を設けて、希望者を募る形式が多いと思います。これらの活動は、平日の昼間に集まることが出来る地域住民の年配者を中心に行われており、文化を通じた憩いの場としての役割があると考えます。
別の形態としては、その文化の持っている専門性などを共有し、自発的で同好会的な運営が行われるサーク

ル活動があります。これは住居地域にとどまらず、SNSなどをも通じて情報交換を行うなど住居地域は広範囲にわたる事もあります。その運営のきっかけや形態は様々ですが、あくまで自主的な運営を維持しているサークルもあれば、活動の一部に行政が財政的な支援を行っ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

一般的に行政が文化活動への支援をする場合は、アマチュア団体でもプロ団体でも、行政が共催団体や後援の形をとって、財政支援や会場の提供などを行う事が多く、継続的に団体運営に対して、直接財政的な支援する制度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また財政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出来る場合であっても、その適用条件が厳格で、手軽に支援を受ける事は困難です。
私たち、自発的なアマチュア団体が練習などで集まる場所、公演を行う会場は、行政が管理する公共施設を利用する場合がほとんどです。ただ、かつては利用料金が無料だった場所でも、現在はほとんどの行政で有料化されており、公演を行う場合などに借りる公共のホールなども、利用料金は高額な場合が多く、必然的に一定の入場料金を設定して行事を行わざるを得ませんが、入場料を設定することで営利目的と見なされ、さらに利用料金が上乗せされる事も度々発生します。このように一般的な自発的な文化サークル活動に対して、行政からの財政的支援はほとんど無いのが現状と言えます。
私たちの合唱団が集う練習場所も、公共の練習施設や生徒達が下校した後の小学校の教室を借りて練習しています。練習場所を確保するためには、毎月公共施設の実施する抽選会に参加して希望の日程を確保しますが、抽選なので必ずしも希望通りに予約できないことも多々あります。私たちの様に基本的に会員の納入する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る財政基盤の弱い自主的なアマチュア文化団体にとって、気軽に安価で利用できる場所の確保は一番の願いです。国や地方自治体などの行政が、真に市民の文化活動を保証して発展させる立場に立ち、市民生活文化を担う活動への支援の方法として、例えば安心して利用できる会場の整備・増設などの充実を図るべきだと考えます。

3, 市民の要望や希望を持ち寄って活動する「うたごえ活動」の紹介

私は日本の鉄道会社に勤めながら、勤務終了後や休日の時間を使って、合唱団事務局長として音楽文化活動を行っています。特に1998年以来韓国の音楽家や市民文化活動をしている皆さん、そして仁川市民合唱団“平和の風”の皆さんとも出会い、今も心を交わしながら市民が主人公の交流が続いていること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私たちはこの交流の中で知った韓国の心豊かな歌の数々に魅了されました。私の合唱団では、日本に於いてこれらの歌を日本の皆さんに紹介し、そして韓国の皆さんには日本の市民の心が込められた歌を紹介する活動を中心的におこなっています。今年1月には東京で日韓音楽交流20年を祝う記念公演を行

い、韓国から仁川や光州から100名を超える皆さんが日本に来て一緒に舞台を作り、公演に集まった900名の日本人のお客様に届けることが出来ました。

私たちの合唱団活動とは、私たち自身の自発的に歌いたい要求と共に、私たちの歌を市民に届けて、市民の皆さんを励まし連帯の心を繋げる活動を積極的に行っています。そのために団員達は、様々な職場や職種で働き、それぞれの仕事が終わったあとに集まり、声を合わせ共に練習を行うことで心を共にしています。練習の積み重ねることで音楽性も高めながら、市民や職場での集まりに出演して歌う事や、時々独自のコンサートも企画して実施しています。
私たちの合唱団は、日本全国の合唱などを行っている音楽サークルや音楽家が集まり、全国的なネットワークを構築、今日も市民の音楽活動である「うたごえ運動」を担う"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に参加して活動を行っています。「うたごえ」とは韓国語で「歌声」を意味します。今日「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は、各県段階に地方協議会を作り、日常的な音楽文化運動の連携を図りながら、1年に1回全国のうたごえサークルが集う「日本のうたごえ祭典」を開催して運動の交流を行っている団体です。協議会に正式加盟しているサークルは現在全国で約400団体を数え、「日本のうたごえ祝典」には全国から1000団体を超えるサークルが参加しています。

「日本のうたごえ運動」について少し報告を致します。
1945年、日本帝国主義・軍国主義が、韓半島や中国をはじめアジアの各国に対して行った悪辣な侵略であった第二次世界大戦に敗北し、日本国内も戦争の惨禍によって全国各地が焦土化した中で、日本国民は貧困と食糧不足の中であえぎ、各地で労働組合が次々結成され、米をよこせ!と労働争議が頻発していった時期、今から70年前の1948年に「日本のうたごえ運動」は始まりました。毎日の生活に必死であった時期に、自らの声で自由に歌う事が出来る喜びを知った市民に、歌は明日を生きる喜びと希望となって広がって行ったのです。日本帝国主義政府は、韓国や中国の皆さんを激しい弾圧と抑圧で押さえつけたように、日本国内でもあらゆる分野で激しい弾圧と抑圧を行いました。市民が自由に歌う事など許されない社会は、色に例えれば灰色に塗り固められたような社会でありました。当時の文化は軍国主義を鼓舞して、体制に従順な人を作るために利用されました。文化は平和の土台の上に立ってこそ花開き、人々の自由な心を開き発展する力を持っています。無残な日本帝国主義の敗北によって精神的自由を得た日本国民は、その文化の力を市民の心の解放と自らの要求を表現する方法として、自らが持っている最高の楽器である"声"のハーモニーによって実現出来ることを知りました。「うたごえ」は人々の心を魅了し職場や街角に広がって行きました。

「うたごえ」は、自らが歌いたいと思う要求の実現であると同時に、人々の共通の要求を実現する願いを込めた運動として発展し今日も歌い継がれて来ました。それは「何をどう歌うのか」と「何をどこへ広げるのか」を結合させた目的意識性を持った音楽運動として組織化されていったことで、続いて来たのだと思います。そして「うたごえ」の活動に参加する私たちが心から歌いたい歌と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うたごえ運動創世記の指導者の一人であり世界的なチェロ奏者であった故・井上頼豊先生は、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ます。

「私たちの運動が広がり発展していく中で、「良い音楽とはなんなのだろうか？」と言うこともよく話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音楽技術だけを比べるなら、専門家にはかないません。私たち市民が持っている優位性とは、その真似ではなく、私達自身、市民が主人公となり、市民の生活と要求の実現を願う心を、私たちなりに歌いあげること、この点は他の専門家には出来ないことであり、この点を忘れないで継続することが大切ではないでしょうか？練習を重ね美しいハーモニーを奏で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ってくると、ともすると「一人から一人へ」と言う目的が薄れてくる事があります。公演をやること、大きな行事に出ること、それが中心的な課題となってしまうのです。そうなれば、一人から一人へ…歌声を広めていくという大変地道な活動を避けるようになって行きます。今日のように街中には多様な文化が溢れ、簡単に手に入れることで出来て、見た目にも華やかな文化が広がっている中では、そう簡単には「一人から一人へ」伝える活動は出来ることでは無くなってきています。ですから、その展望を持ちきれずに「美しく歌う事が人々の感動を得る確かな力であり、それを伝えるために練習を重ね音楽会を行い多くの人々に伝えることが大切」等の意見が多く出されるのです。しかし、音楽会とか行事への出演というのは「結果」です。運動を行って来た結果、その運動が認められるからこそ演奏会を行い来て下さる方と共感・共鳴することが出来ると私たちは考えます。別な言い方をすれば、小さな日常活動の結節点が演奏会や行事への参加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のです。それが逆になると、今度は人に歌って聴かせるために、情勢はどうなのか、我々の生活はどうなのかと、音楽の方から生活と現実を判断するようになります。これは大きな間違いです。生活と現実があってはじめて音楽がある。そこでどういう音楽やるのか、というふうに問題をすすめなく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人々に受け入れやすいということは大変重要です。但し音楽を形だけでつかまえて、形だけになってしまうと、どこかで安易な演奏が生まれるのです。」

そして私たちが歌いたい歌とは何かについて、次の三点を強調しました。

① 日本人民のたたかいと生活をうたったうた。

② 外国の人民の生活と歴史から生まれたうた。

③ 日本の民族的な伝統が生んだ歌。

この三つの柱を基本として運動を進め、「うたごえは平和の力」を合い言葉として大きく成長してきました。

この精神は、「日本のうたごえ全国協議会」の規約に次のように反映されています。
イ. 国民の生活と闘いを創造の源泉とし、演奏・教育・創作活動を発展させる。
ロ. 日本の民族的な音楽のすぐれた伝統をうけつぎ、発展させる。
ハ. 諸国民の優れた音楽の成果に学び、日本国民のものにする。

一つ具体的な例として私ども「일어서라!합창단」の活動を紹介します。私たちは20年前に日韓音楽交流を始めたと最初に申し上げました。それは私ども「日本のうたごえ」が毎年全国各地を廻りながら開催している「うたごえ祭典」と言う全国で活動するうたごえサークルが一堂に会する大音楽会が50周年を迎えたときに国際交流を表現する行事として韓国の音楽人の皆さんを迎えた事が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私たちはこの時、韓国の生活に根ざし市民の願いを歌った歌に、私たちと共通する物を深く感じ、大きな感動を得ました。それ以来互いの国を訪問し合い、互いの歴史と文化そして活動も共有しながら理解を深め、心を交わし、深い友情を積み重ねて来た事が今日も続いています。その中で市民文化を広げる仁川市民合唱団の皆さんとも出会い、市民同士の交流だからこそ過去の歴史問題も正面から受け止め、未来に向けて忌憚の無い意見交換も行ってきたことで互いの信頼を深めることにもなりました。これらの交流の当初は、様々なうたごえサークルで活動していた人々の中から、日韓音楽交流に関心のある会員が集まって韓国を訪問し交流してきました。しかし5年前にこの運動の核になる合唱団を作り「일어서라!합창단」と合唱団の名前に韓国語の名称をそのまま付けました。「일어서라!」は日本語の「空色」の発音に通じ、平和の象徴である「青い空」をイメージすることから私たちに最適な名前だと自負しています。私たちはこの間の交流をどのように誰に伝えていくことなのか…これこそが、この間交流を深めて来た者達の、その中で歴史の真実をも知った者達の役割だと考えます。私たちは日本の人々に韓国語の美しい響きと歌詞の意味を大切に考え紹介したい事から韓国語で歌い、その意味も日本語で示しながら韓国の優れた歌を紹介する活動と共に、韓国の皆様にも日本の歌を紹介する両輪の活動を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積み重ねの中から、今一つの歌がこのように歌われています。少しご紹介します。
※　資料映像「人間の歌」

この歌はうたごえ運動の中で作られた「人間の歌」と言います。私たちは1999年初めて韓国を訪問して以来、この歌を韓国の皆さんに心を込めて歌ってきました。そして今このように韓国語の歌詞も付いて、韓国でも歌

われて来ています。同じように今うたごえサークルの中でも、韓国の歌が歌われることが多くなってきました。

皆さんご存じの通り、現在の日本では私たち市民は様々な困難を抱えています。特に最近、日本の国会では戦争関連の法律を国民の反対の声を無視するかのように無理矢理制定して、第二次世界大戦での反省として日本国民が自ら作り、平和の礎としてきた憲法を改悪するべきとの発言が続いています。これらは第二次世界大戦のアジア侵略の元凶となった日帝主義‥日本軍国主義の復活に通じるのではないかとの懸念が大きく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は平和の下でこそ花開く事が出来る文化活動にとっても大変重大な事態です。

同時にこれらの状況がアジア各国との国家関係にも大きな影響を落としています。特に日本国内に於いては韓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に対して、意図的なネガティブ報道を繰り返し行っています。このように、日本市民の中に少なからず理由の無い嫌悪感が作られようとしていると同時に、市民の中には真実に触れることが出来ない不安感も増している情勢だと思います。しかし、一方で今までに無い力として特筆できるのは、例えばK-POPに熱い思いを寄せる多くの若者や、韓国ドラマや映画に熱い声援を送る人々が多く存在すると云う事です。東京の新コリアタウンと呼ばれる新大久保街では、韓国飲食店や韓国食材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K-POPグッズを扱う店が建ち並び、週末には全国から人々が集まり身動きできないような様子になっています。日本の中高生の間では、今「韓国」が一つのブームとなっており、自ら韓国語を学んで直接韓国アイドル達と心を交わしたいと願っている子ども達が少なくありません。このように文化を通じて見た韓国は、どのようなネガティブキャンペーンさえ影響しない強い絆を生み出しています。

私たち「일어서라!합창단」の目的もまさに同じだと言えます。今年の1月には、20年間の交流を記念する意味で「日韓音楽交流20年記念音楽会〜あなたとつなぐ」を企画して開催しました。この20年間で交流を深めてきた仁川・光州・ソウルなどから105名もの皆さんが私どもの呼び掛けに応え、日本に来て下さり日本人の私たちは、この演奏会のために多くのサークルや個人が協力し合って60名の合唱団を組織して共に歌い交わしました。文化の力は、国境や言葉の違いを越え、直接互いの心に響きます。私たちの交流の根幹は「互いの顔が見える交流」であり、国家間の様々な問題や課題も、互いの顔が見える市民同士の関係が広がるならば、何の問題でも無くなることを良く知っています。この音楽会には900名を越える人々が集いました。歌って参加する人、演奏を聴く立場で参加した人がまさに一体となった感動的な公演だったと多くの感想が寄せられています。なにより今回の取り組みの中では今までに無かった様々な反応があり、自らチケットを求める問合せが続いたことを見るならば、前述した理由の無い嫌悪感や不安を払拭し、真の友好を求める日本市民

が各地に多く存在する事を確信しました。そして朝鮮半島を巡る今日の新しい情勢を歓迎して連帯する日本人もまた多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
私たちはこれらの行事を行うときはいつも、市民団体や文化団体や労働組合等を訪問して、今を語り相手の話を聞き、歌を歌って紹介する活動を重視しています。決して効率的では無く手間がかかる活動ではありますが、ここでも「顔が見える活動」が生活に根ざした文化の発展をめざす私たちの基本だと考えているからです。今、時代が直面している情勢と、多くの人たちが求めている社会をしっかりした眼差しで見つめることが大切だと確信しています。

4, これからのアジア国際交流に向けて

私たちがこの間の交流で得た最大の教訓は、前述した「顔の見える交流」の実践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す。そしてそこを繋ぐ文化の力とは、人間の暮らしそのものであり悠久の人類の歴史の中で培われた、人間の心を映し出す鏡であると考えます。文化を通じて映し出される人の姿は、人間らしくもなり、その方向によっては非人間らしくもなり得る両面性を持っているだけに、私たちが生活に根ざした文化にこだわることは大変重要です。そして平和と言う大地の下で人間の美しく優しい心で育て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市民が互いの見える距離に集うということは、そこに争いが入り込む余地は無くなると言う事でしょう。更に、その距離を一気に縮めてくれる文化の力だけに頼るのでは無く、私たち自らが、その距離を縮める努力をする事こそが、更に強い絆を作って行くに違いありません。その意味でアジアに於ける日本市民の果たす役割は、特に大きく問われていると考えます。それは過去の歴史の真実に私達自身が正面から向き合うと共に、互いに手と手を繋ぎ未来への決意を述べ合う上で、二度と不幸な時代を作らない、作らせない、灰色の文化は要らないと、平和への思いを語り要求するならば、共に文化活動を進める強固な基盤となって行くに違いないと考えるから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Ⅲ 토론자료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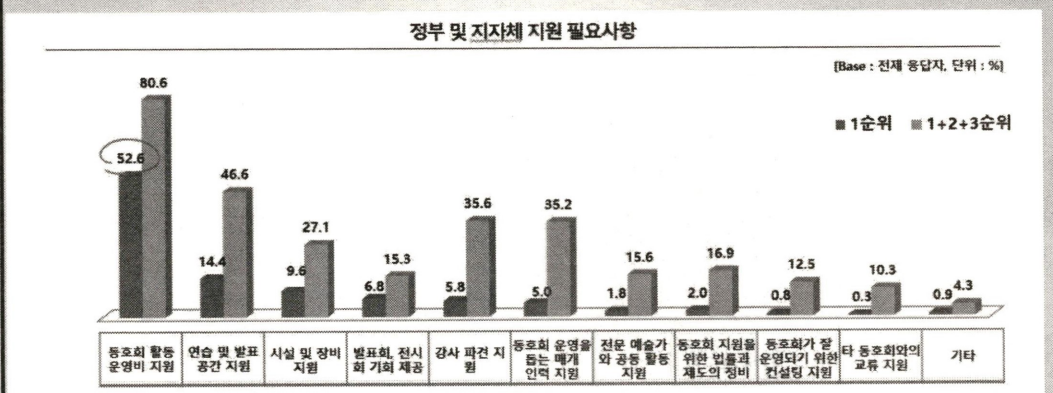
한중일 생활문화 현황 비교와 향후 과제

유상진 •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장

한중일 생활문화 사례 비교와 향후 과제

한국의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주요 현황과 과제

1. 생활문화 관련 한국민들의 공공 지원 요청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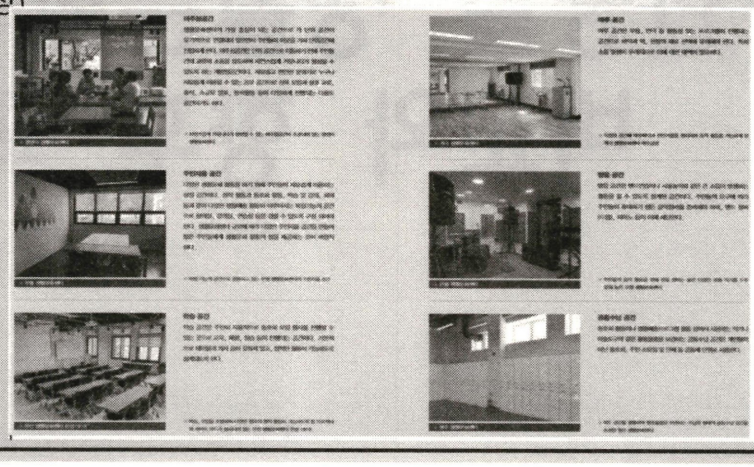


자료출처: <2018 생활문화동호회 실태조사>(지역문화진흥원) * 본 자료는 최종 검수를 거쳐 5월 보고서로 발간 예정

한국의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주요 현황과 과제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 공간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활성화(2014~, 2019년 4월 현재 123개 조성)



한국의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주요 현황과 과제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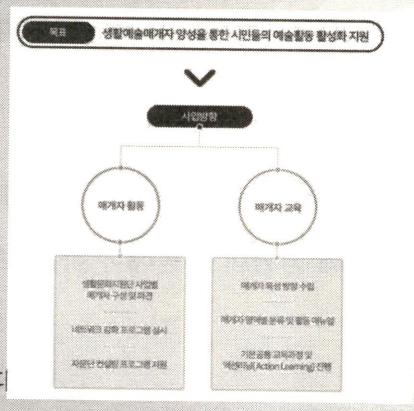
- 강사 파견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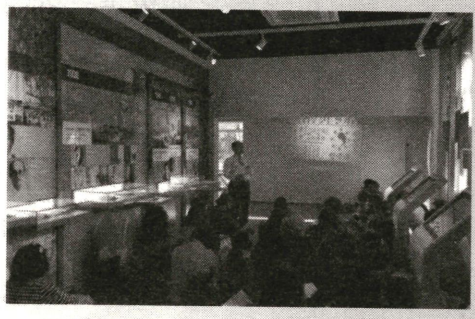
한국의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주요 현황과 과제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 매개 인력 지원: 정부보다는 지역 지자체에서 활발히 추진



<서울문화재단 FA 지원 제도>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

한국의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주요 현황과 과제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

- 발표회 전시회 기회/시설 및 장비 지원/전문예술가 협업/타 동호회 교류 지원: (2014~)





<2018 전국생활문화축제>

한국의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 주요 현황과 과제

3. 과제

- 생활문화 참여층과 활동의 다양성 수용과 확대

- 동호회의 높은 자생성과 자발성 vs 동호회 협력과 네트워크의 낮은 자생성과 자발성

- 생활문화의 공공성과 사회적 경제로서의 시장성 조화

- 공공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지지

예. 개인의 취향과 취미활동을 왜 공공이 지원해야 하는가?

생활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 문화정책

1.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인민들의 문화적 욕구 상승과 참여적 활동 증가 예상

- 한국,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문화 욕구와 참여활동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

- 고급문화 향유의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에서 직접 생산하고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로 변화가 예상

- 중국 인민들의 잠재적 문화역량과 일상 문화의 다양성은 향후 중국 생활문화의 발전과 성장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

2. 일대일로 추진 정책에 있어 생활문화를 통한 민간 상호 교류 증진은 중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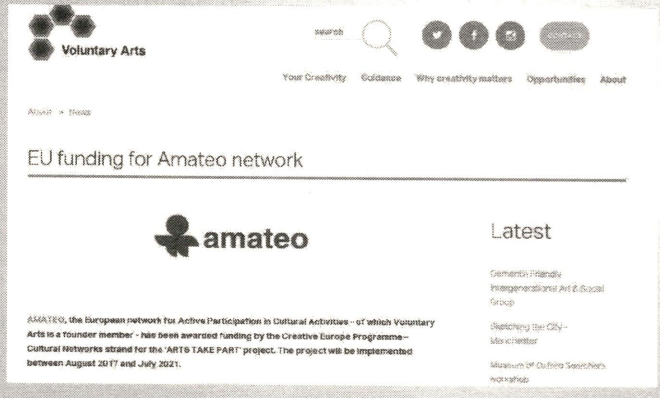
-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문화 ' 는 큰 역할을 담당

- 전통문화 이미지에 현대 중국 인민들의 다양한 삶이 담긴 생활문화는 '중국의 현대문화'를 알릴 것으로 기대

생활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 문화정책

3. 중국 인민들의 생활문화 활동/중국 정부의 관련 자료가 거의 전무

- 향후 한/중/일 상호 교류를 통한 관련 자료, 데이터, 지원 등의 공동 협력 필요



생활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우타고에 사례

1. 문화예술의 민주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대표적 모범 사례로 한국에 알려짐

-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 민주적 정통성 + 민주적 통제

◦ 민주적 정통성: 참여자들의 논의와 의사결정에 기반한 실천

◦ 민주적 통제: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이 아닌 참여자가 계획, 과정, 실행에 참여

2. 일상 속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나와 우리의 이야기'로서의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 독립적 형이상학적인 미학 가치가 아닌 개인과 함께 하는 타인들의 삶의 이야기

- 사회학의 역할이 '사회를 설명해야 한다'(노명우)와 같이 문화예술이 '삶을 말해야'
할 필요와 역할도 있음

생활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우타고에 사례

- 사회학자 엄기호의 '곁 ' 처럼 문화예술이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곁을 함께하는 역할이 필요함. 이것이 생활문화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될 수 있음

3.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와 확대에 대한 고민

- 일본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동과 '지방소멸' 문제에 있어 좋은 참고서
- 한국사회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한국 생활문화의 주 참여층은 중장년층. 청년들의 생활문화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
- 우타고에 참여층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함

질문)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활문화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우타고에 사례

4. 전문 예술가와 일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자들의 교류와 협력 증진

- 우타고에 활동에는 지역의 유능한 전문 예술인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의 경우 일부 전문 예술가는 생활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
- 그러나 생활문화는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활동 기반이며 지역문화의 기본 토대임
- 전문 예술가와 생활문화인들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질문) 우타고에의 예술가-생활문화인 교류, 협업 사례를 부탁함

제언) 한/중/일 향후 미래 협력

■ 동아시아 생활문화 교류협력 네트워크 추진

- 한국/중국/일본의 생활문화 정책 및 동향 공유를 통한 향후 발전 방안 모색
- 한국/중국/일본 생활문화인들의 상호 교류 활동

  예) 우타고에 행사에 한/중 생활문화인 또는 단체 참여
- 향후 북한의 생활문화(군중문화활동) 교류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과 추진

* 새로운 미래 '평화'의 담론을 서구가 아닌 동아시아에서 제안하고 추진, 실천

민의 중심이 된 '평화 ' 의 논의와 실천을 일상 생활인들의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제안하고 확대시켜 나감

감사합니다.

section 2

동아시아 문화도시 포럼

section 2 : 동아시아 문화도시 포럼

Ⅰ 행사소개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심포지엄
· 일　　시 : 2019. 4. 27. 토. 14:00~17:30
· 장　　소 : 인천광역시 하버파크 호텔 14F 코너베이홀
· 주　　최 :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주식회사 문화바람(예비사회적기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문화공유'

2. 추진배경 및 목적

배경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속사업의 동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핵심사업
　–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를 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개최" 합의 ('12.4월)
○ 추진방식 : 매년 문화장관회의 주빈국에서 3국 전문가 초청, 포럼 추진

연 도	추진도시	추진내용
2018	중국 하얼빈	〈문화와 관광 융합, 도시발전의 신에너지〉발표
2017	일본 교토	전문가 회의 개최, 문화도시 사례발표
2016	한국 제주	포럼 개최, 문화도시 정책 및 사례발표

추진내용

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과 사례 및 진단

○ (내용)한중일 각 국가별 기 추진사업 성과발표 및 진단

○ (참가)한중일 각 국가별 지자체 1인, 전문가 1인

나. 동아시아 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 모색

○ (내용)동아시아 문화도시 참여도시 및 기타 문화도시(유럽 문화수도, 아세안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활성화 방안 사례발표

○ (참가)한중일 각 국가별 전문가 1인

3.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14:00–14:05	5'	개회
14:05–14:10	5'	환영사 및 주제발표
14:10–14:15	5'	행사안내
1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성과 사례 및 진단**
14:15–14:35	20'	**한국 사례발표**
14:35–14:55	20'	**중국 사례발표**
14:55–15:15	20'	**일본 사례발표**
15:15–15:30	15'	휴식
2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
15:30–15:50	20'	**한국 사례발표**
15:50–16:10	20'	**중국 사례발표**
16:10–16:30	20'	**일본 사례발표**
16:30–16:40	10'	사례발표 정리
16:40–16:50	10'	질의응답
16:50–17:00	10'	폐회 및 기념촬영
17:00–17:20	20'	휴식 및 이동 준비
17:20–17:30	10'	1층, 인천 아트플랫폼 이동
17:30–18:20	50'	인천 일대 관람
18:20–20:20	120'	관계자 교류 및 만찬
20:20–20:40	20'	숙소 이동 및 휴식

section 2：东亚文化之都论坛

I 活动介绍

1. 活动题纲

· 活动名称：2019年 东亚文化之都研讨会

· 活动日期：2019年 4月 27日 星期六 14:00~17:30

· 活动地点：仁川广域市 海港公园酒店 14层 角落湾大厅(Cornerbay hall)

· 主办单位：仁川广域市, 文化体育观光部

· 主管单位：株式会社 文化风(准社会企业), 韩国国际文化交流振兴院,
社会合作社 '文化共有'

2. 事业背景 与 目标

背景

○ 韩中日文化部长会议的后续事业："东亚文化之都"活动

- 为"增进东亚意识、加强文化交流和融合、了解对方文化而 举办'东亚文化之都'活动"协议

年 度	举办城市	举 办 内 容
2018年	中国 哈尔滨	以<文旅融合,城市发展新动能>为主题进行发表
2017年	日本 京都	举行专家会议 以及 发表文化之都案例
2016年	韩国 济州	举办论坛 以及 发表文化之都政策与案例

(2012年4月)

○ 活动开展方式：每年文化部长会议主办国邀请三国专家举办论坛

事业内容

一. 发表与检讨东亚文化之都事业的成果

○ (内容)发表与检讨韩中日各国推进事业的成果

○ (参加)韩中日各国地方政府官员1名, 专家1名

二. 寻求东亚文化之都事业外延扩大方案

○ (内容)东亚文化之都事业参与城市 与 其他文化之都(欧洲文化首都, 东盟文化城市, 联合国UNESCO创意城市 等等) 发表激活方案事例。

○ (参加)韩中日各国专家1名

3. 活动计划表

时 刻		活 动 内 容
14:00-14:05	5’	注册 及 开会
14:05-14:10	5’	贺词
14:10-14:15	5’	发表主题 以及 介绍学术活动
第一会期		**发表与检讨东亚文化之都成果案例**
14:15-14:35	20’	**韩方发表案例**
14:35-14:55	20’	**中方发表案例**
14:55-15:15	20’	**日方发表案例**
15:15-15:30	15’	休息时间
第二会期		**发表东亚文化之都外延扩大方案**
15:30-15:50	20’	**韩方发表案例**
15:50-16:10	20’	**中方发表案例**
16:10-16:30	20’	**日方发表案例**
16:30-16:40	10’	事例摘要
16:40-16:50	10’	Q&A应答
16:50-17:00	10’	闭会 以及 纪念照
17:00-17:20	20’	休息时间
17:20-17:30	10’	移动到一层 然后 移动到仁川市艺术平台 (仁川广域市连办巡回项目)
17:30-18:20	50’	访问仁川市艺术平台一带
18:20-20:20	120’	有关人员之间的交流 以及 晚餐
20:20-20:40	20’	结束

section 2 : 東アジア文化都市フォーラム

Ⅰ行事紹介

1. 行事概要

・行 事 名 : 2019東アジア文化都市シンポジウム
・日　　時 : 2019.4.27土 14:00～17:30
・場　　所 : ハーバーパークホテル 14F コーナーベイホール

・主　　催 : 仁川広域市、文化体育観光部
・主　　監 : 株式会社ムンファバラム(予備社会的企業),韓国国際文化交流振興院、
社会的協同組合'文化共有'

2. 推進背景および目的

背景

◦日中韓文化大臣会合のフォローアップ事業としての東アジアの文化中心都市のコア事業「東アジアの意識、文化交流と融合、相互の理解のための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の開催"合意('12. 4月)
◦推進方式：毎年文化大臣会合主賓国にて3カ国の専門家招待及びフォーラム推進

年　度	推進都市	推進内容
2018	中国ハルビン	<文化と観光の融合、都市の発展の新エネルギー>発表
2017	日本京都	専門家会議の開催、文化都市の事例発表
2016	韓国済州	フォーラムの開催、文化都市政策と事例発表

推進内容

1. 東アジア文化都市の成果事例及び診断

◦（内容）日中韓それぞれの国別既存推進事業の成果発表及び診断

◦（参加）日中韓各国別自治体1人、専門家1人

2. 東アジア文化都市の外縁拡大案模索

◦(内容）東アジア文化都市の参加都市及び他の文化都市（欧州文化首都、アセアン文化都市、ユネスコ創造都市など）活性化方案事例発表

◦(参加）日中韓各国別専門家1人

3. 行事計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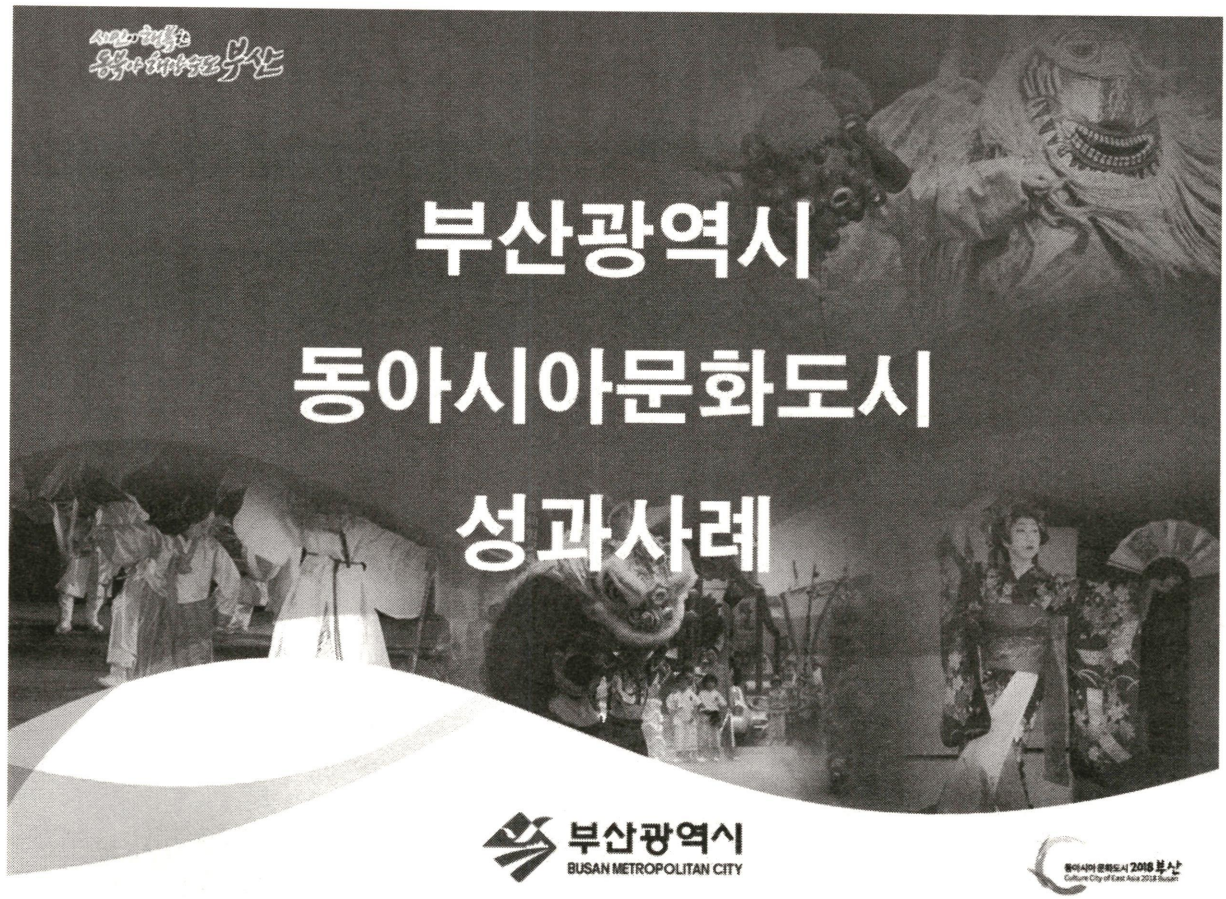
時　間		内　容
14:00-14:05	5'	開会の辞
14:05-14:10	5'	祝辞
14:10-14:15	5'	主題発表と学術行事案内
セッション1.		**東アジア文化都市の成果事例と診断**
14:15-14:35	20'	**韓国の事例発表**
14:35-14:55	20'	**中国の事例発表**
14:55-15:15	20'	**日本の事例発表**
15:15-15:30	15'	休憩
セッション2.		**東アジア文化都市外縁拡大案**
15:30-15:50	20'	**韓国の事例発表**
15:50-16:10	20'	**中国の事例発表**
16:10-16:30	20'	**日本の事例発表**
16:30-16:40	10'	事例発表 整理
16:40-16:50	10'	Q&A
16:50-17:00	10'	閉会と記念撮影
17:00-17:20	20'	休憩
17:20-17:30	10'	1階に移動した後、仁川アートプラットフォームの移動（仁川市連携ツアープログラム）
17:30-18:20	50'	仁川アートプラットフォーム一帯探訪
18:20-20:20	120'	関係者の交流と夕食
20:20-20:40	20'	終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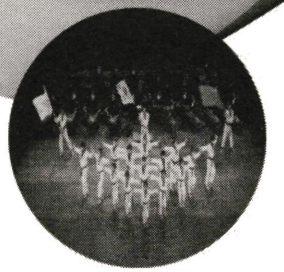
II 발표자료

발제 1

부산광역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성과사례

김태경 • 부산광역시 주무관









목 차

Ⅰ. 2018년 사업개요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1. 개막행사
2. 해넘행사
3. 교류행사
4. 폐막행사
Ⅲ. 하얼빈시 행사 참여
Ⅳ. 가나자와시 행사 참여
Ⅴ. 2018년 투입성과
Ⅵ. 2019년 후속사업 계획

I. 2018년 사업개요

I. 2018년 사업개요

동아시아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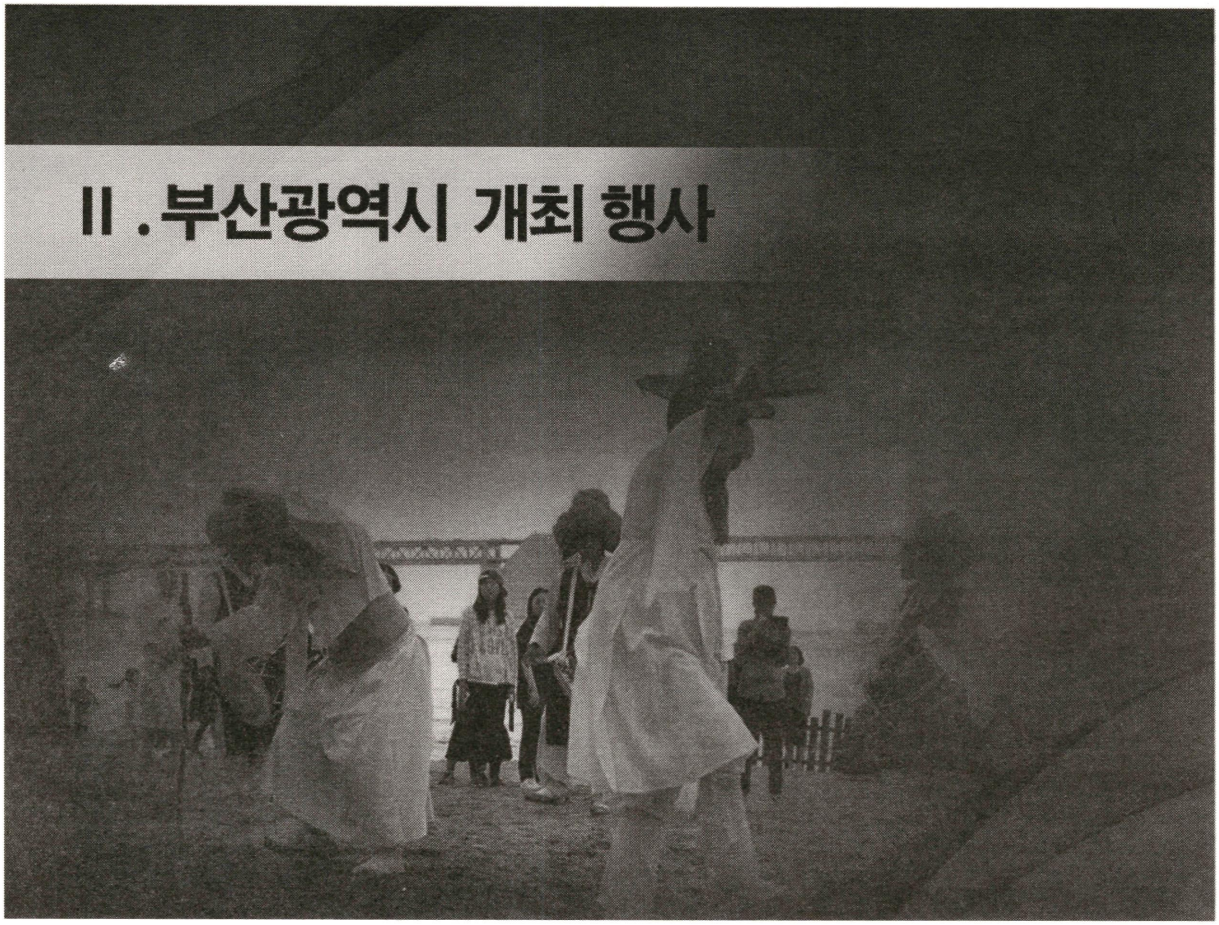
-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추진 합의
- 문체부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공모에서 부산시 문화도시로 선정('17.6월)
  - 2018년 선정도시 : 부산광역시(대한민국), 하얼빈시(중국), 가나자와시(일본)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중·일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이해 및 존중, 우호협력
-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 장　　소 : 부산광역시 전역,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 사업내용 : 개막식, 폐막식, 핵심행사, 교류사업 등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6억, 시비 6억,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

개막행사	폐막행사	핵심행사	교류사업
5. 11(금) ~ 5. 12(토)	12. 7(금) ~ 12. 8(토)	6. 22(금) ~ 6. 24(일)	2018년 연중
환영만찬, 개막식, 문화공연, 문화탐방 등	폐막식, 각국 문화공연 공동선언문 발표 등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동아시아 문화의 숲 등	국제레지던시, 청년캠프, 교류공연 등

- 가나자와시 행사 참여 : 건축전공대학생 교류, 재즈·아카펠라 축제 등
- 하 얼 빈 시 행사 참여 : 청소년 예술교류 및 바둑대회, 한중일 사진전 등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1. 개막행사

- 기　　간 : 2018. 5. 11(금) ~ 5. 12(토)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웨스틴조선호텔 등
- 내　　용 : 개막식, 개막공연, 환영만찬, 환영접견, 문화탐방, 환송만찬 등
- 주최·후원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행사일정

일 자	행 사	주요내용	장 소
5.11(금)	환영접견	◦ 환영접견 및 기념품 교환	부산시청
	환영만찬	◦ 환영사, 건배제의, 환영퍼포먼스 등	웨스틴조선H
	개 막 식	◦ 개막퍼포먼스, 한·일 문화공연 등	부산문화회관
5.12(토)	실무회의	◦ 교류협력 방안 논의	웨스틴조선H
	교류단 문화탐방	◦ 매력도시 부산 문화탐방	부산시 일원
	환송만찬	◦ F1963·줄리아오피전 관람, 만찬 등	엘올리브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1. 개막행사

현대 미디어 아트와 전통예술의 조화

주요 행사



개막식

- 일 시 : 2018. 5. 11(금) 19:3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 참 석 : 1,400여명(문체부, 문화도시 대표단, 교류단, 시민 등)
- 내 용 : 식전공연, 개막퍼포먼스, 한·일 문화공연 등

한.일 문화공연

- 가나자와시 문화공연 : 시카노 토오네, 사쿠라 헨소우쿄쿠, 유우가오 공연
- 부산광역시 문화공연 : 정신혜무용단 '달의노래' 공연
- 피날레 공연 : 김경호, 곽동현, 광개토 사물놀이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1. 개막행사



환영접견

- 일 시 : 2018. 5. 11(금) 15:00
- 장 소 :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
- 참 석 :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정 대표단 등
- 내 용 : 환영 접견 및 기념품 교환, 선물증정



환영만찬

- 일 시 : 2018. 5. 11(금) 17:00
- 장 소 : 웨스틴 조선호텔부산
- 참 석 : 100여명(문체부, 문화도시 대표단, 교류단 등)
- 내 용 : 환영사, 환영퍼포먼스, 건배제의, 만찬 등



문화탐방

- 일 시 : 2018. 5. 12(금) 09:00 ~ 17:00
- 장 소 : 감천문화마을, 송도케이블카, 또따또가 등
- 참 석 : 가나자와시 대표단 및 예술단 20여명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2. 핵심행사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동아시아 문화의 숲

- **기　　간 : 2018. 6. 23(토) ~ 6. 24(일)**
- **장　　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 **내　　용 : 락(樂), 장(場), 휴(休)가 어우러지는 시민참여형 문화교류 축제**
  - 가나자와시 전통북공연, 하얼빈시 그림자아트공연, 부산광역시 동래학춤·줄타기 등
- **주최·후원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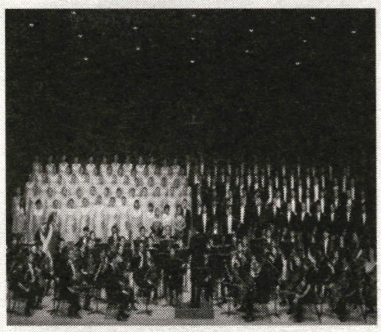
숲속의 락樂 (숲속에서 즐기다)	숲속의 장場 (숲속에서 공유하다)	숲속의 휴休 (숲속에서 쉬다)
한중일 문화공연, 아카펠라,재즈경연대회 등	한중일 문화체험, 아트마켓	영화상영, 휴식공간 운영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2. 핵심행사



동아시아 평화콘서트

- 일 시 : 2018. 6. 22(금) 19:30~21:3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참 석 : 1,400여명(문화도시 관계자, 일반시민 등)
- 내 용 : 동아시아 평화기원 한중일 합창 공연 등
- 출 연 : 한중일 합창단과 성악가, 부산시향 등
- 프로그램 : 베토벤 - 피아노협주곡 제3번/ 9번 교향곡 '합창'



문화탐방

- 일 시 : 2018. 6. 21(목) ~ 6. 23(토)
- 장 소 : 이기대, 해동용궁사, 용두산공원 등
- 참 석 : 중국, 일본 예술단 34여명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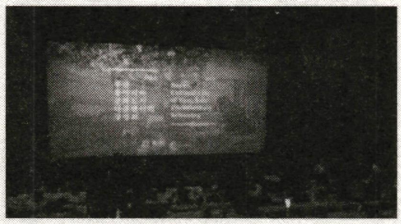
3. 교류행사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의 공유



동아시아문화도시 영화제작 레지던시 사업

- 기 간 : 2018년 4월~12월
- 장 소 : 부산,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일원
- 내 용 : 부산 영화인들이 가나자와, 하얼빈을 방문하여 각 도시의 문화예술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제작
  - 가나자와시 :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 가나자와의 공예장인
  - 하 얼 빈 시 : 음악도시 하얼빈의 다양한 음악관련 행사
- 제작진 : 탁주조합 오민욱 감독 외 3명



동아시아 문화도시 다큐멘터리 상영회

- 일 시 : 2018. 12. 8(토) 16:00 ※ 폐막행사시 상영
- 장 소 : 영화의 전당 소극장
- 참석자 : 한중일 문화도시 대표단 및 예술단, 시민 등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3. 교류행사



동아시아 청년글로벌 리더캠프

- 기 간 : 2018. 8월 ~ 11월
- 내 용 : 3국간 청년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가나자와시, 10.10~10.15, 대학생 등 27명 방문
    - 한일 청년교류, 국제교류마츠리 참가, 산업탐방 등
  - 하얼빈시, 10.30~11.3, 대학생 등 25명 방문
    - 도시발전사 비교포럼, 교류회, 네트워크 구축 등



동아시아 국제레지던시 교류사업

- 기 간 : 2018. 3월 ~ 12월
- 내 용 :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가 초청 및 창작 교류활동
  - 부산 홍티아트센터 : 일본 작가 2명 레지던시 교류
  - 가나자와 토이야마치스튜디오 : 한국 작가 1명 교류협업
  - 하얼빈시 사범대학 등 : 한국 작가 4명 방문 예술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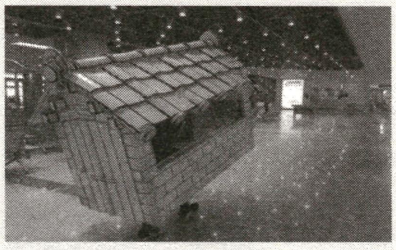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3. 교류행사



기획공연 <부산아리랑>

- 기간장소 : 2018. 10. 11(목)~ 10. 13(토), 부산예술회관
- 내　　용 : 아리랑을 소재로 부산예술인들이 만든 부산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가무악 총체극
  - 가나자와시, 하얼빈시 연주자 참여



기획전시 <집의 동사형> 展

- 기간장소 : 2018. 7.3(화)~7.24(화), 부산시 일원
- 내　　용 : 일본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초청 전시
  - 부산현대미술관과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간 교류

Ⅱ.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4. 폐막행사

- **기　　간 : 2018. 12. 7(금) ~ 12. 8(토)**
- **장　　소 : 국립부산국악원, 누리마루 APEC하우스 등**
- **내　　용 : 폐막식, 한중일 예술단 공연, 공동선언문 채택, 영화상영회 등**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국립부산국악원(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행사일정

일 자	행 사	주요내용	장 소
12.7(금)	한중일 부시장 환담	◦환영 접견 및 기념품 교환 등	부산롯데호텔
	환영만찬	◦환영사, 기념공연 등	부산롯데호텔
	폐막공연	◦폐막식, 식전행사, 3국 문화공연	국립부산국악원
12.8(토)	영화상영회	◦영화로 보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영화의전당
	도시문화탐방	◦부산 문화관련 시설 시찰	부산시 일원
	환송만찬	◦공동선언문 서명식, 붓퍼포먼스 등	누리마루 APEC하우스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4. 폐막행사

인연(因緣), 공명의 여정

주요 행사



폐막공연

- 일 시 : 2018. 12. 7(금) 19:30
- 장 소 :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 참 석 : 700여명(문체부, 중국·일본 대표단, 교류단, 시민 등)
- 내 용 : 식전공연, 폐막퍼포먼스, 한중일 문화공연 등

한.중.일 문화공연

- 가나자와시 공연 : 마칭밴드(유우각칸 고등학교) - '돌아와요 부산항' 등
- 하 얼 빈시 공연 : 하얼빈오페라하우스민족악단 - '민악합주 아리랑' 등
- 부산광역시 공연 :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등- '한국의 혼'등
- 3국 합동공연 : 한중일 민요와 합창- '사쿠라', '모리화', '혼의소리 아리랑' 등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4. 폐막행사



한중일 부시장 환담

- 일 시 : 2018. 12. 7(금) 17:10 ~ 17:30
- 장 소 : 부산롯데호텔
- 참 석 :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행정대표단 등 9명
- 내 용 : 환영 접견 및 기념품 교환, 선물전달



환영만찬

- 일 시 : 2018. 12. 7(금) 17:30
- 장 소 : 부산롯데호텔
- 참 석 : 70여명(문체부,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대표단 등)
- 내 용 : 환영사, 건배사, 기념공연, 만찬 등

II. 부산광역시 개최 행사

동아시아문화도시 2018 부산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8 Busan

4. 폐막행사



환송만찬

- 일 시 : 2018. 12. 8(토) 18:00
- 장 소 : 누리마루 APEC하우스
- 참 석 : 18명(하얼빈시, 가나자와시 행정 대표단 등)
- 내 용 : 공동선언문 서명식, 붓퍼포먼스, 만찬 등



문화탐방

- 기 간 : 2018. 12.7(금)~12.8(토)
- 장 소 : 누리마루, 전포카페거리, 부산요트투어 등
- 참 석 : 하얼빈시, 가나자와시 대표단 및 예술단 40여명

III. 하얼빈시 행사 참가



III. 하얼빈시 행사 참가



개막행사

- 기간·장소 : 2018. 1. 4 ~ 1. 6, 하얼빈시
- 참　　석 : 부산시 대표단 및 예술단(무용단, 합창단)
- 내　　용 : 개막식 참석, 교향음악회 참석, 예술단 문화공연 빙설제 개막식 참석, 국제한지발전포럼 참가



폐막행사

- 기간·장소 : 2018. 10. 11 ~ 10. 13, 하얼빈오페라하우스 등
- 참　　석 : 부산시 대표단 및 예술단(무용단)
- 내　　용 : 환영만찬, 폐막식 참석, 예술단 문화공연 헤이룽장성 부성장 예방 등



동아시아 청소년교류행사

- 기간·장소 : 2018. 8. 4 ~ 8. 6, 하얼빈시 소년궁
- 참　　석 : 4명(부산시 관계자, 부산예술고 3명)
- 내　　용 : 한중일 청소년 교류공연 및 네트워크 활성화
  - 한국전통무용(부산예술고), 교육부 실무회의(8.5)

III. 하얼빈시 행사 참가



청소년 바둑교류대회

- 기간·장소 : 2018. 8.6~8.10, 하얼빈시 지우시 가든호텔
- 참　　가 : 부산바둑협회 코치 및 선수단 12명
- 내　　용 : 한중일 소년 바둑선수 교류전, 문화탐방(8.8)



태극권 교류경기

- 기간·장소 : 2018. 9. 3 ~ 9. 7, 하얼빈시인민체육관
- 참　　가 : 부산우수협회 선수 9명
- 내　　용 : 동아시아 문화도시 태극권 민간 교류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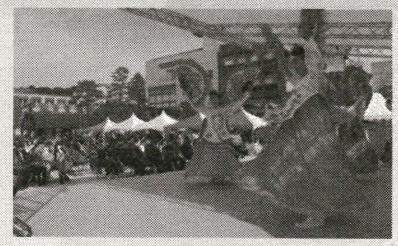
우리의 도시 우리의 집 사진전

- 일　　시 : 2018. 10. 12
- 장　　소 : 하얼빈 하야오당대미술관
- 내　　용 : 부산시, 하얼빈시, 가나자와시의 도시 풍경, 축제 등 사진전시



Ⅳ. 가나자와시 행사 참가

Ⅳ. 가나자와시 행사 참가



개막행사

- 기간·장소 : 2018. 3. 2~3. 4, 가나자와시
- 참　　석 : 부산시 대표단 및 예술단(교향악단 등)
- 내　　용 : 가나자와 개막식 참석 및 예술단 공연



폐막행사

- 기간·장소 : 2018. 12. 4 ~ 12. 6, 가나자와 문화홀 등
- 참　　석 : 부산시 대표단 및 예술단((사)부산민예총 등)
- 내　　용 : 폐막식, 한중일 종합예술 공연, 가나자와 국제심포지엄 참가 등



하쿠만코쿠마츠리 공연

- 기간·장소 : 2018. 6. 1 ~ 6. 3, 가나자와성
- 참　　석 : 12명 (부산시 관계자 2, 부산예술단 10)
- 내　　용 : 가나자와 하쿠만고쿠마츠리 행사 참가 및 한국전통문화 공연 교류

Ⅳ. 가나자와시 행사 참가



한중일 건축전공 대학생 워크숍

- 기간·장소 : 2018. 8. 23 ~ 8. 24, 가나자와시
- 참　　가 : 부산시 대표단 6명(건축전공 대학생 등)
- 내　　용 : 가나자와시 건축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



아카펠라타운 공연

- 기간·장소 : 2018. 8. 25 ~ 8. 26, 가나자와시
- 참　　가 : 2개 팀(나린, 르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 내　　용 : 가나자와시 아카펠라타운 공연,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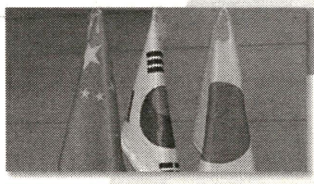


재즈스트리트 공연

- 일 시·장소 : 2018. 9. 15 ~ 9. 17, 가나자와시
- 참　　가 : 1개 팀(재즈그룹 퀸텟)
- 내　　용 : 가나자와시 재즈페스티벌 공연, 문화탐방

V. 2018년 주요성과

V. 2018년 주요성과



☑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로 우호협력 증진

문화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이해하여 문화도시간 상호우호를 증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



☑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도약의 기회 마련

문화교류행사 개최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우수한 문화 상호 교류로 한중일 문화도시의 문화예술 발전 기회 마련



☑ 문화도시로서의 자리매김으로 시민 자긍심 고취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핵심행사 등을 통해 문화도시 부산 조성 기여 및 시민 자긍심 고취, 국제문화교류도시로서 이미지 부각



☑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도모

지속적인 문화교류와 발전방안을 담은 문화도시간 공동선언문 발표・추진으로 도시간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도모

VI. 2019년 후속사업 계획

Ⅵ. 2019년 후속사업 계획

부산시 후속사업 계획

지속적인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 사업 목적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간 교류 확대 및 협력 강화
- 행 사 명 : 동아시아 문화의 숲
- 사업 기간 : 2019년 10월중 2일정도(예정)
- 장　　소: 부산시민공원내 잔디광장
- 내　　용: 시민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 교류공연 및 체험행사 축제를 통하여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3국간 연대 확립
- 사 업 비 : 245백여만원(시비 95백만원, 국비* 약150) *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정으로 변동 가능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회관(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안)

- 동아시아 문화교류 공연 : 한중일 예술단 합동공연, 동아시아 거리예술공연 등
- 동아시아 문화체험 행사 : 한중일 수공예 체험, 놀이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 가나자와시, 하얼빈시 2019년 후속사업 교류행사 적극 참여
  - 부산시립예술단 문화예술교류공연 등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II 발표자료

발제 2

동아시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정숙 •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동아시아 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

- 동아시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

2019.04.27(토)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9 심포지엄 발제
정 정 숙(Chung, Jeongsook)

* 이슈의 출발

우리가 추구하는 것

- 경제적 가치
  - 안정적 자본 축적을 통한 삶의 행복한 기초 형성
- 사회적 가치
  - 관계에서 인정, 공동체 안정
- 문화적 가치
  - 미적, 심리적, 창조적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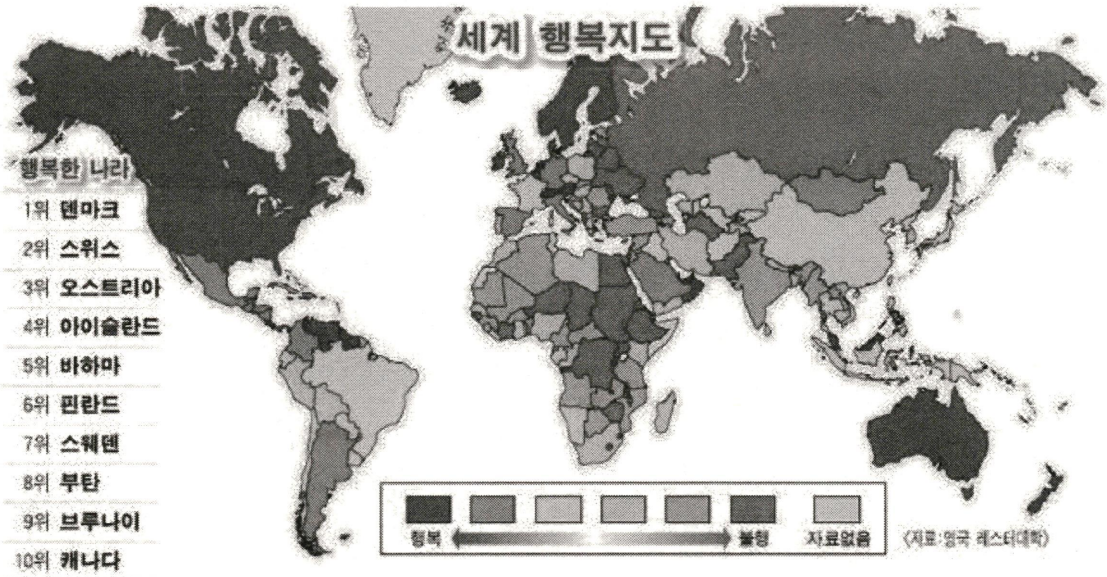
상황

- 경제적 욕망의 끝 없는 질주
  - 저성장기
  - 이스털린 역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 사회적 가치 충족의 미흡
  - 개인적 노력의 한계
- 문화적 가치의 인식과 방법론 미진
  - 필수 아닌 선택, 환상적 사고

미래 -동아시아 문화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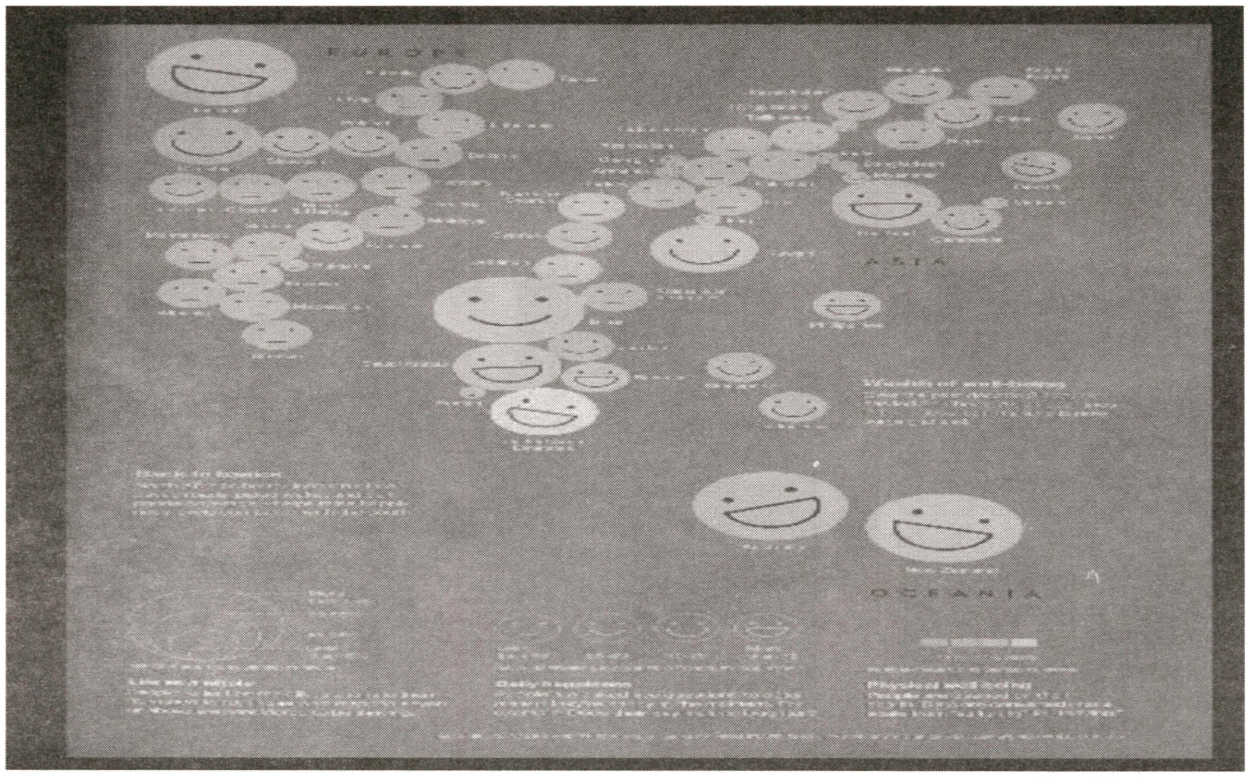
- 행복 발굴과 인식
  - 감수성, 마음근육
  - 문화시민, 문화다양성
- 행복 향유
  - 자책과 자기검열 해제
  - 역사, 기억, 민주, 연대(인류고뇌)
- 행복 나누기
  - 나누면 배가되는 것
  - 나, 사회, 동아시아, 인류 연결

세계행복지도(1)-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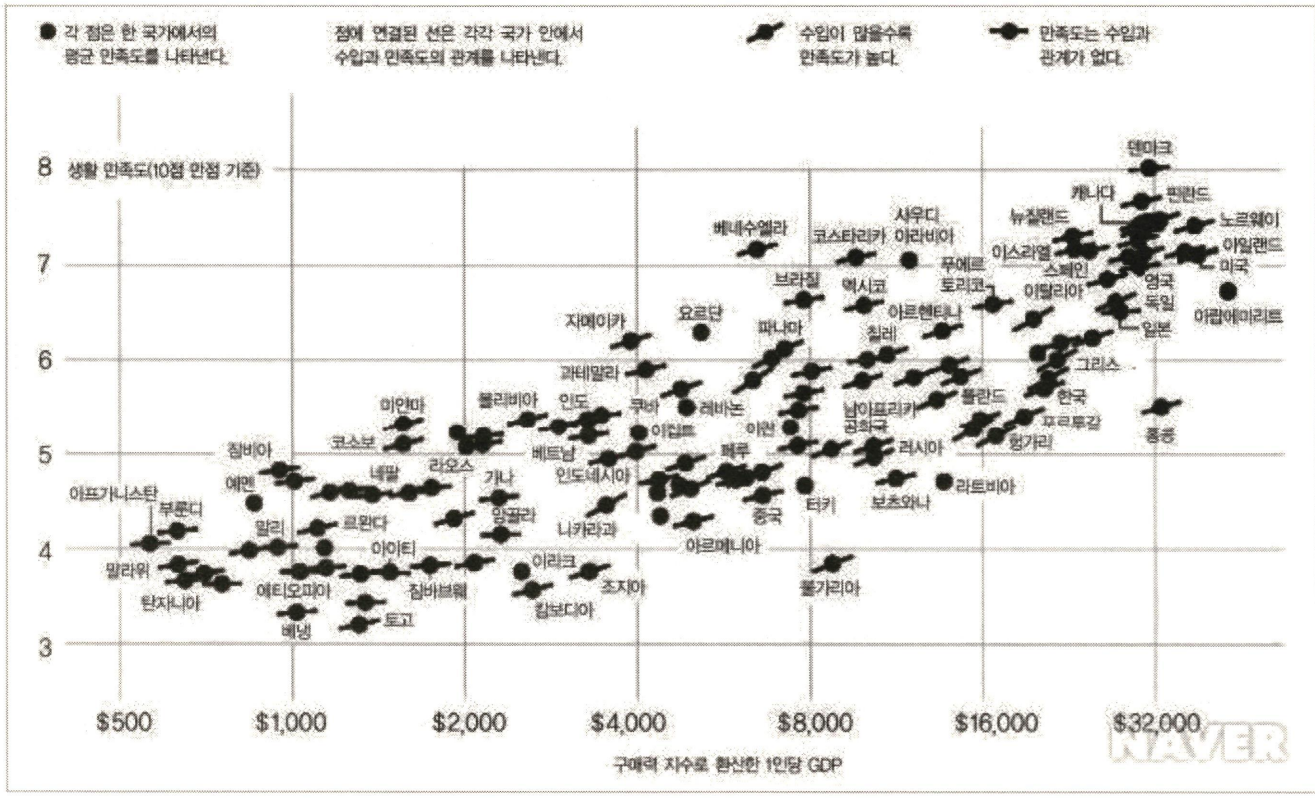


행복한 나라
1위 덴마크
2위 스위스
3위 오스트리아
4위 아이슬란드
5위 바하마
6위 핀란드
7위 스웨덴
8위 부탄
9위 브루나이
10위 캐나다
23위 미국
82위 중국
90위 일본
102위 한국

세계행복지도(2)- 2016년



경제와 만족도/ 정통설 ←---→ Easterlin paradox



출처: 2006년 갤럽의 조사-1인당 GDP와 생활에 대한 만족도 관계

행복에 대한 견해(Sissela Bok, *Exploring Happiness*)

이성적, 도덕적, 비관적, 쾌락적, 열정적, 이타적 관점에서의 행복관

- **이성적**
  - 합리적 계획, 확신 (롤즈)
- **도덕적**
  - 죽은 후에 판단 (아리스토틀)
- **비관적**
  - 속는 것 (조너선 스위프트)
- **쾌락적**
  - 모두 자기 방식 (시셀라복)
- **열정적**
  - 선택, 연습 필요 (노먼필)
- **이타적**
  - 공감능력 (벤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취지

* 한중일 3국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및 우호 증진

- 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결정
- 3국 문화다양성 존중의 기치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 실천

---

* 주요내용:- 개·폐막식, 축하행사,
  - 3국간 문화행사 및 상호초청
  - 공동 문화예술사업 추진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지정과 정례화

한국	중국	일본
2014년 광주	2014년 취안저우	2014년 요코하마
2015년 청주	2015년 칭다오	2015년 니가타
2016년 제주	2016년 닝보	2016년 나라
2017년 대구	2017년 창사	2017년 교토
2018년 부산	2018년 하얼빈	2018년 가나자와
2019년 인천	2019년 시안	2019년 도시미구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사업 내용

* 선정 기준

- 도시역량(문화계획, 문화예산, 문화조직, 국제문화교류실적)
- 사업추진계획(추진조직, 계획과의 연계, 행사 구체성과 가능성, 기관협력, 주변지자체연계, 홍보마케팅)
- 지역문화발전계획(균형발전, 동아시아문화교류 확산 가능성)
- 재원조달계획(사무국 및 사업추진 예산확보계획 적정성)

---

* 사업: 도시브랜드형 문화행사(예술행사, 학술행사, 축제 등)
3국 문화도시의 상호초청(개폐막식 공연 등)
공동 문화예술사업(청소년캠프, 연극제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미래: 내포와 외연의 활성화 방향

지속, 안정화

- 6년간 단절없는 지속화
- 도시간 쌍방향 교류 실행
- 지명도 축적 중
- 도시 수요 확산

내포 심화

- 공동사업 강화
- 쌍방향교류 지정 이후 지속
- 시민참여 확대
- 성과 검토 및 공유

외연 확대

-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 권역 확대
- 유사도시 문화교류
- 특화사업개발

동아시아 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1~2)

1.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화
   - 1단계: 기존의 문화도시 및 예비후보 도시 간 연 1~2회 국내 네트워크화
   - 2단계: 3개 문화도시 간 공동사업 정례화, 참여 도시 확대
   - 3단계: 국내 네트워크 안정 후 국외 네트워크화

2. 권역 확대: 동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참여국가 오픈
   - 1단계: 동남아시아 권역
   - 2단계: 중앙아시아 권역
   - 3단계: 서, 남아시아 권역

동아시아 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3)

3. **유사 도시 프로그램과의 교류 시도 및 네트워크 정례화**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04년 출발

- 7개 분야: Crafts and Folk Arts, Design, Film,Gastronomy Literature, Media Arts, Music

취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의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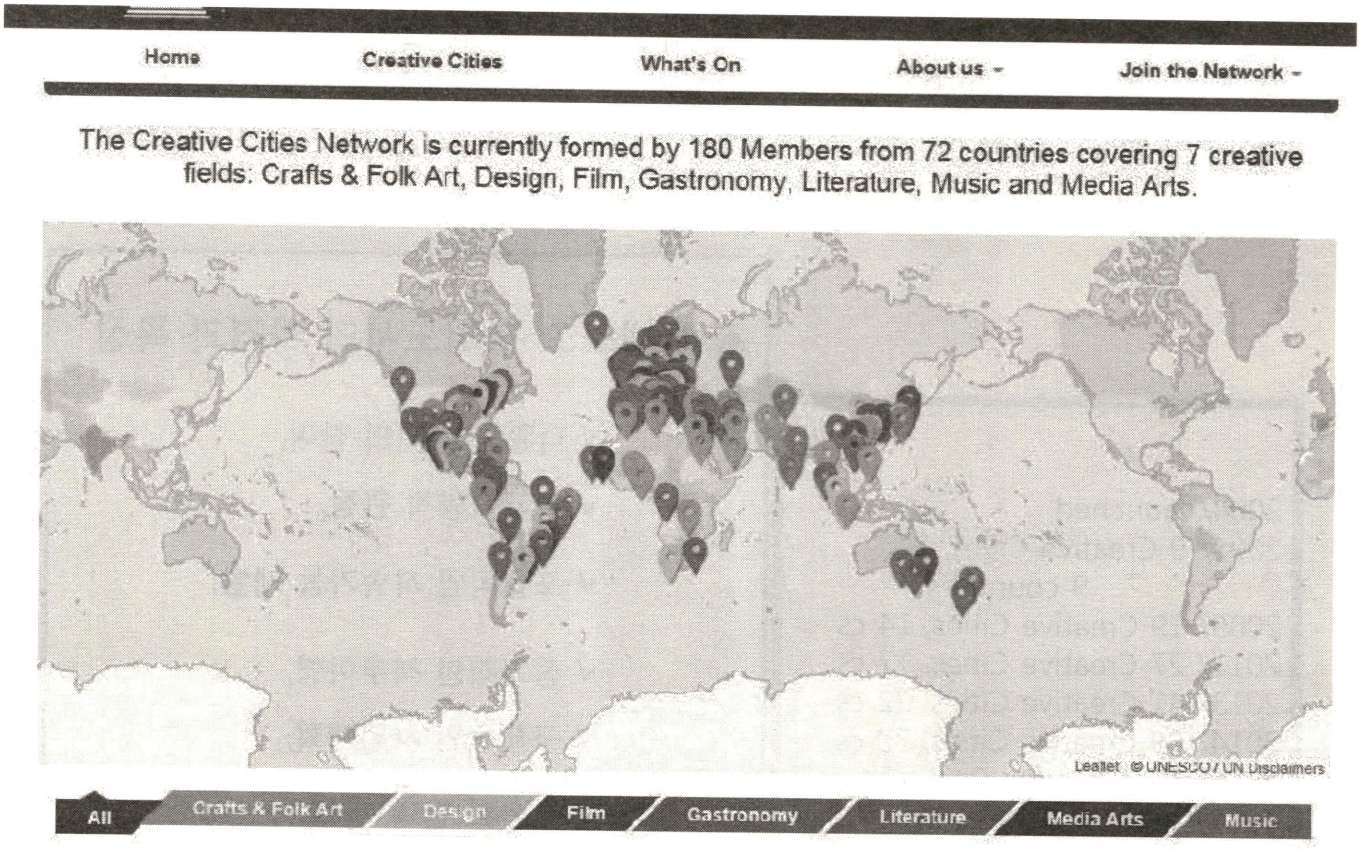
활동: 1. 우수사례 공유, 2. 파트너십 발전, 3. 문화생활 참여 강화, 4. 도시발전계획에 문화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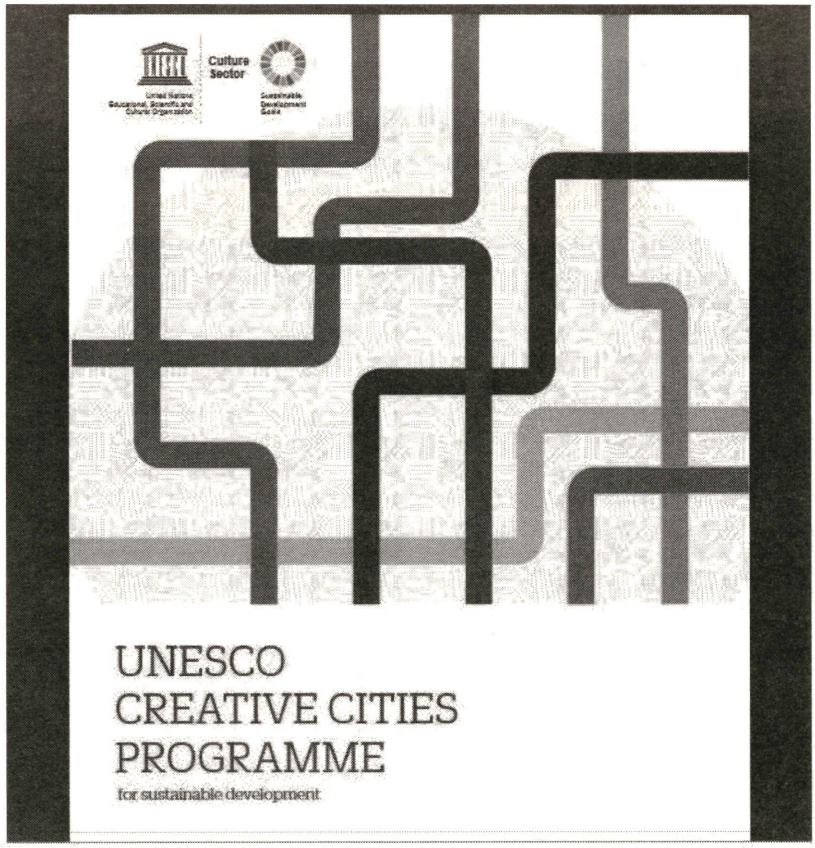
▲ 유네스코의 정신(유네스코 헌장, 1945년 제정),

√ 평화의 방벽은 마음 속에 세워져야 한다
√ 인류는 지적, 도덕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 평화 건설

*** 유네스코 헌장 전문(일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 중략....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을 위한 자격과 특징

2004/ launched
2008/ 9 Creative Cities,
9 countries
2009/ 19 Creative Cities, 14 cs
2011/ 27 Creative Cities, 17 cs
2013/ 41 Creative Cities, 22 cs
2014/ 69 Creative Cities, 32 cs
2016/ 116 Creative Cities, 54 cs
2017/ 180 Creative Cities, 72 cs

▲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자격과 특징

√ 다양한 주체의 참여,

√ 미래지향적 관점,

√ 포괄적인 지속가능 개발,

√ 장기적인 책무이행,

√ 구체적인 사업계획,

√ 교류와 협력 계획,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동아시아 3국의 현황(2017년 기준)

▲ 중국: 12개 도시

▲ 일본: 8개 도시

* 4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한국: 8개 도시

서울(D)

이천(C)

전주(G)

부산(F)

광주(Me)

통영(Mu)

부천(L)

대구(Mu)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교류 및 협력 사례

▲ 한국 이천: 시민포럼,
자매결연(산타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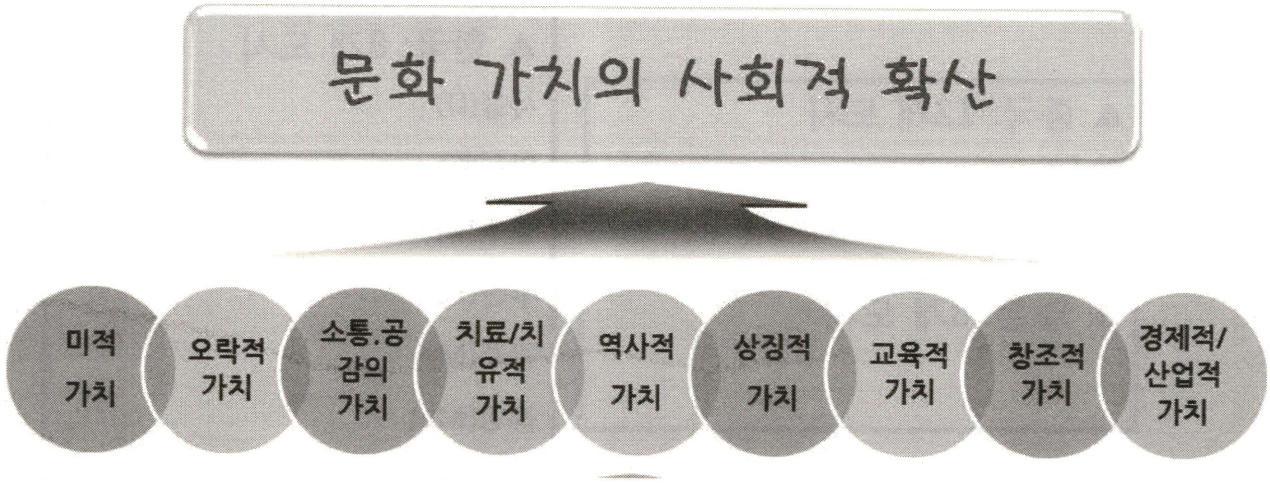
▲ 전주: 포럼(국내외)
창의도시 등 14건MOU

▲ 중국
- Shenzhen: 디자이너상
all 디자인 창의도시 대상

▲ 일본
- 2013 요코하마시 CCNJ(77회원)
2020년 170개(10%)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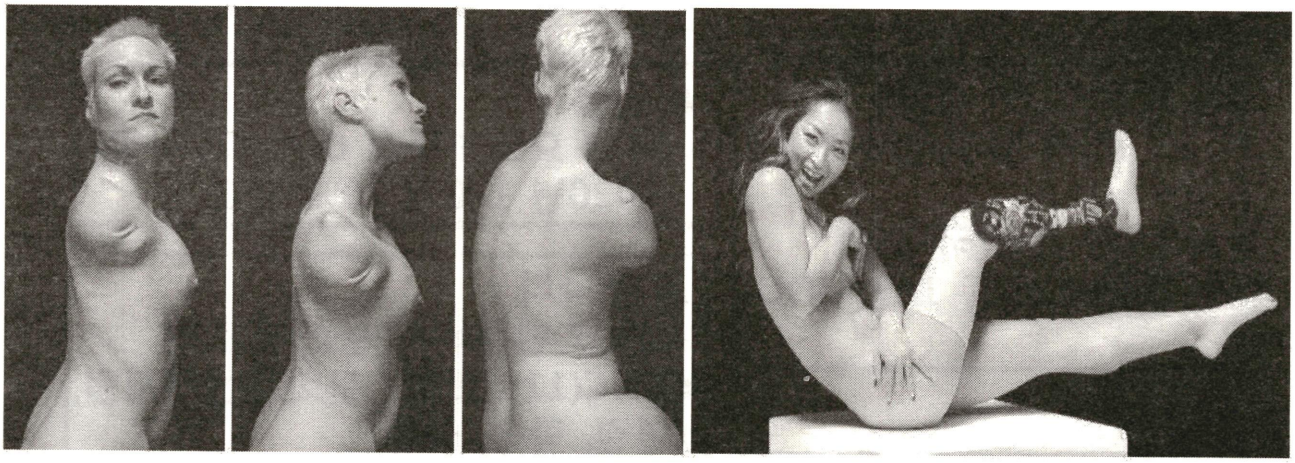
▲ 캐나다
- 1997 벤쿠버시 문화부 조직
CCNC(113 회원), 문화유산부지원,
/연결, 학습, 공유
/ 연구(통계), 정보서비스
- CCNC Awards: 4개분야
문화기획, 공공예술,
문화이벤트, 문화리더십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공동 보편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외연 확대 방안(4): 특화사업 개발

아도르노: '인류 고뇌'에 대한 연대가 진정한 연대 -->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그림> 영국의 장애 예술가 앨리슨 래퍼(Alison Lapper)의 신체 사진 작품

<그림> 일본의 장애인 육상선수 나카니시 마야의 세미 누드 달력 사진 (오치 다카오 작품)

결론: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궁극적인 지향(1)- 문화다양성 이해

문화행사 참여 및 활동을 통한 행복--> 교류를 통해 행복 심화 및 증진 기회 --> 문화다양성 이해와 실천 및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1 문화 유산 관람
- 박물관, 공원 등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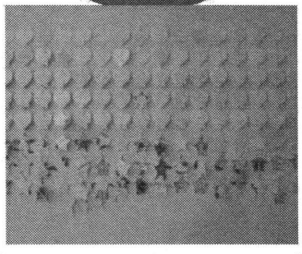
2 고유상품 구매와 향유
- 기념품 구매 - 관광효과

3 공연과 전시의 공유
- 공연과 전시
- 경제적 부대효과 창출

지향(2): 자기 표현을 이끌어내는 행사 참여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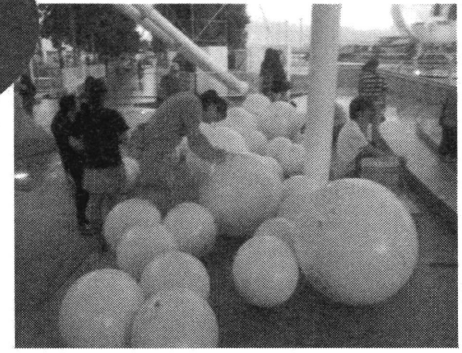
체험과 기억을 통해 자기와 타인 존재감과 관계 확인--> 체험 기회 확대로 행복

1 포스트잇 후기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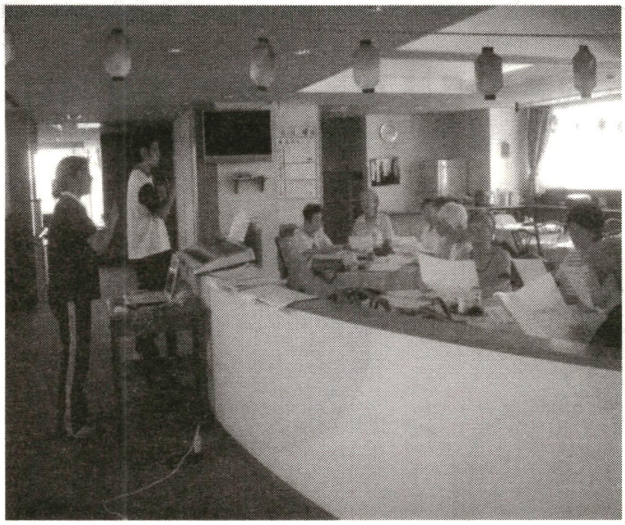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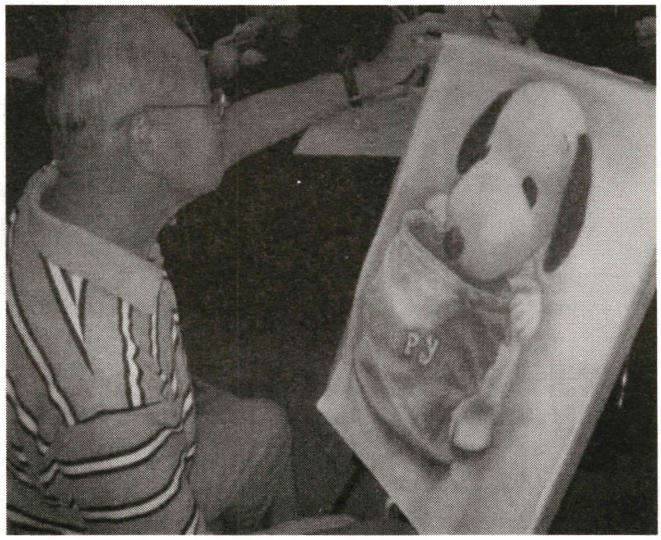
2 체험 포토
-소망,
- 일상화





지향(3): 자기 표현을 자신이 하는 주인으로서의 삶





감사합니다.

II 発表資料

提案 3

豊島区
市民とともに進める文化によるまちづくり
東アジア文化都市2019豊島

小澤 弘一

豊島区国際文化プロジェクト推進担当部長。
1958 年10 月生まれ
豊島区企画課長、文化デザイン課長、文化商工部長等を経て、
2018 年4 月より 現職。

오자와 코이치

도시마구 국제문화프로젝트 추진담당부장.
1958년 10월생.
도시마구 기획과장, 문화디자인과장, 문화상공부장 등을 거쳐서
2018년 4월부터 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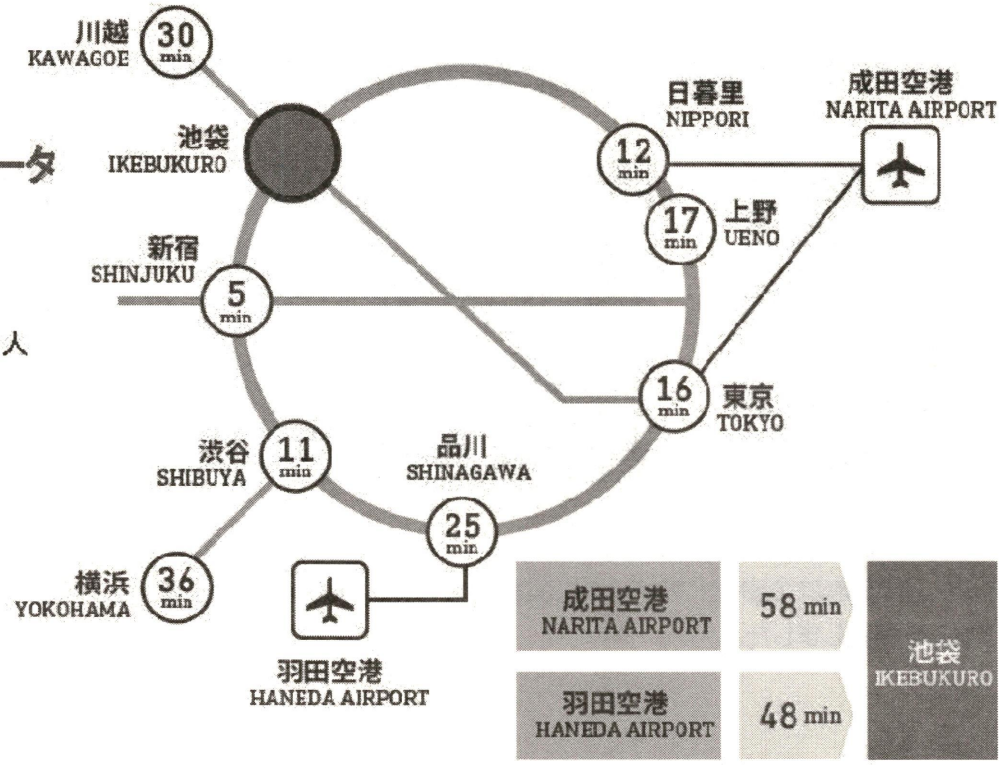
豊島区の基礎データ

(2019年4月1日現在)

人口:289,573人
うち外国人数 29,455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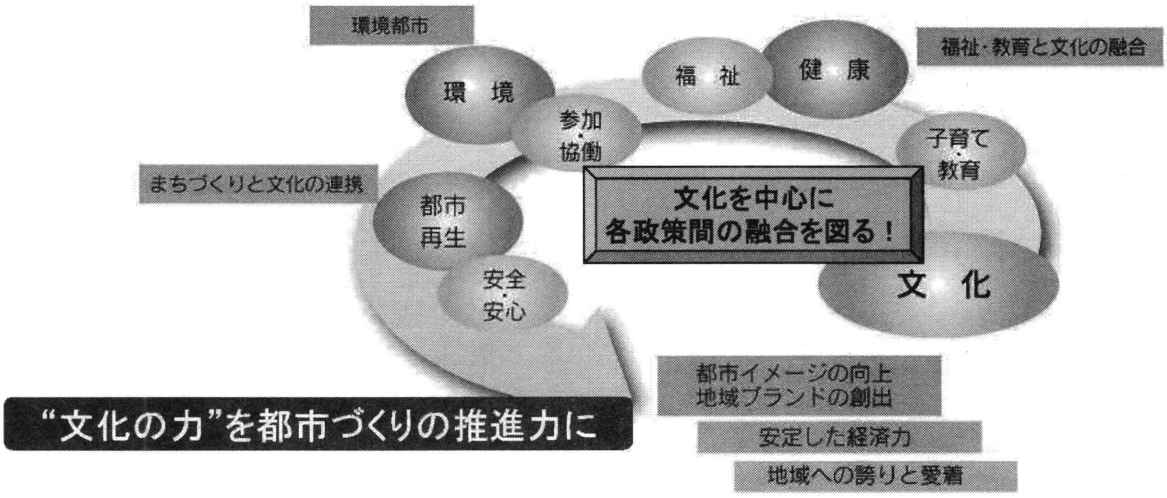
面積:13.01㎢

羽田空港から48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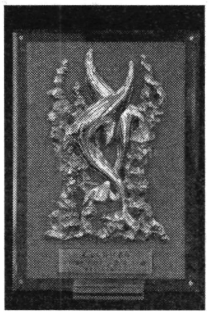


文化創造都市づくり 문화 창조 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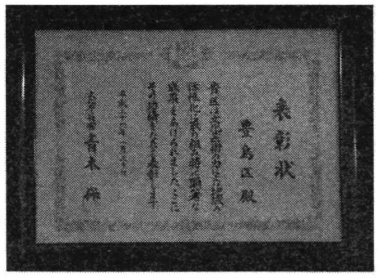
逼迫した財政状況による閉塞感を打開するため、2002 年に文化によるまちづくりをはじめ、2005年、文化による活力ある創造的なまちづくりを推進するため、「文化創造都市宣言」を行いました。



文化庁長官表彰〔文化芸術創造都市部門〕2009年受賞!!







地域の特色を生かした文化芸術の振興に、行政と住民との協働、行政と企業や大学との協力等により取り組み、他の地域の参考になるような実績を挙げている市区町村を選定し、表彰する「文化芸術創造都市部門」、を受賞しました。

豊島区文化政策の歩み

2003年 基本構想にて「伝統・文化と新たな息吹が融合する文化の風薫るまち」を基本方針に

▼

2005年 文化創造都市宣言

▼

2006年 文化芸術振興条例

▼

2009年 文化庁長官表彰〈文化芸術創造都市部門〉受賞

2010年 文化政策推進プラン

▼

2015年 国際アート・カルチャー都市構想

▼

2016年 国際アート・カルチャー都市構想実現戦略

2018年　東アジア文化都市　正式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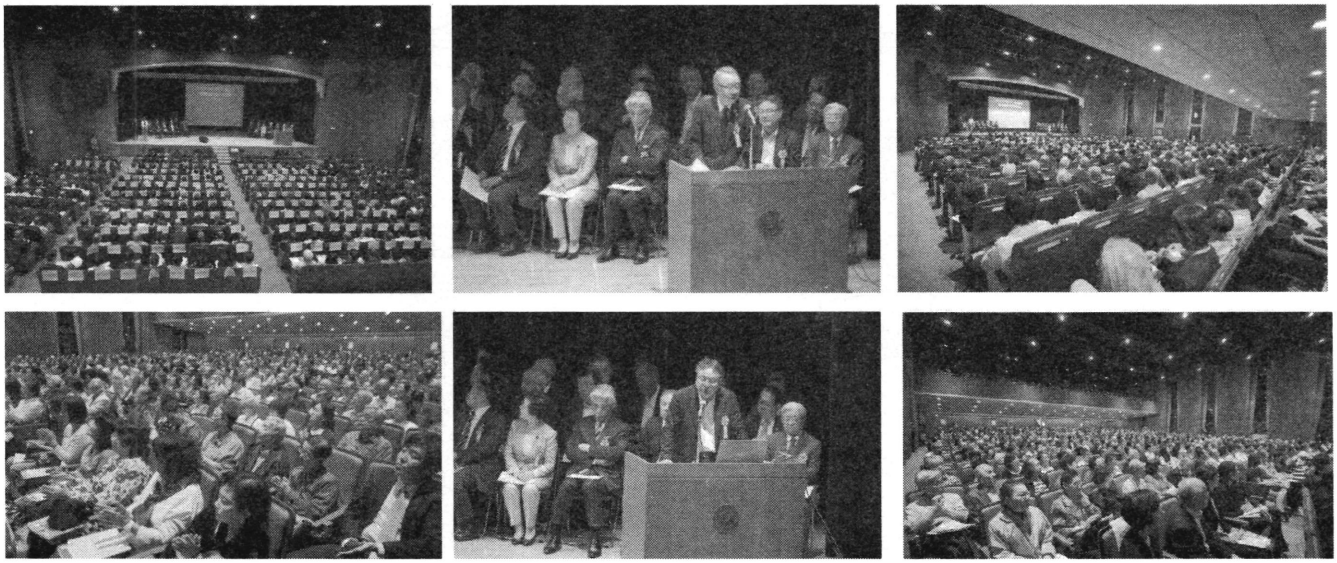
豊島区 | 日本
Toshima-City | Japan
丰岛区 | 日本
토시마구 | 일본

西安市 | 中国
Xi'an City | China
西安市 | 中国
서안시 | 중국

仁川広域市 | 韓国
Incheon Metropolitan City | Korea
仁川广域市 | 韩国
인천광역시 | 한국

「東アジア文化都市」国内候補都市決定報告会

2017年10月3日　　参加者:1,059名



東アジア文化都市2019豊島　推進協議会

文化・芸術分野だけでなく、まちづくり、福祉、教育、子育てなどあらゆる分野で活躍している区民等が主体的に参画し、 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を盛りあげる区民会議体（350名）を設置。

2018年7月17日





「東アジア文化都市」シンポジウム

2018年11月3日　　参加者:1500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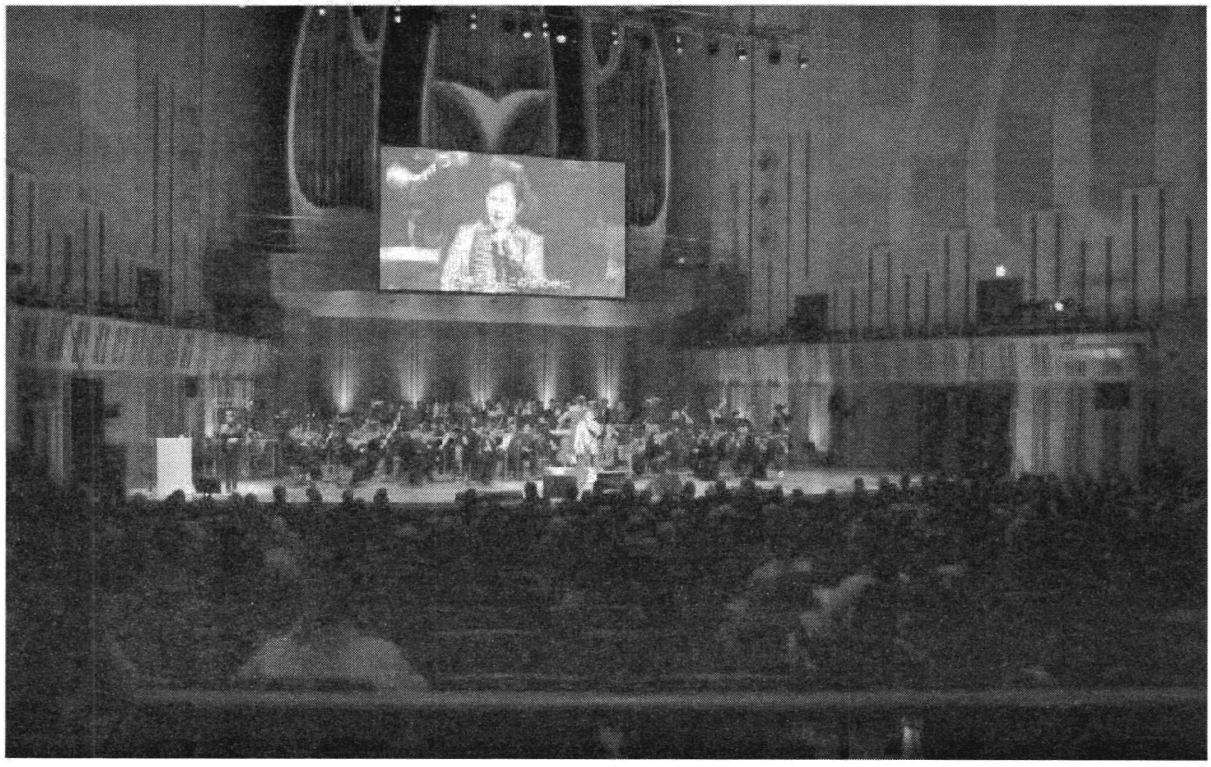
1万人で歌う「わたしは未来」プロジェクトが始動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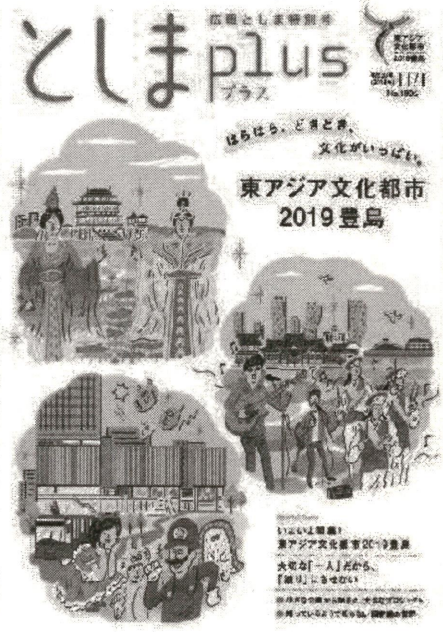
区内の小中学校の児童・生徒1万人が、日中韓3国のこころをつなぐ歌「私は未来」を3か国語で合唱します。
2月1日の開幕式典で披露しました。

「東アジア文化都市2019豊島」開幕式典
2019年2月1日　　参加者:2000名



広報誌「東アジア文化都市」特集号を発行







街中を「東アジア文化都市」で彩りました








Culture City of East Asia
東アジア文化都市
東アジア
文化都市
2019


東アジア文化都市 2019
1 Hareza(ハレザ)池袋
2019年秋オープン
2019年秋オープン
8つの劇場が圧倒的な盛かいをうみだし、
誰もが主役となれる劇場都市のシンボル
カラオケ
JOYSOUND

1　マンガ・アニメの聖地　という豊島区のブランディングを確立します。

PRアニメを活用し、「はらはら、どきどき、文化がいっぱい」そして「誰もが主役になれる街・池袋」を世界に向けて発信します。世界を席巻するメインカルチャーである「コスプレ」や世界標準のマンガ・アニメイベントをよりパワーアップして展開します。





提供：池袋ハロウィンコスプレフェス2018/niconico

2　豊島区を誇りに思えるイベントを展開します。



中国国家話劇院「リチャード三世」



韓国国立劇団「殺し屋ですのよ」



マハーバーラタ
～東アジア文化都市2019豊島バージョ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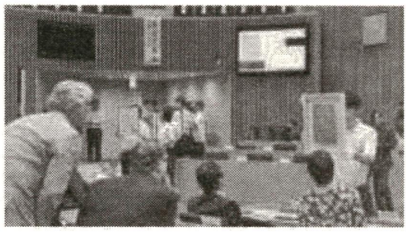
3　中韓交流の視点の事業を様々な分野横断して展開します。

三本の柱以外にも、アートなどの分野での展開を図ります。また区のすべての施策との連携を行います。ます。



←パラアート展
世界中の作家の作品を展示し、中韓の作家を招聘します。

アート・オリンピア→
区庁舎を会場に公開審査と受賞作品展を開催。特に、中韓の特別枠を設け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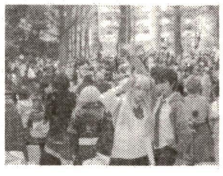
4　気運醸成と区民参加を図り、オール豊島を実現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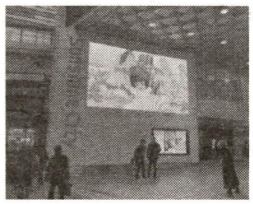
区民のみなさんには、イベント等に参加いただく他に主体となって事業を実施できるよう、提案事業を公募しました。
広報連携にも多くの区民、企業のみなさんに協力いただいています。











5　子どもたちの参加を促し、次の時代を担う人材を育成します。

子どもに見せたい舞台など、次の時代を担う子どもを対象にしたイベントを充実させます。
1万人で歌う「私は未来」プロジェクトでは、区内の小中学生をはじめとして日中韓の子どもたちで日中韓の心をつなぐ歌「私は未来」を大合唱することで、3か国の相互理解を促進させます。



10000人で歌う「私は未来」プロジェクト



子どもに見せたい舞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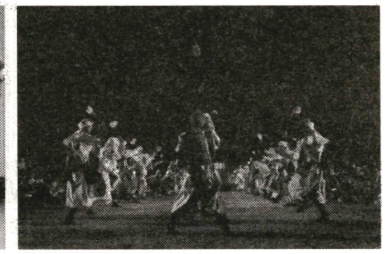


子どもスキップまつ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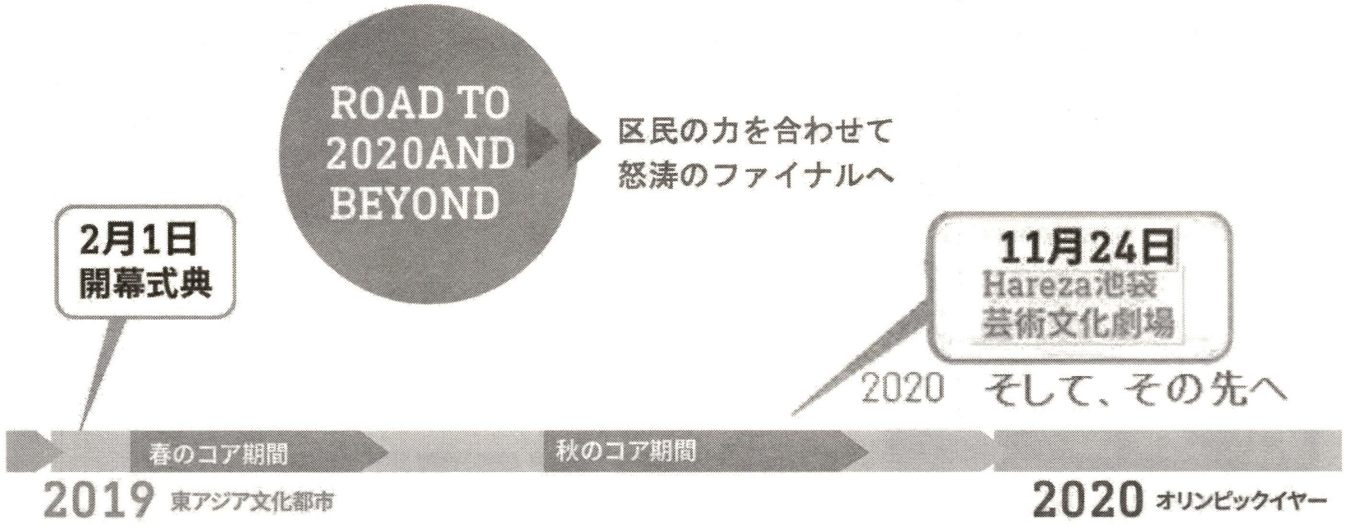
6　年間を通じて各所で開催されているイベントも、装いを新たに日中韓交流の視点をとりいれ、持続可能な事業展開を図ります。







7　2020東京大会への気運を醸成し、さらなるステップアップへ



最後に

豊島区は、厳しい財政状況においても、一貫して市民とともに「文化によるまちづくり」を進めてきた。

豊島区は、文化によって、今、東京で一番勢いのあるまち、元気のあるまち、注目されるまちになった。

東アジア文化都市を契機に
さらなる発展をめざしてまいり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東アジア
文化都市
Culture City of East Asia 2019 Toshima
2019豊島

II 発表資料

提案 4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文化都市の特徴

太下義之

1962年生まれ。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卒業。専門は文化政策。博士（芸術学）。独立行政法人国立美術館理事、公益社団法人日展理事、東京都芸術文化評議会委員、公益財団法人静岡県舞台芸術センター（SPAC）評議員など文化政策関連の公職・委員を多数兼務。

오시타 요시유키

1962년생.
게이오 기주쿠 대학 경제 학부 졸업.
전문분야는 문화정책. 박사(예술학).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이사
공익사단법인일전 이사
도쿄도 예술문화평의회 위원
공익재단법인 시즈오카현 무대예술센터(SPAC)
평의원 등 문화정책 관련 공직·위원을 다수 겸무.

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文化都市の特徴

太下義之

イントロダクション

こんにちは。
私は、今日このように機会を提供していただいた、仁川市のみなさまに感謝したい。
第一に、私は自己紹介したい。
私は日本の太下義之である。
私は文化政策の研究者で、日本の国立美術館の理事を務めている。
そして、私は、東アジア文化都市の、2016京都、2017金沢、および2018豊島区のアドバイザーの1人である。
今日、私は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文化都市の概要についてみなさんに話したい。
続いて、私は日本の東アジアの文化都市の特徴をお話ししたい。

横浜市

2014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横浜市であった。
横浜は東京の近郊に位置しており、人口は370万人で、日本の中で2番目に大きい都市である。
200年にわたる鎖国の後に、1859年に日本が世界に開国した時の、最初の商業用の港の1つが横浜であった。それから横浜は、日本の近代化のゲートウェイとなった。
現在、横浜はポピュラーな観光地である。
そして、横浜は、東京エリアの主要な商業用のハブ港湾でもある。
東アジア文化都市2014横浜の主要なプログラムは、横浜Triennaleであった。
横浜Triennaleは、2001年以来3年ごとに、横浜で開催されているコンテンポラリー・アートの展覧会である。
展覧会は国際的に有名なアーティストや今後有望なアーティストを集めて、コンテンポラリー・アートの最新の傾向と表現を示した。

新潟市

2015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新潟市であった。
新潟市は東京から北北西に250km、新幹線で首都から2時間の位置にある。

新潟市の人口は80万人以上である。
広大な越後平野の肥沃な土地は、良質な米と農産物を生産する。
新潟市は、日本海、信濃川、阿賀野川、潟および湿地などの、豊かな自然な環境も持っている。
信濃川は日本で最も長い川であり、新潟市の中心部を通って流れて、海に注いでいる。
この川の存在および川に関わる人々の活動とのインタラクションが、さまざまな伝統的な文化やライフスタイルを生み出してきた。
そこで、新潟のユニークな文化を現代アートを通して探り、いっそう魅力的にするために、2009年以来「水と土の芸術祭」が開催されている。
そして2015年には、この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は東アジア文化都市2015新潟の主要なイベントのうちの1つとして開催された。
展覧会の主要なサイトは「KATA（潟）」であった。
潟は、外海と分離してできた小規模な湖や沼のことであり、新潟のアイデンティティである「水と土」のシンボルでもある。
展覧会および様々なアート関連のプロジェクトは、人々が潟を訪問すること、学ぶこと、および経験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と土地との関係、および自分たちの祖先について考える契機となった。

奈良市

2016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奈良市であった。
奈良は、日本の関西地方に位置する奈良県の県都である。
奈良市は奈良県の北部の地域を位置し、京都府と接している。
日本の首都が京都に移転する前に、710年から784年まで、天皇が奈良にいた。
そして、奈良の8つの寺院、神社は、UNESCO世界遺産「古都奈良の文化財」である。
「東アジア文化都市2016奈良」は、3つのキー・プロジェクトから構成されていた。その3つとは、「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ビジュアル・アート」および「食文化」である。
このうち、「ビジュアル・アート」の主要なプログラムは、「8つの神社と寺院のアートプロジェクト」であった。世界遺産である奈良の神社と寺院に、国際的に有名なアーティストのアートワークがインストールされた。

京都市

2017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京都市であった。
京都市は、日本の関西地方に位置する京都府の府庁所在地である。
京都は、794年に遷都されてから1000年以上の長い間、日本の首都として繁栄した。
清水寺寺院、上賀茂神社、および他の12の京都の文化財は、UNESCO世界遺産サイトリストにおいて「古代の京都の歴史的な記念碑」として登録されている。

また、京都はその洗練された文化で、世界中からの訪問者を魅了し続けている。
現在の京都は、6000万人以上の国内観光客、および300万人以上の外国からの宿泊客によって、世界のトップ観光目的地のうちの1つとなっている。
東アジア文化都市2017京都の主要なプログラムは、「アジア回廊コンテンポラリー・アート展」であった
この展覧会はUNESCO世界遺産サイトの一つ、二条城で開催された。
韓国中国、および日本からの様々な世代の国際的に有名なアーティストたちがこの展覧会に参加した。

金沢市

2018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金沢市である。
金沢は、石川県の県都であり、人口は45万人である。
金沢は本州の日本海側に位置する、北陸地方で最大の都市である。
江戸時代の金沢は、100万米石の地価を誇り、加賀藩の前田一族が所領する城下町として繁栄した。
400年より長い間、戦争の影響から隔離されてきたため、金沢の中心部は、市民生活を通じてその歴史的な都市の風景および伝統的なアート、Kougei（工芸）、および食文化を今日まで維持している。
特に金沢は、craftまたはKougei（工芸）の都市として知られており、2009年にUNESCO創造的都市ネットワークのクラフト&フォークアートの都市として認められた。
東アジア文化都市2018金沢の特別なイベントは、「価値創造増進プロジェクト」である。
このプログラムは、金沢を象徴するKougei（工芸）の文化的な産業を、他の文化と異種交配して、新しい価値を創造しようというものである。
例えば、
Kougei（工芸）異種交配建築
Kougei（工芸）異種交配子供
Kougei（工芸）異種交配食物テクノロジー
Kougei（工芸）異種交配精神性。

豊島区

2019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豊島区である。
豊島区は東京大都市圏の8つの中心的な区のうちの1つである。
東京の北のエリアに位置している。
豊島区の人口は約30万人であるが、このうち約2万人、8%は非日本人であり、東京の中で最も国際的な地区の1つとなっている。
豊島区の中心である池袋駅は、鉄道交通の主要なハブであり、池袋駅は日本の中で2番目に乗降客数が多い駅である。

池袋は豊島区のコマーシャルと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センターでもある。
東アジア文化都市2019豊島区には3人のディレクターがいる。
1番目は、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のディレクターである。
2番目はマンガ&アニメのためのディレクターである。
3番目は、伝統的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 他のイベント のためのディレクターである。
また、豊島区には、アートと文化のためのサポートグループとして約1400人の特別大使がいる。この事実は特別に言及されるべきである。

北九州市

2020年の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北九州市である。
北九州市は、九州島の北部に位置しており、日本の中ではアジアの国に最も近い地域である。
北九州はその便利な位置のためアジアへのゲートウェイとして繁栄してきた。
北九州市は、100万人の人口を有する、国際的な都市および産業基地である。
今日、北九州市は、持続可能な開発の世界首都、およびアジアの技術的な首都を目指している。
東アジア文化都市2020のための特別なイベントは、
マンガ&アニメを含むアジアのメディア・アートフェスティバル、
東アジア文学会議、
そして、UNESCOの世界遺産としての「ヤワタ製鉄および関連した設備」での文化イベント、などである。

日本の東アジアの文化都市の特徴

ここまでで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最初の部分を終える。
次のセクションに前進しよう。
私は日本の東アジアの文化都市の特徴について話したい。
私は、日本の東アジアの文化都市には、4つの特徴があると考えた。

小型および中型サイズの都市

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は大都市だけでなく、小型およびの中型の都市で開催されている。
特に、金沢市の人口は47万人である。
奈良市の人口は36万人である。
そして、豊島区は30万人である。
この種類の現象は他のアートプロジェクトにおいてもすでに起こっていた。
100を超えるアートプロジェクトが、小型およびの中型の都市を含む日本全国で開催されている。これは、世界の中でも、特に日本においてユニークな現象である。

この状況の背景には江戸の期間がある、と私は考える
江戸期間は日本の歴史のうち1603年から1868年までの期間である。
江戸期間は250年にわたる安定性を日本にもたらした。
この期間は、文化的多様性、経済成長、孤立主義的な外交方針、および庶民の文化によって特徴付けられていた。
現在の日本で開催されている100を超えるアートプロジェクトがこの文化的な多様性を継承している、と私は考える。

市民

別の特徴は、どのセクタが主要な役割であるかである。
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の運営においては、市民のイニシアチブの役割が非常に重要である。
特に、豊島区においては、アートと文化のためのサポートグループとして約1400人の特別大使がいる。
そして、金沢市では、民間企業のエグゼクティブの協会が文化と芸術の振興に主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
「新潟Jiman」、または「新潟を誇っている」は、東アジア文化都市2015新潟のためのオリジナルの歌であった。そして、市民はこの歌のプロモーション用のビデオ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た。

ユニークサイト

3つ目の特徴は「ユニークサイト」である。
EU文化首都においては、新しい施設が建設されるケースがたくさんある。
一方では、日本では、各都市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象徴しているユニークなサイトが、東アジア文化的都市のために利用されている。
結果として、市民は自分が暮らす都市を誇ることができる。
そして、コミュニティの連帯感などの市民の意識的な変化にも寄与している。

食文化とマンガ

日本においては、狭い感覚の「文化」だけではなく、広い感覚での「文化」が振興の対象となっている。
具体的には、食文化とマンガが含まれる。
「食文化」という言葉は、日本で文化の振興の法律にはっきりと書かれている。
また、日本では、マンガ文化は、約800年前に描かれた絵巻物を起源とする、際立って特徴的な文化であると認められている。

以上の通り、4つの特徴が日本の東アジア文化都市にはあると私は考えている。

希望と予想

今や、私は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最後に達している。
東アジア文化都市は、個々の都市が持っている文化的な資源、およびその可能性を最大限に利用する事業である。
その効果および影響は、文化の分野にだけに留まるものではない。
それらは、教育、観光、産業の活性化、地域の振興およびさまざまな政策分野に寄与する。
すなわち、東アジア文化都市単なる文化的なイベントではない。
それは都市のための長期的な発展戦略である。

ノーベル平和賞を勝ち取るために
一方で、現在の世界の情勢は、国家と国家との間の政治的関係がプレッシャーの下に置かれている。
従って、都市と都市との関係構築、市民と市民との文化交流には、高いニーズがある。
東アジア文化都市のゴールは、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相互理解の促進および団結の感覚を醸成することである、と私は考える。
このゴールは、東アジアの国家の間の平和的関係の構築と維持に大いに寄与するであろう。
そして、東アジアの3つの国家、日本、中国、および韓国の未来に大きい希望を提供することを、私は期待したい。
私は、それが、ノーベル平和賞を受け取る価値があるよと信じている。
ノーベル平和賞の理由は、過去の達成だけではなく未来のための希望と予想によって受賞されることがあるからだ。

エンディング
これで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終わりとなる。
私は、みなさまのご清聴に感謝して終わりたい。

일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특징

오시타 요시유키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인천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 나는 일본의 오오시타 요시유키라고 합니다.
나는 문화정책의 연구자로, 일본의 국립미술관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2016교토, 2017가나자와,및 2018도시마구의 어드바이저 중 1명으로 일해 왔습니다.
오늘 먼저 일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코하마시

2014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요코하마시였습니다.
요코하마는 도쿄 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70만명이고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200년에 걸치는 쇄국정책 후, 1859년에 일본이 세계로 개국했을 때, 최초로 만들어진 상업용 항구 중 하나가 요코하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코하마는, 일본의 근대화 게이트웨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요코하마는 인기가 좋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요코하마는 도쿄 지역의 주요 상업용 허브 항만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4요코하마의 주요 프로그램은, 요코하마 Triennale 이었습니다.
요코하마Triennale는 2001년 이래 3년마다 요코하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컨템퍼러리 아트의 전람회입니다.
전람회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와 앞길이 유망한 아티스트들을 모아, 컨템퍼러리 아트의 최신 경향과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니가타시

2015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니가타시이었습니다.
니가타시는 도쿄에서 북북서로 250km, 신칸센으로 수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인구는 80만명을 넘습니다.
광대한 에치고 평야인 비옥한 토지는, 양질의 쌀과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니가타시는, 동해(일본해), 시나노가와(천), 아가노가와(천), 늪 및 습지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노가와는 일본에서 가장 긴 강이며, 니가타시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흘러, 바다에 쏟고 있습니다.
이 강의 존재자체와 강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활동들의 interaction (상호교류)가, 다양한 전통적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니가타의 특이한 문화를 현대 예술을 통하여 탐색하고, 한 층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2009년 이래 「물과 흙의 예술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 예술 페스티벌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5니가타의 주요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서 개최되었습니다.
전람회의 주요 홍보 인터넷사이트는 「KATA(늪)」이었습니다.
늪은, 외해와 분리해서 생긴 소규모 호수나 늪이며, 니가타의 정체성인 「물과 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전람회 및 여러가지 예술 관련의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늪을 방문하고,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토지와의 관계, 및 본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시

2016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나라시이었습니다.
"나라"는,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 위치하는 나라현의 현도입니다.
나라시는 나라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토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가 교토로 이전되기 전에, 710년에서 784년까지, 천황이 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8개 사원과 신사는, UNESCO세계유산 「옛 도시 "나라"의 문화재」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2016"나라"」는, 3개의 주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3개는, 「퍼포밍·아트」「비주얼· 아트 」 및 「식문화」입니다.

이 중, 「비주얼· 아트 」의 주요 프로그램은, 「8개의 신사와 사원의 아트 프로젝트」이었습니다.
세계유산인 "나라"의 신사와 사원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의 아트 워크가 첨가되었습니다.

교토시

2017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교토시이었습니다.
교토시는,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교토부의 부청소재지입니다.
교토는, 794년에 천도되고 나서 1000년이상의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로서 번영했습니다.
기요미즈데라 사원, 가미가모 신사, 및 기타 12개의 교토 문화재는, UNESCO세계유산 사이트의 리스트에 있어서 「고대 교토의 역사적인 기념비」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또, 교토는 그 세련된 문화로, 전세계에서의 방문객들을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교토는 6000만명이 넘는 국내관광객과, 300만명이 넘는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의해, 세계 정상의 관광 목적지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7교토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시아 복도 컨템퍼러리 아트전」이었습니다.
이 전람회는 UNESCO세계유산 사이트 중 하나인 니조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중일의 다양한 세대의 아티스트들이 이 전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가나자와시

2018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가나자와시입니다.
가나자와는, 이시카와현의 현도이며, 인구는 45만명입니다.
가나자와는 혼슈의 동해(일본해)측에 위치하는, 호쿠리쿠 지방에서 최대의 도시입니다.
에도 시대의 가나자와는, 100만에 달하는 쌀수확량을 자랑하고, 카가번의 마에다 일족이 통치하는 조카마치(성 근교도시)로서 번영했습니다.
400년보다 오랫동안, 전쟁의 영향으로 격리되어 왔기 때문에, 가나자와의 중심부는, 시민생활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도시의 풍경 및 전통적인 예술, Kougei(공예),및 식문화를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자와는, craft 또는 Kougei(공예)의 도시로서 알려져 있어, 2009년에 UNESCO창조적 도시 네트워크의 크래프트 & 포크아트의 도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8가나자와의 특별한 이벤트는, 「가치창조 증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나자와를 상징하는 Kougei(공예)인 문화적인 산업을, 다른 문화와 이종교배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Kougei(공예) 이종교배건축
Kougei(공예) 이종교배어린이
Kougei(공예) 이종교배음식물 테크놀로지
Kougei(공예) 이종교배정신성.

도시마구

2019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도시마구입니다.
도시마구는 도쿄 대도시권에 8개의 중심적인 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마구의 인구는 약30만명이지만, 이 중 약 2만명, 즉 8%은 비일본인이며, 도쿄에서 가장 국제적인 지구 중 하나입니다.
도시마구가 중심인 이케부쿠로역은, 철도교통의 주요한 허브이며, 이케부쿠로역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수가 많은 역입니다.
이케부쿠로는 도시마구의 커머셜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9도시마구에는 3명의 디렉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포밍·아츠의 디렉터입니다.
두 번째는 만화 & 애니메이션을 위한 디렉터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 기타 이벤트를 위한 디렉터입니다.
또, 도시마구에는, 예술과 문화를 위한 서포트 그룹으로서 약1400명의 특별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언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큐슈시

2020년의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기타큐슈시입니다.
기타큐슈시는, 규슈섬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에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기타큐슈는 그 편리한 위치 때문에 아시아의 게이트웨이로서 번영해 왔습니다.

기타큐슈시는, 100만명의 인구를 소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 및 산업기지입니다.
지금의 기타큐슈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계수도,및 아시아의 기술적인 수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2020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는,
만화 & 애니메이션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동아시아 문학회의 그리고 UNESCO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야와타】제철 및 관련된 설비」에서의 문화 이벤트 등입니다.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특징

여기까지로 저의 프레젠테이션의 전반 부분을 마칩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저는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에는, 네 개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형 및 중형 사이즈인 도시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형 및 중형인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자와시의 인구는 47만명입니다.
나라시의 인구는 36만명입니다.
그리고, 도시마구는 30만명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예술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미 보여왔습니다.
100여가지가 넘는 예술 프로젝트가, 소형 또는 중형 도시를 포함하는 일본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도, 특히 일본에 있어서 독특한 현상이다.
이 상황의 배경은 에도시대의 기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도시대는 일본의 역사 가운데 1603년에서 186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에도시대는 250년에 걸치는 안정성을 일본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기간은, 문화적 다양성, 경제성장, 고립주의적인 외교 방침 및 서민적인 문화에 있어서 특징이 돋보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100여가지가 넘는 예술 프로젝트들은 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계승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또다른 특징은, 어떤 섹터가 주요한 역할인지입니다.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마구에 있어서는, 예술과 문화를 위한 서포트 그룹으로서 약1400명의 특별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시에서는, 민간 기업의 이그제큐티브 협회가 문화와 예술의 진흥에 주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가타Jiman」또는 「니가타를 자랑하고 있다」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5니가타를 위한 독자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이 노래의 프로모션용 비디오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크사이트

세번째 특징은 「유니크 사이트」입니다.
EU문화수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한 편으로 일본에서는, 각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는 독특한 사이트가 동아시아 문화적 도시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연대감 등의 시민이 의식적인 변화에게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식문화와 만화

일본에 있어서는, 좁은 감각의 「문화」뿐만 아니라, 넓은 감각으로서의 「문화」가 진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문화와 만화가 포함됩니다.
「식문화」라는 말은, 일본에서 문화의 진흥 법률에 확실하게 씌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만화문화는, 약800년전에 그려진 그림두루마리를 기원으로 하는, 두드러지게 특징적인 문화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네 개의 특징들이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예상

이제 나는 나의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들은 각각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 및 그 가능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효과 및 영향은 문화의 분야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육과 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의 진흥 그리고 다양한 정책분야에 기여합니다.
즉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단순한 문화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전략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현재의 세계 정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가 압력 밑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 구축, 시민과 시민과의 문화교류에는, 높은 요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도달목표는,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상호이해의 촉진 및 단결의 감각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달성목표는 동아시아의 국가 간의 평화적 관계의 구축과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세 국가, 즉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크나큰 희망을 제공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의 조건은 과거의 달성성과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과 예측으로도 수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것으로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발제자의 원고이므로 문구나 문맥의 수정없이 가급적 원문을 살려 번역한 글을 실었습니다.